朝鮮日報 夕刊 二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後繼內閣에關해 陸海軍首腦協議

時局收拾可能의實力者要望 適任者發見이問題

【東京電話同盟】岡田內閣總辭職에 伴하는 後繼內閣問題에關해서는 各方面에서 여러가지論議가 잇는데 右에關하야 海軍當局의 意向은 非常時의 時局收拾에 重大한 關連性이 잇스므로 愼重靜觀하는 態度를가지고잇는데 海軍上層部의 意向을 綜合하건대

一、今回 重大事件의 原因收拾은勿論、將來를 包含한 時局을 收拾할수잇는 實力잇는 人物로서 國家的 難局을 打破하고 根本國策을 樹立하야 實行할수잇는 人材가 아니면 안되겟다

一、그리고도 現下의 國際的非常時에 對處하야 國防을 樹立하고 內政問題에 關해서도根本的改革을 할수잇는 人物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現下의 時局에 鑑하야 될수잇스면 陸海軍以外의 他方面에서 興望을 지고 强力擧國一致內閣을組織할것을 希望하고잇다고 보인다 (寫眞은 川島陸相과 大角海相)

【東京電話電通】陸軍에서는 一日午後四時부터 省內大臣室에 首腦部會議를 開하고 川島陸相(中途退出) 古莊次官、今井軍務局長外 各局長이 出席하야 今後의 時局에 對應할 陸軍으로서의 態度方針에 關하야 約五時間에 亘하야 慎히 熱烈히 所信을 交換하고 九時 정각 散會하엿는데 散會後 九段偕行社에 川島陸相과 各參議官等의 最高首腦部를 訪問하고 右經過及 結果에 關하야 報告하고 이에 基하야 最高首腦部는 深更까지 愼重히 重要協議를 거듭하엿다

三日中大命降下? 平沼、近衞說有力

平沼樞密院副議長

近衞貴族院議長

【東京電話電通】時局收拾의大任을 帶하고 元老西園寺公은 드듸어 二日午後三時二十五分東京驛着列車로 興津坐漁莊으로부터 東上하얏는데 閑公은 東京驛으로부터 卽時宮內省에서 보낸 自動車로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天機를 奉伺한後 繼續하야 宮中에서 一木樞相、湯淺宮相、本庄侍從武官長、岡田首相、牧野前內府等의 重臣과 會見하고 다시 川島陸相及各軍事參議官等과 個別的으로 會談하야 各方面의 情勢를 聽取할터인데 閑公으로서는 爲先 常侍輔弼의重責에잇는 內大臣의決定을急히 할模樣으로 그 人選은 現下의時局으로보아 極히 困難視되고잇다 그러나 上層部方面에서는 此際에特別한人選으로서 臨할것이라는 論이 有力한데 淸浦奎吾伯說이 有力하다 一方 後繼內閣首班者의 詮衡에關해서는 政情安定 時局收拾上으로 보아 一日이라도 速히決定하야 强力擧國一致內閣의 組織을急히할必要가 痛感되고잇스므로 閑公에게 御下問이계실境遇에 閑公은 前記와가티 各重臣의意見을 徵하는同時에 各方面의 情勢를 注視하고 愼重熟慮한後 奉答하야 三日中에는 大命降下가 잇슬것으로보인다 그리고目下 後繼內閣의 首班者에關해서는 갑작이 豫斷할을 不許하나 軍部方面에 理解깁흔樞密院副議長 平沼騏一郎男의 起用이 가장 實現性이 豐富하다고 보이며 그다음은 貴族院議長 近衞文麿公이 有力한 候補者이라고하다

陸軍側要求人物

【東京電話電通】後繼內閣의 後相面貌는 벌서부터 傳하고잇는데 今日까지 傳해진 面貌에對하야 陸軍一般의 空氣는 모다 時局擔當의 資格이잇느냐를 疑心하고잇다 그리고 陸軍으로서는 軍人을 首班으로한 內閣은 考慮에 두지안코 專혀人物本位를 待望하고 國家革新의 實力이잇는 人物이면 現在水平線下에잇는 人物이라도 欣然 이를마즐것이라는 信念을 堅持하고잇다

中野氏를盟主로 政治結社結成

國同一部脫黨參加

【東京電話同盟】中野正剛氏는國民同盟의 指導精神에 關하야安達謙藏氏와 根本的으로 意見을달리하얏기때문에 脫黨한 以來現狀打破 漸進的 國內改造를 目標로、政治結社를 組織하려고東方會를 中心으로 同志糾合에努力中이던바 安達總裁가 去月二十三日 岡田首相、鈴木政友會總裁를 訪問하고 內閣改造에 依하야 現狀維持를 圖하려는 所論을 示하엿기때문에 國同一部에는 不滿氣이 잇든때요 今回의事件으로 現狀打破가 決定的인 大勢가되엇슴으로 同志糾合은 急速히 進展되어 一日夜 國同으로부터 數名이 脫黨하야 中野正剛氏와함께 新結社를 結成할 決意를 굿게하야 國同은又復 大動搖를 보게되엇다 中野氏는 드듸어 議會內에서 十二、三名의 代議士를 引率하고 行動하게 될터인데 議會外에서는 軍部의 漸進的國家改造論者와 其他各方面의 專門家、財界中으로부터 同志를求하야 各層을 橫斷的으로 新勢力을 釀하기를目的으로하고잇는데 當分間은 東方會의 組織으로서 代用할 豫定으로 一兩日中에 結成趣旨를 公表할터이다

朝滿間의三戰役

—丁卯胡亂과江都和約— (八)

文一平

仁祖反正에 對淸策이 高調하면서도 實際에 잇서서는 何等의防備를 하지안코섯다 復讐이 업게 實策한지 모르는危機에 處하야 朝臣들은 부질업시 黨爭을 일삼고 잇섯다 일즉 壬亂에 國運이 鴨綠江머리에서 갈룰거릴때 宣祖大王으로 하여금 「莫死云 以後 事復舍西東」의 歎息을 發하시게 하던 이黨爭이 亂後에도 依然히 持續하야 光海때는 北人끼리 大北小北으로 갈라저 서로紛爭하는 바람에 西人에게 팔 機會를주어 입것을 그의權術에 依하고 말엇거니와 仁祖때는 西人의독판이 되엇스나 가튼西人끼리도 動西、淸西와 老西、少西로 갈라저 서로紛爭하야 [illegible] 女眞人의 [illegible] 맛기려한것은 아마하도 朝臣사이에 이러 여러운일이다 [illegible] 黨爭으로 日課를삼고 그럼치 안코면 [illegible] 春秋倫理를 講論하는 동안에 後金(淸)[illegible]等의 虎將三萬이 하로밤에 鴨綠江을 건너서 西境第一重關인 義州城을 攻陷하엿다 때는 仁祖五年正月十四日이니 이것이 丁卯胡亂의 發端이다 敵은 降將韓潤의 嚮導로 [illegible] 우리에 西北守將의 虛疏한을 타서 거의 無人之境을 드러오듯시 하야 [illegible] 淸川을 깨트리고 [illegible] 定州를 略取하고 이내和를 我에게 求하며 그頭로는 朝鮮이 後金을 侵害하는것과 毛文龍을 優待하는것에 잇섯다 朝廷은 兵判張晩으로 都元帥를 삼아 諸將을 督率하야 敵을 進擊케하고 南漢의 要害를 防備하며 일번 三南의 召募使를 내려보내어 勤王兵을 모으게 하엿다 敵은 다시 淸川江을 건너서 安州에 達하야 兵使南以興과 牧使金浚이 士卒을 激勵하야 奮戰苦守하므로 敵의死傷이 만이 되엇다 그러나 孤城이 勢窮하여지고 乘勝突進하는 大敵의 銳鋒을 막아낼수 업서서 以興과 浚이 그部下로 더부러 悲壯한 最後決心을 하고 스스로 火藥庫에 불질러 重圍에 빠진 孤城을 버게하고 將卒이 한께 번에 殉國하매 이르니 이것이 丁卯役中에 잇어난 有名한 悲劇이로 朝鮮人의 氣骨을 보이는 同時에 敵人의 肝膽을 서늘하게 하엿다 安州敗報가 京師에 이르니 民心이 더욱 洶洶하야 모다 離散하며 朝廷이 [illegible]하야 世子의 全州發向과 仁祖의 江都播遷이 이 계셧고 平山에 留陣하던 都元帥 張晩이 開城에 退守함도 이때의 일이다 그러나 敵도 얼마를 하지 못하게 되어 비록 平壤과 黃州를 占據하고 그先鋒이 平山에까지 進駐하엿스나 도리어 和를 我에게 請하지 안을수 업게되니 一、割地와 二、毛文龍捉送과 三、一萬兵으로南朝(明)討伐의 援助等 三條件을 提出하엿다 그러나 이는 모다 實現될수업는 [illegible] 要求이엿다 [illegible] 江都行在所의 守禦가 薄弱하므로 이를 念慮하여 [illegible] 崔鳴吉이 講和의 不得已함을 主張하매 朝廷이그 말을 따라 和를 講하게 할새 三月三日에 兵判李廷龜等이 敵將劉興祚와 江都西門外 [illegible]에 臨하야 白馬黑牛를 잡아 [illegible] 祭祀하고 그피를 마시며 兄弟國으로 和約을 定하니 이것이 丁卯胡亂의 終局이다 戰亂의期間이 數十日에 지내지 못하고 兵禍의 區域이 兩西一帶를 버서나지 못하나 敵의 擄掠이 甚하야 淸川江以北은 거의 荒廢에 도라가게되어 鄭忠信같은이는 淸北放棄說을 提唱함에 이르럿다 後金(淸)入寇의 目的이 朝鮮을 [illegible]하야 後顧의 憂를 끈코려고 한에 잇슨것은 勿論이다 [illegible] 後金(淸)의 [illegible] 講和를 急成하기 때문에 [illegible] 敵이 [illegible] 定州에서부터 平山에 오기까지 연방 和議를 自願한것은 理由가 업는바 아니다 이때 만일 [illegible] 一致하야 [illegible] 彼의 形勢는 더욱 不利할번 하엿다 그러나 內爭을 일삼는 朝廷은 [illegible] 이 亂中에 奇現象은 官軍이 無力하야 平北義兵이 失守하매 民衆이 일어나 自衛力을 發揮해서 所在에 敵兵을 깨트리니 鐵山의 鄭鳳壽와 龍川의 李立이 가장 有名하다。

西園寺公歸東 政權歸趨가注目

後繼內閣首班과內大臣奏薦 滯東中宮內省에留宿

【興津電話同盟】西園寺公은 今回의 事件發生後 興津坐漁莊에서 次期政權의 推移에關하야 熟考中인바 帝都의 治安도 戒嚴令下에 全혀 維持되게되고 念慮된 健康도 格別한일이업스므로 드듸어 二日午後零時三十九分靜岡發 特急富士로 上京하게되엇다 따라서 老公은 二日午前十一時半 嗣子八郞氏 原田熊雄男 中川小十郞氏等을 거느리고 嚴戒裡에 自動車로 靜岡에至하야 乘車하엿다 老公은 午後三時二十五分 東京驛着 卽時宮內省에서 보낸 自動車로 宮中에 參內하야 天皇陛下께拜謁하고 天機를奉伺한後 御前을 退下할터인데 滯京中은 宮內省에逗留하기로 되엇다

【東京電話電通】後繼內閣의 組織은 現下의 政情安定을 爲하야 最緊急事이며 이準備에 關해서는 一日朝來 重臣間에 重大協議를 進行하고잇던바 압서 事件突發以來 上東할 意向을가진 西園寺公은 時局의 重大性에 鑑하야 身體가許하는限 二日午後에 上京하야 天機를 奉伺한後 時局收拾에 當하고저 各方面의 重臣의 意向을 徵한다음 御下問에 奉答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上東으로 事件後 一週間에 겨우 新政局의 端緒를 發見하게되엇으므로 閑公上東後의 動靜은 各方面의 注目을 끌게되엇다 그리고 閑公은 再昨年 岡田內閣成立當時와가티 特히 重臣會議를 開하지안코 一木樞相、湯淺宮相、岡田首相을 爲始하야 軍事參議官等과 個別的으로 會見하야 各方面의 情勢를 十分 聽取한다음 後繼內閣의 首班과 內大臣의 奏薦에 關한 決意를 하게될것이다 (寫眞 西園寺公)

叛亂將校에 位記返上命令

【東京電話同盟】今次事件의 關係將校에 對해서는 압서 二十九日附로써 本官을 免하는 旨를 發令하엿는데 또 二日 位記返上을 命하는 旨를 宮內省으로부터 發表하엿다

正七位 香田淸貞 安藤輝三 野中四郞 河野壽
從七位 中橋基明 栗原安秀 丹生誠忠 坂井直 田中勝 對馬勝雄 竹島繼男
正八位 林八郞 池田秀彦 高橋太郞 麥屋淸濟 常盤稔 淸原康平 鈴木金次郞 安全俊 中島莞爾

位記返上을命함(各通)

第一黨民政黨 自重靜觀

【東京電話電通】民政黨은 後繼內閣問題에 關해서도 目下 自重靜觀的態度를 持取하고잇는데 原則的으로는 大體如左히 幹部意向은 一致되엇다

卽 民政黨이 第一黨으로 政界의 中心勢力이되것은 要컨대 擧國一致 國難打開를 希望하는 民心의 反映에 不外하다 따라서 後繼內閣은 當然 立憲政治를 尊重하는 强力內閣이 아니면안된다 이趣旨에 副할 內閣이면 勿論 代表閣僚를 送하야 協力하기를 不惜할 意向인데 如何튼 事態는 具體的으로 協議하게되지안켓슴으로 此際에 特別히 臨時幹部會等을 開하지안코 三日의 定例幹部會를 기다려 愼重히 協議할터이다

二日閣議中止

【東京電話電通】二日은 閣議를 開할터이던바 別로 審議할 特別한 政務도 업스므로 閣議는 中止하기로되엇다

伊軍렘벤方面서 『에』軍一萬殺傷

多數要塞를陷落占領 紛爭以來의最大會戰

【羅馬一日發電通】伊太利側의報道에 依하면 렘벤平原方面에서數日에亘하야 繼續되엇든 에디오피아軍과의 對戰은 伊에紛爭開始以來 最大의 戰鬪를 展開한後 二十九日로써 一段落을 告하엿는데 右大會戰에서 에디오피아側의死傷者는約一萬、伊太利側은 一千의 犧牲者를내고 에디오피아軍의首相라스·캇사將軍은再起不能의 大敗北를當하엿다고한다 그리고 라스·캇사軍의 大敗結果로는 殘存한 에디오피아軍은 皇帝의手兵과 他의 一部隊와 二軍만이 되엿이어서 全國에 大變化가 招來하야 伊太利側에서는 戰鬪終熄은 在邇라고 稱하고잇다 伊太利飛行隊는 果敢한 爆擊을 行하야 混亂을 惹起하야 敗走하는 에디오피아兵에게 對하야 空中追擊을 加해서 山間에 이를 擊退하엿다 그리고 이大戰의 具體的結果로는 第一로 에디오피아有數의 要塞黃金山城을 陷落시킨것 第二로 아디아피-1要塞를 包圍하야 이를 孤立無援케한것 第三은 렘벤平原을 制하는 戰略上의 要地인 [illegible]에라—레山을 占領한것等이列擧되고잇다

聯盟對伊制裁 이程度로中止!

十八人委員會도消極的

【쥬네브一日發電通】이든、폴랑뷰 兩外相은 二日 쥬네브에서 會見하야 오래 延期되던 對伊制裁委員會에 臨하야 今後의 伊制裁方針을 討議하기로 되엇는데 이미 實施한 經濟制裁가 相當한 效果를 示하고잇는것은 事實이라 聯盟規約에 對한 面目은 一段 세웟다고 할수잇고 他方 에디오피아側은 氣勢挫折되어 意氣 顯著히 阻喪되어잇스며 또 伊에問題以外의 一般情勢는 此際에 制裁强化에 依하야 무쏠리니首相을 刺戟하는것을 不許하는 事情도 잇스므로 十八人委員會가 今回의 會合에서 積極的强硬策을 取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漫畫는 伊의對에暴行을 聯盟서 放任한다는것을 諷刺한것)

人事·集會

▲李謙求氏(醫師)一日午後十時滿洲鐵嶺大手町三丁目回春醫院에서永眠
▲李寬求氏(朝鮮中央日報編輯局長)澁伯氏喪으로 二日午前三時京城驛發同滿洲
▲上浦圭氏(總督府人事課長)渡東中一日夕歸京
▲渡邊學務局長 慶南出張中一日夕歸京
▲井出繼氏(官選道會議員)新任人事次本社江陵支局來訪
▲李鍾麟氏(天道敎中央敎會玄機觀長)敎務臺帶하고忠北陰城方面向發
▲權秉惠氏(天道敎中央敎會審計院長)敎務臺帶하고廣州方面에

八面鋒

◇五角形이 四角形으로、四角形이 다시 三角形으로、倫敦軍縮會議의 除角運動進行。

◇佛蘭西라는 一角만 떠러저나간다면 英米의二點을 連續하는 直線만이남을모양。

◇直線조차 끈치다하면 點만이 獨立할터이니、그點이 黑點일지 白點일지。

◇滿洲國成立以來 今年二月一日까지 滿蘇國境紛糾가 二百七十件이라고。

◇紛糾事件計算係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illegible]

◇게다가 外蒙關係의 말성도 合치게되니 事態가 더욱複雜化할수밧게。

臨時朝刊發行

本社에서는 一日午後 [illegible] 中大事件發生 [illegible] 二日은 休日임으로 朝刊 [illegible] 東京事件續報와 [illegible] 一面을合하야 二面大의 臨時朝刊을 發行하엿습니다

長谷部式製麵機

新案特許 特別割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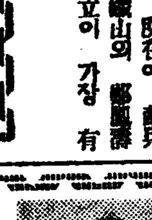
ライト發動機鮮滿發賣元

發賣開始 中島式製粉機朝鮮發賣元

カタログ送呈 ライト輕油發動機 特約店募集

朝鮮販賣元 [illegible]

朝鮮唯一 認可電醫



養成 三週年特典生徒募集

物理醫療全科教授 院長東京電醫學校創始者 最新物療士責任教授

朝鮮에도近近取締規則이發令될터이니無試驗으로開業資格을어드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本院卒業生은醫師同樣에尊敬을밧고皆成功함 希望者에게는學則、內容書送呈·葉書로申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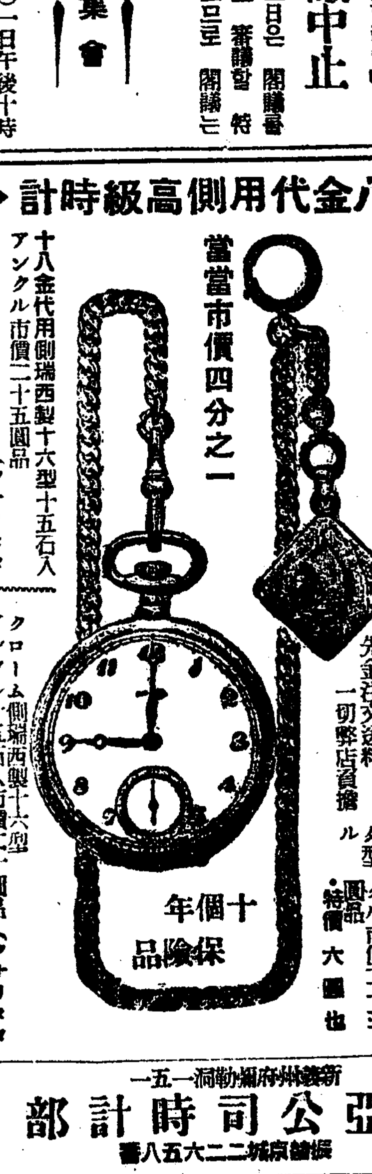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四四番地 朝鮮高等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永樂町岩永醫院側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十八金代用側高級時計◀

◎滿洲事變當時의某外國商館에서融資變分品을割引受하와다가今番開業十個年을自祝코저諸位의게提供하오니勿失此期하시고一次下命試用하시옵소서但團體로六個로一個無代進呈함 先金注文送料一切弊店負擔

當當市價四分之一



十八金代用側瑞西製十六型十五石入アンクル市價二十五圓品 特價六圓七拾錢(クサリメタルサック付)

クローム側瑞西製十六型アンクル十五石入市價二十圓品 特價五圓也(クサリメタルサック付)

腕卷 瑞西製十五石入アンクル九型 十八金代用側アンクル市價二十五圓品 特價七圓也 クローム側アンクル市價二十三圓品 特價六圓也

新義州府福島町一五一 東亞公司時計部 振替京城二六八五八番

東洋自動車學校生徒募集

◎入學隨意。免許證獲得。責任教授。就職紹介

(元京畿道自動車運轉手試驗官) 校長 滿見良

京城府武橋町三二·電本(2)五四〇二·振京一〇六五九

五山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募集人員、第一學年約百名(詳細要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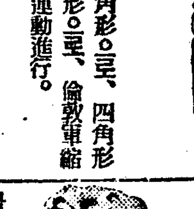
出願期日、三月十七日限 試驗期日 三月十八、十九日(京義線古邑)

生徒募集

文部省認可 第一學年 壹百名 第二學年以上 若干名

興文中學校 廣島縣吳市平原町 (電話一二九八番)

자녀가잇스신분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혈정 이라는 물약은 재래에쓰든 회약이나 끄려먹든약에 [illegible] 복용하기쉬운 약이오니 부인병으로 자녀를 못나시는분 [illegible] 꼭 쓰시요

京城鍾路(示前電車停留場前側)私書函光化門局 調血精發賣元 日光製藥社 振替京城 [illegible] (支店·代理店·特約店募集·規定書請求次第郵送)

원교모물감 (商標登錄)

京城府鍾路二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 [illegible] 振替京城 [illegible]

國際喜劇호텔 [illegible] 未來派女學生 [illegible]

眞品 海狗腎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을

本品은補精壯氣에神秘的靈效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産物을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産物檢查所에서嚴正檢查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效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 (本品을聽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進呈함)

發賣元 大洋貿易社 釜山府 [illegible]

反滿軍과連絡嫌疑로 同胞八十名檢擧
그中의十四名은이미銃殺說
興京縣에大檢擧旋風

【奉天】 모처정보를 드르면 흥경현(興京縣)주재령사관분서(領事館分署)에서는 그곳헌병분견대(憲兵分遣隊)와 협력하야 만주××당(滿洲××黨)과 련락하고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해주엇다는 혐의로 현내재주동포청년 팔십여명을 대랍검거하야 취조중에 잇다하며 길림(吉林)지방에서도 대검거가 잇섯다는데 금후사건진전이 매우주목된다고 한다

【撫順】 만주국흥경현(興京縣)에서는 작년가을부터 반만군들의 제지로 곡물의 운반을 하지못하여오든중 근간 동현도로벌대에게 이주동포팔십여명이 반만군과 련락을 취하엿다는 혐의로 검거를당하야 그중십사인은 지난이월중순에 총살을 당하엿다는말도잇써서 그곳인심은 자못흉흉하야 교통은 두절되고 가족들은 설상에 헤매이게 되는 형편임으로 당국자간은 곡물의출회를 불수없다하야 당지상인들까지 크게 타격을 밧고잇다고 한다

宣撫工作으로歸順한 士兵大部分豹變
一部部隊十二道溝市街에侵入

【咸興】 근이개월에 맛친 만주국군과 관동군의 련합토벌공작과 선무공작으로 근천여명의토병대가 귀순하엿든바 근일중에 이르러서는 귀순토병의 대부분이 다시토병으로 변하여 토벌군의 큰두통거리가되여잇는데그중 토병들은 귀순하기전에 무긔일체를 모다감추어두엇다고 한다 그리고오도구대북구(五道溝大北溝)부근에 잇는점산호(占山好)의부하인 조선인장모(張某)등삼명은 이십륙일오후한시경 십삼도구서강성(十三道溝西岡城)마모(馬某)방을습격하고 다시동구시가지로 잠입하엿다는데 이소문으로 동지일대의인심은극도로동요되고잇스며 경찰서에서는 즉시비상소집을하여엄중수사중이다

"南朝鮮鐵道"從業員
移管과함께鐵道局員으로採用

이번 남조선철도회사(南朝鮮鐵道會社)의 경영권일체가 철도국(鐵道局)으로 이관됨에딸아지금까지 나려오든 그회사종업원들을 어찌처치할것인가?에 대하여는 이관교섭당시부터 철도국의 태도가 주목되며 나려오든중 드듸여 지난일일날자로 촉탁세명을 필두로 이백여덜명의 고원급과 백쉬흔두명의 용인급을합해서 삼백예순세명을 철도국원으로 결정하고 각각 교부하엿는데 그중조선사람은 고원(雇員)급 쉬흔한명에 용원(傭員)급 백마흔네명이라한다.

"하트만"博士
無痛切齒藥發明
無料로世界에提供

작년십이월이일 미국뉴욕시에서 열린 치과의학회(齒科醫學會)석상에서 『콜럼비아』대학교수 『하트맨』박사는 그가 십팔년동안 연구한결과 발명한 아푸지안케 이(齒牙)를 파거낼수잇는약 『데센스티젤』을 일반에게발표하야 그곳에 모혓든 상천여명의 치과의사들을 놀래게하엿다 그는 이신발명약품의 전매특허권을 어떤회사에서 이십오만딸러로 사자고 함에도불구하고 박사는 단연 전세게치과의학계를위하야 그의발명을 보수업시제공키로되야 그 처방법(處方法)과사용법을 발표하엿다 조선에서도 사가귀국중인 『세브란스』병원치과장 『부-쓰』박사가 전긔 처방법과 사용법의문헌을 보내왓슴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곳 경성시내 치과의사들을 초대하야 그방법을 일반에게 보고하엿다고한다 사진은 『하드만』박사

今朝永登浦驛에서
朝發列車總"답보로" 驛前空前의大混雜
갑자기"발"을빼앗긴、出勤群大量遲刻

永登浦列車脫線現場

南部에意外의列車大閱兵陣
列車脫線에時間

【永登浦支局電話】 이일오전다섯시사십오분에 영등포역구내에 도착한 대전(大田)을떠나 룡산(龍山)으로오든 제오십이호 화물렬차가 차량을 교체하노라고 운행중에 기린맥주회사압 교차점에서 신호등실수하야 그만 그렬차의 맨끄테 달렷든 화차바키가 탈선햇다 급보를받든 룡산기관구(機關區)에서는 기술자들이 달려와서 회복에노력한결과 여덜시삼십오분경에야 겨우 회복되엿다

이로인하야 경성방면으로 가는 오전여덜시오십삼분발 제사백이호렬차와 여섯시오십구분발 삼백이호렬차 일곱시이십팔분발 사백사호렬차 여덜시십분발 십오호렬차와 밋부산(釜山)과 인천(仁川)방면행 다섯시오십분발 이십육호렬차 일곱시오분발 사백호렬차 일곱시오십륙분발 사백삼호렬차 여덜시十분발 십호렬차는 발차할수가업시되여 영등포역구중심으로 남북으로 전긔렬차들이 장사의 때를이루어 일대기관이엿다

또 이때문에 영등포역전에는 승객칠팔천명이 나려서 영등포역이잇슨후 처음보는 대혼잡을이루엇고 경성방면에 출근하는사람들은 부득이모다 거러서떠나는형편이엿다

京紡永登浦工場大火
倉庫一棟燒失●損害五萬圓
危險!電氣暖爐不注意로發火

【永登浦】 이일오전령시삼십분경 경성방직주식회사 영등포공장(京紡永登浦工場) 용도창고에서 출화하야 맹렬히 타올으는것을 사원이 발견하고 즉시『싸이렌』을 울리는 동시에 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에 급보하야 동서에서는 이계당(二階堂)서장이하 서원전부와 소방조원이 총출동하고 경성소방서와 한강통소방조에서도 응원대가 출동하야 필사적으로 소화에 노력한 결과 오전두시경에 이르러 동창고한채를 전소하여버리고 겨우 진화되엿는데 동창고는 경성방직회사로서는 생명선과가티 역이든 중요한 고가보충 기계품류등이 가득시허잇섯스며 그외에 면사 약오백표가 싸혀잇섯스므로 손해는 오만원 달할모양이며 원인은 숙직원 리원복(李元福)이가 밤참을 먹으려 나갓든 틈에 난방장치인 전긔난로에 무슨 조히가튼 것이 떠러저서 그와가티 불이 일어난듯하나 목하동서에서는 전긔리원복외수명을 인치하고 엄중한 취조를 하는중이라고 하는데 횡빈화재(橫濱火災)에 사만원의 보험을하여 별반손해는 업스리라한다 (사진은 경방화재광경)

"튜럭"電柱와衝突 탓든사람三名慘死

화물자동차가 전복되여 세명이 무참히도 즉사한사실=시내장사동(長沙洞)김영배(金英培)는 일일오후 오시경에 경(京)오천화물자동차가용 화물자동차에다가 시내루상동(樓上洞)정인섭(鄭寅燮)청엽정(靑葉町)조명초(趙明超)를 태우고 새(塞)동만 제하고 경긔도양주(楊州)로부터 경성을향하고 운전하여오든중양주군주재소부근의 경춘(京春)가도에서 운전을잘못하야 전주에충돌하야 자동차는 파하고 탓든사람세명은 무참히도즉사를 하엿다한다

성양會社火災 損害一萬圓假量

【警務局着電】 지난이십구일 오후세시십오분경에 평북 신의주부외 위화도(威化島)에잇는 평안성양회사(平安燐寸會社)의맛치상자에서 불이나서 오후네시반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 일만원정도라한다

杏堂里에小火

이십구일 오후열시 시외행당리(杏堂里)일백사십칠번지 오영화(吳永華)의 집에서 불이낫스나 곳진화되엿는데손해는 약이십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온돌의불찐전이라한다

故內府、藏相의密葬
朝野人士數百名參集裡擧行

【東京電話同盟】 고 고교(高橋)장상의 밀장(密葬)은 오부터 적판표정(赤坂表町)의사저에서 상주시효(是孝)씨를 비롯하야 유족근친들이모아 고요하고 슬픈가운데 집행되여 령구는 뜰압해 안치되고 고옹의사진은 생전의그모양그대로노코 오후령시부터 독경이잇슨다음 최후의고별이잇서 강전(岡田)수상을빼고 각대신을비롯하야 재계정계각방면의 명사수백명이 령전에서 애도의뜻을표하엿고 오후두시반에 시체는 락합(落合)화장터에 운반되엿는데 표정(表町)의 저택압해는 수많흔 시민이 모아서 자동차전차의통행도 일시 정지될 정도엿다 본장(本葬)과 고별식(告別式)은 정부의 형편으로 아직미정이다

【東京電話同盟】 고재등내대신의 밀장(密葬)은 이일정오부터 사곡중정(四谷仲町) 사저에서 조야수백명인사의 참집리에 거행하엿다 본장(本葬)및 고별식은 정부의 형편에딸아 아즉 결정되지못하엿다한다

靑島中尉自決 그夫人도殉死

【東京電話同盟】 세전곡구지고정(世田谷區池尻町)의 해행사(偕行社)의 근위치중병대대(近衛輜重兵大隊第二中隊長代理) 중위(中尉) 청도건길(靑島健吉)(三○)은 이십팔일밤 자기집에서 할복자살을 하엿고 그의 처 희미자(喜美子)(二二)도 역시 단도로 목을 찔러 자살을 하엿는데 부인은 즉사하고 중위는 위수병원(衛戍病院)에서 응급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할복자살을 도모한 청도중위는 정강현 지태군(靜岡縣志太郡)출생으로 사관학교(士官學校)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엿섯는데 이번 사건에 관계하고잇든중 이십팔일자기집에서 자결을 결심하엿다한다 그의 처는 선대시(仙臺市)출생으로 그 부친 좌등동송(佐藤東松)은 치중병소좌(輜重兵少佐)로엇다가 퇴역하엿다한다

大川周明博士 刑의執行延期

【東京電話同盟】 작년가을에 대심원(大審院)에서 군형법(軍刑法)을 적용당한 오일오(五、一五)사건의 중범관계자 대천주명(大川周明)박사 본간헌일랑(本間憲一郎)두산수삼(頭山秀三)은 각가형이 확정되여(大川五年、本間四年、頭山三年)그후 그집행을 연기하야 삼월일일 집행할예정이엇스나 더욱그집행을 연기하기로 되여이일 당행(當行)검사총장 책교(棚橋)검사등이 협의한후에 그집행기일을 결정할터이라고한다

小栗總監 殉職者弔喪

【東京電話同盟】 소률(小栗)경시총감은 일일오전아홉시반경 순직자들을 조상하고 중상자를 위문하엿다

松尾大佐葬儀

【東京電話同盟】 강전수상에 대신하야 수상관저에서 희생된송미(松尾)대좌의 장식은 삼일정오부터 두시까지 청산재장(靑山齋場)에서 집행하고 시체는 고별식후 화장에 부친다음 그의 고향에갓다가 본장(本葬)을 지내기로되엿다 그런데 상주인 륙군보병대위 신일(新一)씨는 산해관(山海關)으로부터 상경하야 금명간에 동경으로오기로되엿다

鈴木侍從長 經過良好

【東京電話同盟】 령목(鈴木)시종장의 그후경과는 매우 조하서 하롯날 아츰부터는 집안사람들과서로이야기할수잇는 정도에 이르럿는데 탄환두개는 꺼냇고 한개는 아직 그대로잇스나 모다걱정할정도는아니라고한다

宮內省退下 內閣各閣僚

【東京電話同盟】 이십륙일 사건발생이래 궁내성 상층의 회의실을 빌려서 근근 중대각의를 열고 사건의 선후책을 강구하고잇든 내각 각 각료는 일일한 이 궁내성으로부터 떠나기로되엿다

放火犯行에有涙 自願"火災罹災民"
주림끄레、同情의밥바드려、이웃에放火

주림을 참다못하야 불낫슬때에 이웃집에서 동정하야 끄려내는 음식물을 어더먹으려고 이웃집에다 불을 노흔가련한 사나희가잇다 경긔도수원군 팔탄면구장리(水原郡八灘面舊場里)팔탄면 용인(傭人)김교상(金敎庠)(二三)은 지난이십구일 오후일곱시 십오분 그동리 팔십일번지 리종면(李鍾冕)(三〇)의 집과 일곱시이십분에 그동리 오백칠십삼번지 박제범(朴濟範)(二七)의집에 련속적으로 불을노와 약간의 손해를 내게한 사실이 탈로 되야 이일아츰에 소관 수원경찰서에 검거되엿는데 그는 생활곤난으로 주림을참다못하다가 불낫슬때에 이웃집에서 동정으로 해내는 음식물이나마 어더먹으려고불을노핫다고 자백하야 취조하는경관의눈물을자어냇다고한다

懺悔의눈물에저즌 그의"結婚設計圖"
집은金"메달"로、婚半指맨드럿다가 牧師의說敎듯고警察에自首

이일 오전열한시경 본정서에는 시내 북미창정(北米倉町)오십륙번지 모상점점원 김동수(金東洙)(二二)가 차저와서 말하기를 작년 십이월십오일 오후 여섯시경에 남산공원(南山公園)으로 가든길에 어성정(御成町)에서약 삼십원가량되는 금목메달을 집엇는데 로중에이엇든 그는 다처음 신혼생활의 설계도(設計圖)를그리면서 종로(鍾路)모보석점에가서 그것으로 결혼반지를 맨드러 장식하고 잇섯는데 신부후보자요 고향에잇든차에 정월달어느날 동무의 권유로 시내 모교회당으로 구경을갓든데 목사의 엄숙한 설교를 듯든차에 어느날밤 목사는 돌연히『사람은 남의것을훔쳐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들이과거의 그런 잘못이잇스면 이자리에서 곳하나님압헤 회개 하여야 합니다』라는 설교를듯자 그는 문득자기의 범한죄를 뉘우치고 눈물흐리며 목사압헤 업드려 자그만한 비밀을참회하고 나어서경찰에까지 차저와서 금반지를내노흐며 일체과거를 고백하고 법의처단을 청하엿스나이 사정을드른 이견(一見)사법주임은 그의고백에 감동하야 그를 격려하야 석방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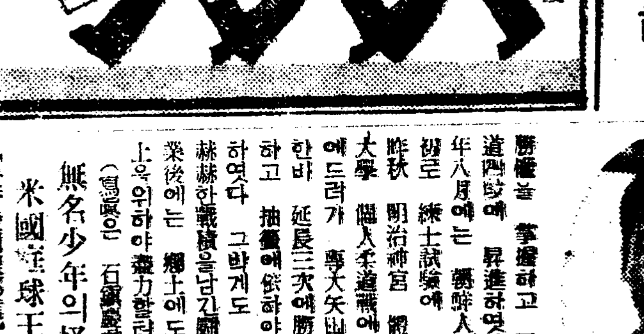
基靑에서火曜講壇

시내중앙긔독교청년회(中央基靑)에서는 그회농촌부(農村部)사업으로 이번화요강단(火曜講壇)을 새로히 맨드러가지고 매주일화요일마다 실제상식문제의강연이 잇슬터인데 삼일오후 일곱시반부터 박천병(朴天秉)씨의 농업과 그계획의 필요(農業과機械化의 必要) 라는강연이 잇다고 한다

天津、大沽港外에 汽船卅隻、禁足命令
但、命令者는酷寒으로因한結氷
飛行機로食糧投下救助中

【天津廿九日發電通】 천진(天津)지방은이십팔일에 혹독한 추위가 덥처와서 대련긔선(大連汽船)장성환(長城丸)기타 이십구척은 대고항(大沽港)박게서 두께 넉자나되는 구든어름에 막혀서 『키』가파괴되여 항행하지 못하게되여 『SOS』를 발하엿스므로 일본비행긔는 공중에서 장성환으로향하야 식료품을 던젓다 그러고 장성환의 선객 삼십이명 쇄빙선(碎氷船)에 구조되여 상륙하엿다

【天津二十八日發同盟】 태고(太沽)는 자금까지 계속한 결빙으로 교통이 두절이되여 가치게되여주변은 겨우두서의 상태임으로 대판상선장강환(大阪商船長江丸)은 어롱에파뭇치어 잇든중 이십구일에 일으러쇄빙선(碎氷船)의 활동으로장강환과 승객삼십이명은 겨우 반출하게 되엿다한다 그리고 대련긔선은 백천강(白川江)의 결빙으로 정지되엿다한다



氷上代表"마르세이유"出帆
四月六日橫濱入港

【巴里二十八日發同盟】 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에 參加하엿든 金正淵、李聖德、張祐植三君은 豫定과가티 지난 二十八日朝『마르세이유』로向하야 午後四時同港發 白山丸으로 歸途에올럿는데 來四月六日橫濱에入港할 豫定이라한다

拳鬪代表歸京

東京에서 열린 世界올림픽拳鬪豫選戰에 出場했든 朝鮮代表一行은 田鎭彥、盧義榮兩氏引率아래 昨一日午後三時二十分 京仁列車로 歸京하엿다 一行中의 金守中(輕拳)、崔龍德(靑拳)李奎煥(明拳)三選手는 來四月에行할 決勝戰에 再次出戰케되엿스며 李奎煥氏와 洪在浩君은歸途 大阪에 下車하엿다가 今二日에 歸京할豫定이라한다

鬪將石鎭慶君 柔道五段에

立命館大學에 在學中인 石鎭慶君은 今春卒業期를압두고 지난 二月廿九日에 京都武德會本部로부터 柔道五段昇段의 正式發表가잇섯다는快報를 君의恩師인 中央基督師範 張權氏에게 通知하여왓다 石君은培材高普出身으로 立命館大學 豫科時代부터 全日本高專柔道大會에 出戰하야 同校로하여금 覇權을獲得함에 唯一한 殊勳者이엿스며 一九三四年六月에는 日本關西地方 個人柔道戰에 出場하야 堂堂히 優勝權을 掌握하고 同年八月에 柔道四段에 昇進하엿다 그리고 同年八月에는 朝鮮人으로서는 最初로 練士試驗에 合格되엿스며 昨秋 明治神宮 體育大會 高專大學 個人柔道戰에는 準準決勝에드러가 專大矢山部五段과對戰한바 延長三次에勝敗를 決치못하고 抽籤에依하야 石君에惜敗하엿다 그밧게도 同大學選手로 赫赫한戰績을남긴鬪將으로서 卒業後에는 鄕土에도라와 斯界向上을위하야 盡力할터이라한다 (寫眞은 石鎭慶君)

米國庭球王을一蹴 無名少年의怪腕

【紐育發同盟郵信】 一九三五年度全米庭球順位에 잇서 單複戰에 모다 一位를 차지한 『우이루마·아리손』은 『뉴-올레안스』에서 『슈가-빠울테니스·토-나멘트』決勝戰에 『호로리다』의 無名少年 『아-사-·헨드릭스』選手에게 敗하엿다 『아리손』은 昨年『프렛트·베니』를 擊退한 以來 身體의 故障도 잇섯스나 『호로리다』에서 나온『헨드릭스』는 아번 大會가初參加라는바 試合은 始終『헨드릭스』의 『드라이브』와 巧妙한『넷트프레이』로因하야 『아리손』은第一세트를 獲得하엿슬뿐으로 다음과가튼 『스코어』로 敗退하야 米國庭球界에 큰話題거리를提供하엿다

헨드릭스 (9:7 6:4 1:6 6:1) 아리손

東洋拳鬪會員增募

東洋拳鬪會(府內水標町四九)에서는 三月一日부터 新入會員을 增募할터이라는데 特히學生들에게 拳鬪競技를普及시키려는意味에서 從來의入部金五圓이든것을 學生部에限하야 三圓으로減하고 月謝金은 一般部와學生部共通五十錢으로 나리엇다한다

럭비리그第一日戰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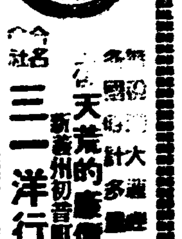
西部럭비協會朝鮮支部春季럭비리-그第一日은 昨一日다음과가튼 戰績으로 京城럭비俱樂部及鐵道軍이 各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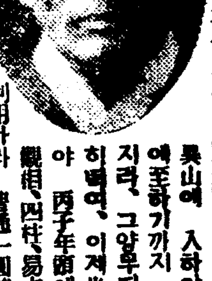
京俱 63 (26 57 … 0 0) 0 善隣
鐵道 91 (40 51 … 3 0) 3 京商

天氣豫報

低氣壓은 日本海東部와 北海道北部에잇고 高氣壓은 北中으로부터 朝鮮으로퍼저고잇다 朝鮮과 滿洲는 개이고 湖南地方과 朝鮮海峽은 눈이나리며 추위도 오늘이絕頂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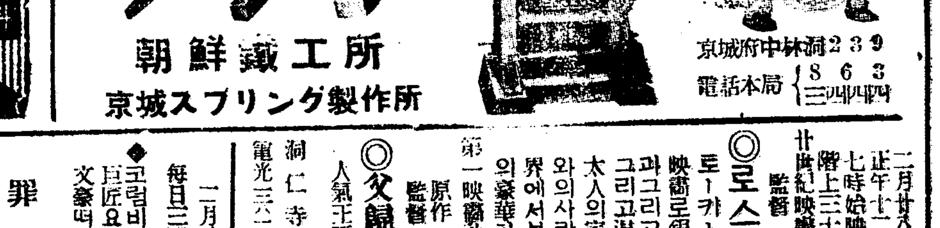
昨日最高 零下四度
最低 零下十二度八
今朝 零下十三度七
正午 零下六度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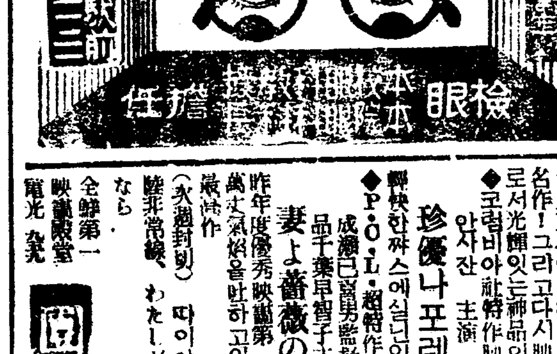




觀相 張竹圃先生入城
開運成功의열쇠를잡으라
竹圃先生은 今年五十九세의 …… 京城府敦志洞六七 張竹圃觀相所

風病
大風病을百發百中全治하는有名한藥이本藥院에서發明한것이다 …… 釜山府草梁町四○ 春藥院內 風病研究所





電醫師責任養成 學則進呈
平壤高等電醫學院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取締役 堤永市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開城、大田、永同、大邱、釜山、平壤

團成社
◎父歸る母の心 人氣王天光軒滿月口演
原作 菊池寬 監督 寺門静吉
二月廿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午後一時半、六時廿分)
◆코롬비아社超特作映畫 巨匠요셉·폰·스탄빠監督 罪와罰
◆코롬비아社特作映畫 珍優나포레온
◆P·C·L·超特作映畫 成瀨巳喜男監督作品 千葉早智子主演 妻よ薔薇のやうに

朝鮮劇場
◎로-스차일드
二月廿八日부터五日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肺病(肋膜)患者에進言

眞正한全快者와 거짓全快者

有田ドラック商會主 有田音松

「사람을대하면도적으로너이라」는말이잇다

여기에그일예를든다하면, 몸에나 마음에상처를밧고「고통밧고잇는 폐병 또는늑막환자의 약점을노리고, 돈모이려하는 간상배가 도량하고잇는 세상에, 그런광고를보면

자가제의 매약에, 의하야전 쾌된것가티전쾌문을 게재하는자가만타

그전쾌자라하는것이 실노황매한것으로서, 주소를기재치안코, 오직현명과 씨명을쓰고, 심하기는성명〇〇×의복자를써서, 마치구름이나 붓잡는것갓다

이런전쾌문중에는, 병자를낙그려고 자기가마음나는대로 편지를써서포쓰토에넛코, 그쾌자가보내여 온거와우편을밧고서, 마치전가티거짓감사문을 꾸며서버젓하게 신문광에게재하고잇다.

이와가튼 수단은 큰길엽헤서 파는 연설약장수와갓다

편지나엽서를돌여보이면서마치 마법사와도가티거짓을꾸며 대고세상을소기는 중오스러운수단을 다하고잇다.

가령그전쾌루서라것이 진정한것이라하더라도, 보통은전쾌로생각되는것이라도, 의사가 진단하야 전쾌되지안한는 때가만라, 고로 의사의 전쾌진단서도 업시다만자기로서 전쾌하엿다고사예장이 와다하더라도, 그것은미듬수업는일이다.

더욱신문지상에 발표하야, 사회에 공표하는이상, 그와가튼무책임한일은 안되는것이다.

폐병, 늑막염등의 난병에걸여번민하는 사람들을 진정한것처럼 켜며 오인식혀서, 자기의약을 팔여고하는 목적에 이것을 리용하는등은 단연용서못할인이 찌기수단이다.

지금은각국의광고취급이가장엄중하야, 허위또는 과장적대광고는절대로허치안는다. 그리고町村內에는주재소면소에서, 만일이라도우리상회에서 발표하는전쾌자가가지되는것이잇스면, 곳문제가되는것이다.

「사람을대하면 도적으로너이라」는거와가티, 간상배의수단에따이여 투병법을그릇치지안토록, 주의하는것이조타.

그런데 상회에서, 약을 사든지안사든지를구하고, 각지의전매소에서폐병, 늑막환자의병리와양생법을친절하게 이약이하여드림으로 누구든지전매소에대하야 료양법을연구하시라

我商會가發表하는全快者는 그와가튼曖昧한것은업다

우리상회에서 발표하는부현, 군시정촌, 번지, 씨명을 명기하야 사진까지 게재함으로써, 누구든지비판의여지가업는확실한것이다

신문지상에발표하는전쾌자는, 상회의제제를복용한전쾌자의五十인쯤의比가되며, 더욱히이런등의문들은, 상회에서지도하는자연료법을취하야, 소위종합료법에의하야 전쾌되것으로써, 자기의고통바든 체험에서, 동병자에동정하는마음으로, 한사람이라도행복스러히인도하려고, 자발적으로 사진과십헌당의발표를신청하여온것이다.

우리상회에서발표하는전쾌자는, 누구든지그본인의전쾌자인것은물론, 전쾌후의사의진단을밧고, 건강진단서를첨부하야 보내엿슴으로누구든지 비판의여지가 업는것이다.

肺結核은 治癒되기쉬운 傾向의病이다

의약과자연의종합 료법이아니고서는치유되지안는다

폐결핵의병인은 그날그날의부자연생활에서 생기는것이다그에대한치료는제일로자연료법에중심을두고 자연치유력을선왕하게하지안흐면안된다 그런데결핵병에걸니면 자연치유력을보조하기를 고려치안코 의약에만의뢰하고정온가를보고열의오르나리는것을보아 정신을을난케하며 의약에몰두하더라도 병은의회합으로써, 내종에는당황하야 광고를보면자양제다 강장제다 삐타민이다, 카르슘이다, 헤-뻬(肝油劑), 간유다, 이런등속을복용하면꼿병증이 경쾌되는듯이 써잇슴으로써그것을신내하야 그러는동안에뒤늣게되면다시더 방법이업게된다

폐결핵은의약뿐만으로서치유되는것이아니라

현재구미에서는「사나토리움」자연료법이 보게되는것이다일본정부에서는 구미의결핵병감퇴에감하야, 각도시에 자연료양소의설치를 급무로하고잇다, 아상회가 다수의 전쾌자를신문지상에 발표할수잇는것은아상회의양제와자연료양, 즉

종합료법에 이한리상적료법

에틀님업는것이다.

이런리상료법을 취한다하면 폐결핵과가티, 결코비관할병이아니라, 양생따라쉬이 치유되는병이다

旗의數字는 人口一萬人에對하야 結核死亡者數 (內務省發表昭和六年度調査)

결핵병을 산에비하야 보면 구미각국에서는 사나토리움 료법이 성행함으로써, 년년히사망자가 감소되야오는 그런데 일본은아직절정을넘으려지에잇다 밧갑지아니한세계一이다

꼭낫는다미드라-

肺病을不治라고밋는것은 失敗의第一步

불부터 계속되는신체의 변조가매우 기름지나 여름에는더욱심하야 九월이되여도 쇠약은더할뿐이고 기츰이일단 심하게되고 끈끈한 담이만히 나기시작하야이상하게 녀이고진찰을밧엇다 『폐결핵이다! 폐병이다! 왜이러케되기까지 그냥버려두엇느냐』라고 심하게 누차말하시기에 정신이홀리하엿다

정신이빠진것가튼 신체로서누엇드니 오랜병상생활의고심, 가사에손대이지못하는일, 로부와처자들의일이 점차로생각되야 밤잠을잔때가만코 몸편, 심통, 식욕을진이 주하야고통은 매일더하여갈뿐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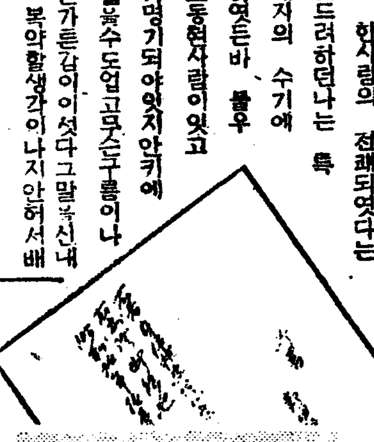
의료에전심 하야 치료에만전하한 결과마음의 고민은날로더해밧이고 무슨다른도리는 업슬가하고 신문잡지에게재된 대가와박사의취천한 소위신료법과 폐병약등에주의하게되엿다

어느것을보든지 그럴듯한설명이 기재되야잇지만 百가지리론보다도 한사람의 전쾌되엿다는예를밋드려하던나는 특히전쾌자의 수기에주의하엿든바 불우하게도동현사람이잇고 주소가명기되야잇지안키에 차저볼수도업고모스구름이나 붓잡는가튼감이이섯다그말을신내하고, 복약할생각이나지안허서배

이기로운 동지 조일신문에 유전도락구(有田ドラッグ)의전쾌자발표광고를보아슬때에소멸되얏다 유전도락구(有田ドラッグ)의광고에설명을본내, 주소와번지까지게재하야발표한, 편지를보내여도 틀님업시가 곳, 의심할여지는조곰도업슬뿐아니라, 길히의심하든저도, 이것을밋지안흘수업게되엿다.

바로근처촌에유전도락구(有田ドラッグ)의약을 복용하야전쾌한 사람이만타하는것을듯고, 속일수업는그사람으로부터권고를밧고, 연분이조흔유전별제치폐제(有田別製治肺劑)와혈액소(血液素)를上州太田町大門通의有田ドラッグ에서사다복약하기시작하엿든바, 그때부터병에대한생가도, 양생하는방침도근본적으로전복되야, 종내, 리유도모르고그냥 「폐병은불치」라고 비관한것은 큰잘못으로서, 이약과자연의힘을리용하야, 심신의안정과, 식양생과, 물굼하는정신만 가지면반드시 치료되는병이라고신념을가지게되엿다.

그리하야, 일단이 가빗지는마르듯가히 병상을옴기고, 실내 공기 울통을 잘하게하고, 태양 이조흔날에는 창을열고만주의 공중을바라보면서, 청아공기를 호흡하면서 숨을뱃어내는듯하엿다



全治者 南源太郎氏 와醫師의健康診斷書

료양방침이확인되야마음이안고, 복약한지 七日쯤부정되러푸근푸근안면 하게되야아침이러날대가 상쾌하엿다.

음식물로는 야채, 계란 장물, 닭고기등을주로서, 야채는 때마다먹엇다.

나는한반개월이나 一개월에완치도게하겟다고 결심하고 근기잇게 복약양생을계속하엿든바, 一개월만에 열이 최고三十七도八부에넘치지안코, 기침은거이업고, 담의양이감하여가고, 二個月만에는 인후에쾌감을늣기게되야 머리가경쾌하고, 엇개가전부하고 수족이냉하던것이낫고, 다리를가두고자든것이, 발을죽펴고자게되엿다. 그리고三개월되는작년正月에는, 낫빗이조코, 『퍽으나 튼튼하게되엿네』라고맛나는사람마다 말하게쯤되얏다.

팔과가슴 의젓근처에 살이두둑하여몸나불만되엿다. 자연의힘에감한처, 나를이러케까지 경쾌하게하여준양약의효과에 감사하면서, 그후에는자연이힘만 밋고양생에전심하엿다.

풀닙이도다을때에는매일나시대와고기줄고리를양손에들고, 즐겨하는낙시질에전심하엿다. 그러는 사이에전쾌되엿다.

병고와, 생활의불안, 로부와처자의비탄을제거한슬거움은, 붓을 들어나의투병체험을알여드리는바 이다。

群馬 縣新田郡世良田村大字上矢島九一九 全治者 南源太郎

産後 肋膜炎이 肺尖加答兒로

家族의理解잇는看護와 高價藥과自然의綜合療法으로

이전에한번, 산후에늑막염에걸여가지고의사의권고로산후에꼭애를떼노코다른사람에게맥겨서인공영양으로길는일이잇섯다그때는다행이전쾌하야모저대로회복되얏스나 가련하게도어린애는소화불량으로 그만죽어바렷다.

남녀간에튼튼한애를빨이나보왓스면하고잇던바김부게도재작년가을에사내를순산하엿다.

산후에경과 도조코남편도 대단깁버하며, 나도이번에야말노 튼튼하게길너보겟다고든든한결심을가젓섯다.

백일이지내서몸은겨우회복되얏슨 고로기사는몰느밤내도한가지두가지식하기시작하엿던바, 엇전지피로하기쉽고따때로머리가압흐고기분이우울하기쉬운고로산후의순환이고르지못한것이늑울마알고 별로추의도안코잇섯다.

이러한상태가밤낮업이계속되더니 갑작히오슬오슬하고심한두통이나서 열이남으로 혹이전의늑막염이나 안인가하고 념려하고잇섯든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가슴이 더집짓가티되고곤룸이날듯우게 나왓섯다。

남편은대단히 걱정을하고함이 의사를불너왓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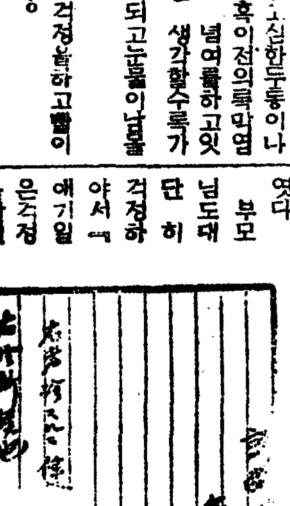
진찰한결과

역시늑막염의 재발과폐첨가타르의 병발임으로 대단안정을하라고 절대로 정양하지말고 철저히치료하여주엇다 그러나이전에 실패가잇슴으로 아무리하여도 정양을면수는업고 안정은하여야 할몸이면서도

기적우를 밧구고 돈모든것을보와줌으로 몸에해로운 일만아야 병은날마다 중하여갈뿐이엿다 부모님도대단히 걱정하야서一 애기일은지정음업면 우리들이흥하길 바라고 말슴하시고남편도 자양을서(?)식히러고 장에나가다 면머주엇다.

야채에치중

한시골(?)이라 아부님과남편에게밀을 하엿더니 인데 하루며병과롬이 약한몸은 그사는동과번지와의를사진까지 위장을해하는것이 당연하다



全治者 塚原ナカ氏와 醫師의健康診斷書

위장의기능

이달너지는것 러케만히먹으면 건강한분이라도 채효주로먹고잇던분이 갑작히그 선, 고기등의 자양분을잇스나야 병이결코 낫는것은아니다. 도생기를아무리몸을 안정히하드래도 게하엿다 그랫더니 주입이말하 有田도락구專賣所에 상의하려가 하고나편에게 부탁하야 平田町 의有田製治肺劑와 有田血液素 를복용한동시에 신체의안정과가 티마음도 편하게하고 식사도자 고혈생은조와서

몬저대로건

강체가되얏다 꼭一年이 경과되지 금 금년 과가튼치 위에도갑 기한번안 걸이고원 기잇게지 내다 일 광친과남 편이정성 것 길너 줌으로병 도아나고

귀가조화 하는야채 로무, 당근, 시금 초등을아 무조록 만히먹 도수록의하여던바 배속은조코 四五日 경과한즉 약의효력이 낫것인지밤만도나 고 신열도차차 내려서기분 도편하게되 고 것이면대단 양슴으로이 조타고자신이 생기 여서설생도열심으로하게되얏다 물론이전부터보이고잇던의사에게 진찰을바덧더니 경과은대단조타 고깃버하엿다。

를를게자라서지금에는애를중심으로 전가족이행복스럽게지낸다

島根縣 能義郡 ... 全治者 塚原ナカ

肺病은낫는다

藥劑의選定과 攝生의方法에따라

한여름에위장을해하야들어누은것가티괴롭든일은업섯다 먹을라야 먹을수가업고 먹으면 또괴로웁으로그 가원인이되야서더욱몸이 쇠약하면고 잇던중에가으를바람 이산들거리기시작함에따러서정향하 이약하여진몸은 감기에걸여서쉽게낫지안코 그러는동안에 바른쪽가심이심호흡할적마다 알호고도기침이일어나서끈끈한 담까지나게되얏다

몸은느

럿하고밤에는잘 자지도못하고 기분납븐한까지 지나게되얏다 자지도못하고 기분납븐한까지

어느한 가지나 현저한 효과가업섯다 그결과의료만으로는절대로안낫는다고깨닷고자변에 의한치료가제일이라는것을늣게 속출한다 는有田도락구약을 발 어떤날어느신문에서 전치자가

먹으면

또괴로웁으로그 가원인이되야서더욱몸이 쇠약하면고

귀중한

한경험과역구로 서울에게 다변간어든 四ヽ 有田도락구專賣所를차저가 그만두더라도몬저 古知野町本町 견하엿다 그리하야다 른것은다

사람이 아무리실허하는 떠병이라도조흔한섭생과약 마찰선택하 면곽량호하경과를 어들것이란말을들 엇다 가튼목적으 로 사용한약이라 도 一키로一라二 三圓한것도잇고二 十圓三十圓까지한 것도잇고심한것은 五百圓이나八 百圓한것도잇다。 말하자면 二圓 어치약을 써도기침약은약이요八 百圓짜리를 써도기침약은약이다 그러면엇쩌하야 그러케갑이틀일 가할족갑싼약은 부작용이만흐으 로먹은뒤에

위험성

이만흐나 갑이 만흔것은그러한부작용이적고, 효 과도현저한것이다。

병을 고치는데는약의선택법에중 대한관계가잇슴으로 有田도락구 에는부작용이적고효과 가가장현 저한고 가약을배제하야잇다 는 것을 듯고과연그럴뜻하다 고맛

강한자

신을가지고別製 治肺劑와 血液素를사다가먹어더 니 현저히고통도괴로운 자각증 상도 차차로업서지고 몸도들로 드되여 전쾌되여서지금에는병전 보다 더원기잇게일하고잇다 치료한가운대에 중절히 늣긴 것은

一、세상풍설에미혹말고 자기밋는바로 바로할것
二、일본인은 일본인의 체질에 맛는섭생법과음식을먹을것
三、공기, 일광, 음식물등자연을 주로한약을먹을것
四、강고한의지 즉 꼭낫는다고 하는신념을가질것
五、약은빗차드라도 부작용이업고 효과가현저한것을잇는것을 먹을것

全治者 森康至氏

愛知縣 ... 全治者 森康至

高價藥配劑公開

肺病 ろくまく炎 肺尖カタル 藥

藥劑는如何한것이最良하다할가

그것은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 醫學學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 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한, 日本藥局方收載의藥劑가正確最良함으로, 我醫療界의基準이되야잇는것이다。

그럼으로我社는政府制定, 日本藥局方收載의內務省衛生試驗所의檢查封緘한優良最高貴藥劑를根幹으로하고, 世界醫學界의權威者公認의藥劑를配劑하얏스며

더구나東洋에서二千年來, 治療醫學上그効績을認定바든高貴한皇漢藥을併用配劑하야, 發賣하엿던바, 全治者들이계속的으로新聞紙上에發表하야肺病이不治症이아닌것을明白하게表示하는醫價를博得하게된바이다

別製治肺劑는左와如한二十三種의綜合醫治効能을具備한處方으로서 許可劑公認配劑를玆에公開함

結核治療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五種藥劑 混合配劑

結核解熱劑

一키로瓦 二百三十圓 外一種配合

世界醫學界에서、結核解熱劑로써最高級의權威잇는 高價藥으로 其作用은 結核毒素에 拮抗하야 因한結核熱을 解消하야, 發熱에서오는 種種症狀을 減退식힘지고 配劑하엿다。

食慾促進劑

一키로瓦 二百六十圓 外一種配合

本劑도 赤歐米의醫療界가 擧하야 賞用하고 더욱 我國政府制定 日本藥局方의 收載藥으로서, 胃腸을刺戟하야, 食慾을增進하고 消化가 顯著히 빨으며 結核患의 消化不良又는 食慾不振에 奏効한 藥劑로서 高價한것도 配劑하엿다。

良하고도高貴藥인것을配劑하엿다

鎭靜劑

一키로瓦 五十二圓

結核患者特有의神經興奮을鎭定하고, 不眠과盜汗과를고치는高價藥을配劑하엿다。

滋養强壯劑

一키로瓦 五十二圓

肺結核並肋膜炎은 身體를消耗식히고 體力을低下케하며 더욱더욱病勢를 惡化식힘으로 體力을强化케하고 또抵抗力의增加를圖謀하기爲하야 日本藥局方收載의滋養强壯劑中優良한것과 高貴한것을 配劑하엿다。

健胃强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一種藥劑、配劑

鎭咳祛痰劑

一키로瓦 七百四十圓 外二種配合

結核患者의가장고통하는것은기침이다。鎭咳를식히는것은患部의動搖를막고、苦痛을除去하야、安眠케하고、食慾增進에必要不可缺한것으로本劑는最新의鎭咳祛痰劑로서奏效確實하다고現代의治療界에서賞用되고잇는鎭咳祛痰劑로、優

消化劑

一키로瓦 四十七圓 外一種配合

本劑는 世界醫藥界의 公認貴重한優良한 消化劑로서 高價한것도 配劑하엿다

酵母劑

一키로瓦 五圓五十錢

近者流行한 食慾增進과 營養이되는 헤ー레劑中가장優秀한것을配劑하엿다

ホルモン劑 (호르몬)

一키로瓦 一千六百圓

一키로瓦 一千二百圓

本劑는東洋에서二千年來, 治療醫學上그效驗을認定밧고, 救急藥으로서萬病에使用되는 高貴藥이다 一種은엇던動物千頭中, 二十頭쯤밧게取할수업는高貴藥이다. 다른一種은 히마라山幽谷에棲息하는動物에서採集한 엇기어려운 호르몬劑로 前記二種의 高貴藥이配劑되엿다。

肺病患者는 本劑로써 一日이 도발니回復되기를바라다。

藥價

十七種配劑 特製治肺劑	八日分	十圓
德用品	十六日分	十九圓
輕症連服用 特別奉仕	三十日分	三十五圓
	四十日分	四十五圓
二十三種配劑 別製治肺劑	八日分	十五圓
德用品	十六日分	二十八圓
重症連服用 特別奉仕	三十日分	五十圓
	四十日分	六十五圓
有田血液素 피가되고살이되는作用이잇슴	卄一日分	四圓
特別奉仕	六十日分	十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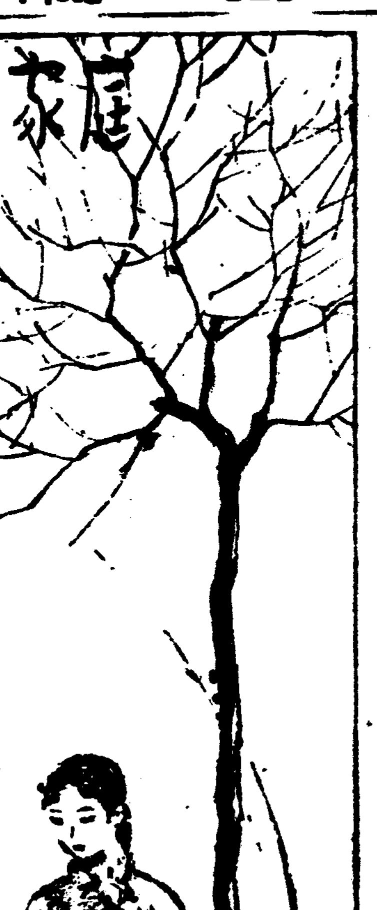
有田도락구專賣所 (朝鮮)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龍山漢兵町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京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二 有田도락구
晋州水港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漢頭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二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大連越後町
關東州 滿洲
新京東一條通 奉天
撫順東六條 開原新市街
四平街 哈爾賓傳家甸
安東 ...

警告 にせ薬をウル サギ師あり 薬袋に大阪內本町有田音松鑑製の文字あるものを お買取あれ

本舖 大阪內本町 有田音松

家庭



이부자리는 자조 햇볏테 쪼입시다
우선 볏이 물러섭시다
그리운 양광도 병균에겐 호랑이

날이 차차 따뜻해 지면 숨을 죽이든 전염병균이 또 횡행을 하게 됩니다. 장질부사 지프테리아 성홍열등병의 별병이 다 만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본다면 전염병은 대개 사람을 넘어다닐사록 악성(惡性)이 되야 버리니 먼저 알든 사람보담 나종 알는 사람이 더 혼울 나게 되고 또 대체로 전염병의 매개는 가족간에 제일 만흐니 남남사이보담 한 집안식구끼리 주고밧는것입니다. 그래한 두가지의 경향은 비단 급성전염병(急性傳染病)에만 잇는것이 아니라 폐결핵(肺結核)가튼 만성전염병(慢性傳染病)에도 업지안한것으로서 아모리 집안식구끼리라고 하더라도 알는 사람이나 성한사람으로서 피차간 서로서로의 주의를 요합니다.

×

그래고 흔히 전염병을 전염시키는것은 음식물 이라고 생각하야 공연한 음식에만 벌벌떨고 잇습니다. 물론 위장계통의 전염병이야 제일 만히 음식물을 인연하지오 만은 그 이외의 전염병은 본래 음식물을 인연하는 경우가 아조 드뭅니다. 음식보당은 오히려이부자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부자리로 전염되는 경우가 퍽 만흔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네 가정에서는 이부자리를 전연 부주의하지 안습니까? 그래서 흔 소독(消毒)이라고는 한번도 하지 안한채 지고나서 그대로 개어두고 또 잘때 그대로 펴고 자지안습니까. 물론 이부자리에다가 석탄산수가튼것을 뿌리어 소독할수는 업습니다 그러케 해서는 갑진 이부자리를 다 버리게됩니다.

×

그러나 일광소독이야 못할것이 무엇이오니까? 그저 이부자리를 볏헤 널어다가 거든 고만으로 아조 간단하고 편리한 일이 아니오니까? 본래 해ㅅ볏에는 자외선(紫外線)이라는 광선이 잇는데 그 광선은 화학적 작용을 가지고 잇습니다. 그래서 그 광선은 사람의살을 붉게 하고 빗갈을 퇴색하게 하고 조흔 균이요 낫븐 균이고 균을 죽이어 버립니다. 어떤 균이든지 완전히 게인날 해볏에서 오는 자외선아래 사십분 내지한 시간만 노하두면 고만 생활력을 일허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가 그런날 이부자리를 박게 내걸어 볏에 쪼일것이니 약물소독도 그이상조코 더 완전할수는 업습니다.

×

멋처럼 비단으로이부자리를 하얏는데 그것이 퇴색해지니까 내널더라 도옥 달쪽으로 내널고 또 혹니불가튼 것으로 떠퍼서 내너는수가 잇습니다만 그래서는 효력이 적습니다. 설사 이부자리를버리는 한이 잇더라도 병을 예방키 위해서니 될수잇는 대로 양지쪽에다가 아모것도 가리지 말고 널어야하는동시 또갓금 이리 저리 뒤집어도 널어야 합니다. 이부자리를 그러케 널어보면 볏만에방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부자리가 푹신푹신해저서 덥고자기에도 쪼습니다. 그러니까 금후로는 애초부터 볏에 널것을 생각하고 이부자리를 잘퇴색되지안할가음 또는 퇴색되더라도 가갑지안할가음으로 맨드는것이 어떠습니까? 그러면 어러니 저러니 아모 문제가 업시 널어던게 되지를 안습니까?

童話

돌이 된 귀신 (一)

崔秉和

옛날 홀련드(和蘭)나라에 「고불링」이라고 불느는 적은귀신들이 만히 살고잇섯습니다. 이 적은귀신들은 몸집은 적은데다가 대가리는 퍽귀습니다. 그리고 몸이 퍽 납새엿습니다. 초록빗 눈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생김음이 몹시 흉하므로 땅속에가 땅두더쥐가리 드러가잇고 낫동안에는 무슨일이잇든지 결코 땅위로 나오는일이업습니다.

만일 낫동안 땅위로 나오면 별안간 돌로 변해바리는 까닭입니다. 이 귀신들은 작란하기를 몹시 조와하므로 밤이되면 커다란 대가리에다가 붉은모자를 쓰고 깡충깡충 땅위로 나올니다.

그리고 사람이살고잇는집에살작드러와서는 작란을칩니다. 사람들은이 작란군이적은귀신때문에 애꿋지를아물 지경이지만 하여간오밤중에 살작드러오므로 손을대어수가업섯습니다. 그런데다가 적은귀신들이 붉은모자를 쓰고 잇는동안에는 그몸둥이가 사람의눈에 보이지안으므로 더욱붓잡는재주가 업섯습니다.

어느날밤 늙으신 할머니한분이 병환이나시여서 자리에두러누어잇스려닛간 적은귀신 한놈이 갑안갑안 방안으로 드러왓습니다 그적은귀신은 할머니를 깜작놀나시게 할작정으로 머리에썻든 붉은모자를 버서놋코 보기흉한 적은귀신의 꼴이 나타낫습니다.

할머니는 적은귀신의 꼴을보자 깜작 놀나시면서 큰소리로 『요놈 나가거라 요놈 얼른나가거라. 너는 내가 하나님을 밋는다는것을 몰느나보구나』하고 부들부들 떨엇습니다. 그러나그 적은귀신은 깔깔우스면서 초록빗 눈으로 할머니를 치여다 보앗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보고 잇슬수가 업서서 『아리다야! 아리다야! 얼는 드러오너라』하고 딸 아리다를 불넛습니다. 아리다가 급히 방으로 뛰여드러오닛간 할머니는 아리다의귀에 입을대이고 『내 나막신을 가지고오너라』하고 속삭엿습니다. 아리다가나막신을 가지고오자 할머니는 그것을 밧자마자 자리에서 이러나서 적은귀신의 대가리를 견양대고 힘지섯습니다.

적은 귀신도 머리를 어더맛고 깜작놀라서 허둥지둥 방에서 도망갈라고 하엿습니다. 맛침 이것을본 아리다가 죽시 뒤로 쫏차가서 적은귀신이 목숨보다 더위하는 붉은모자를 빼서버리엿습니다. 적은귀신은 아이이 울면서 도망해바리엿습니다.

아리다는 붉은모자를 손우러 씨우고비밀로 돌리다가 불에 연듯 조흔 계교를생각해냇습니다. 그것은 가진 날보작란군의 적은귀신들을 지금 빼아슨 붉은모자를 밋기로 잡은귀신을 떼여내다가 해빗에 돌로 맨드러 보겟다는 계교이엿습니다.

그래서 아리다는 동리사람들을 차저가서 『요다음 달밤에 제가 적은귀신을 속여서 잇끌어 낼터이니 여러분이 적은귀신이 쓰고잇든 붉은모자를 빼스십시요. 그러면 귀신놈들은 목숨보다도 더위하는 모자를 차즐나고 죽을힘을 다하야 덤벼들터입니다. 그러는동안에 해만 떠오르게되면 그때는 적은귀신들은 모조리 돌로 변해 버릴터이니간요』하고 이약이하엿습니다. 동리사람들은그말을듯고 손벽을치면서 깃버하엿습니다.

『당신은 조흔계교를 생각해냇소. 하로밥비 그러케합시다』하고 하여간 오래전부터 모다들 귀신을 원망하고 잇든터라 찬성을하엿습니다. 아리다는 밤이되면 어제밤에 적은귀신이 필령 모자를 차즈러오려니 생각하엿스므로 대문간에다가

『너의 붉은모자를 돌려보내줄 터이니 적은귀신을 모다데불고 동리의 넓은마당터로 오나라. 달밤에오면 나무가지에 붉은모자가 걸리여잇는것을 볼수가잇슬것이다. 그러나 그냥와서는안된다. 모자대신에 굴뚝도리를가저고와야한다.』하고 조히에써서 놋치엇습니다.

어느듯 달밤이 되엿습니다. 동리사람들은 너나할것업시 넓은마당터로 모혀들엇습니다. 그리고 모힌사람들은 장등귀신잡을 의론을하엿습니다. 그러나 풀이나 산도야지를 잡는것과는달너서 좀처럼해서 조흔계교가떠올느지 안햇습니다. 그중의 한사람이

『우선 하여간 아리다씨가 나무가지에 붉은모자를 걸거든우리들은 그붉은모자를 가운데두고 빵—둘나 안지면 어떠소』하고 말하닛간 다른한사람이

『그것이 조소. 그것이조소. 아리다씨가 모자를 걸거던 모다그것을 신호로 덤버들어서 적은귀신이 모자를 되려 빼서갓코 그놈들을 꽉붓잡아둡시다』하고 말하닛간 또 다른한사람이

『그러나 귀신놈들은 붉은모자를 쓰고 잇스니간 우리눈에 보이지 안지안느냐』하고 말하얏습니다. 이말을드른 모든사람은 『참-따는』하고 입을 열지못하엿습니다.

『이럿튼 저럿튼 고놈이 보이지안흐면 엇더케 붓잡을수가잇소. 잘못하다가는 사람의머리를 때리기가 십상팔구니, 도리혀위험하지안소가』하고 어려한말들 하는 사람도 잇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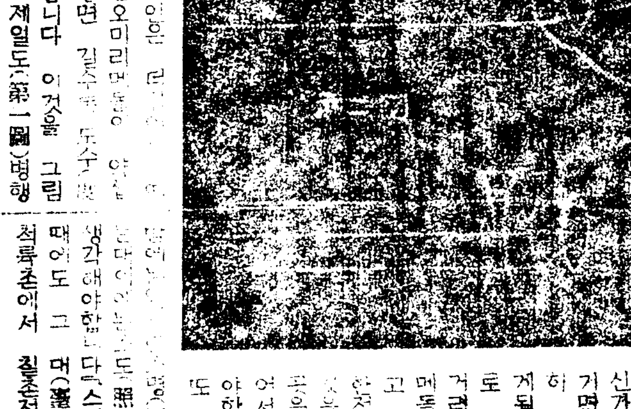
그러니간 좀 나히 든지긋한 사람이

『그러나 할수가 업다. 아리다씨가 모자를 나무가지에 걸거든 축시 주저하지 말고 그근방을 손에닥치는데로 때려누이자 그러면 필령 붓잡히는놈이 잇슬것이니』하고 말하엿습니다. 이러케해서 간신히 귀신잡을 의론이 끗낫습니다.

근시안(近視眼)인분은 늘 이러케합시요
—먼곳을바라보고눈을감도록—

근래 학생으로서 안경을 쓰는이가 보통이되고 쓰지안는이가 도로혀 이상하게되여 잇는만치 근시안이 문화의 세계에 깁히 침입하얏습니다 이원인은 (가) 현대의 생활이 실외생활에서 실내생활로 변해진것 즉 장시간동안 어두운 빌딩속에서 일하게된것 (나) 근시안의 자손은 체질적으로 유전하야 점점 퍼지는것입니다 그러하야 넘대적으로 말하야 또 제일책에 친하기쉬운 십세로부터 이십사오세동안에 근시가 되므로 근대인에는 근시안자로 되는것은 거이 불가피의 현상입니다.

근시안이라는것은 간단히말하면 안구(眼球)의 긴것을 말하는것입니다. 보통의안구는 이십사메돌이나 근시안은 [illegible] 를들면 이십오미리메돌 [illegible] 삼도이며 길면 길수록 도수(度數)가 노파갑니다 이것을 그림으로말하면 제일도(第一圖)평행광선(平行光線)이 근시안에 들어올때 안구가길으로 망막(網膜)에 도달치 안는전에(안구가길으로)이미 초자체(硝子體)에서 일점에 집합하야 다시 개산(開散)하야 망막에 달함으로 원망(遠望)이 희과하게됩니다 즉역(逆)으로 이와가티사입하는 평행광선의 결상점(結像點)이 망막의 전방에잇는 굴절이상(屈折異常)을 근시안이라고합니다 그런대 이환자에는 안경을 조절하는박게는 도리가 업습니다.



(第二圖)

그러나 안경을 썻다고 병은진행안되는것은 안입니다 다만안경사용으로 말미아마 눈을 편히하야 무리를안는 고로 비교적 도수의 진행을 막습니다 따라서 근시환자는 정확한 안경을 사용함과동시에 타방으로는 (가) 근시를 유인하는 위생상부주의를덜고, (나) 조흔체질로 개량해가야 합니다.

첫재와 주의로는 바로 물건의 보지말것 과 자세(姿勢)를 바르게하는것이제일입니다 [illegible] 신가삼쪽으로 당겨면 열록 자연히 바로책을할하게됩니다 이자세로 눈과 책과의 거리를 삼십센치메돌 이상으로하고 오래동안눈을 한점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야 먼곳을보고눈을 감어서휴양을 식혀야합니다. 또 밤등내에서는 [illegible] 조명(照明)을시설하야 [illegible] 생각해야합니다 또 그 대(臺)는 반다시일 척육촌에서 칠촌정도의 노피의 것을 구할시며 그 갓(傘)도 비치 부드러운 유백색(乳白色)의 것을 하는것이 조흡니다 여러가지책을 한꺼번에 볼때는『스탠드』로는 전체를 조명하여서나 불가능함으로 다만 겨우보여는것만으로 만족하면 스탠드가 도로혀 해가됩니다 이상과가튼것을 잘주의하면근시는 심하야질 념려는업고 또 근시안이 안됩니다

(그림은 근시안인사람의망막(網膜)전한눈을 가진사람과 보통건에 물상이 비추이는관계를그린 것이니아래것이 그시안)

先發隊

화장품 제조할때 사람들이 『론린』『바로렐』등 여업분 뜻들의 혼을 잡어다가 부러넷는다구요 그래서 『파우드』나 『크-쥼』는 젊은이를 더 끌고 아름답고 명랑하게 맨든다구요

양의(洋醫)가 본 『풍』이란병 (四)

大學病院伊藤內科敎室 朴秉來

뇌출혈은 어떠한사람에게 만히발생되나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이 잇는사람은 이병을이르키기 쉬우며 따라서 변령이관계가 되는것입니다 즉오십세이후에 발생하는례가 만습니다 녀자보다 남자에만코 음주가(飮酒家)매독등도 원인이됩니다 또는 선천적소인(先天的素因) 즉유전도 만흔관계가 잇나니 즉 졸중성체질(卒中性體質)이라칭하야 가슴이 넓고 목이굵고 짧느며 얼골이 붉고비만한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기쉽습니다 경증

여러가지의발생동기가잇스나 일반적으로보면 혈압(血壓)을 놉게하는경우 즉 과격한노동, 과식, 음주, 냉욕, 정신흥분, 변비 등이즉접 출혈의동기가되는수가 만습니다

뇌출혈을 예방하려면 엇더한 주의가 필요할까 뇌출혈의 소질이잇는사람, 또는그 가정계통에서 뇌출혈환자가 잇섯슬때에는 각별한주의가 필요할것입니다 과격한 로동, 또는 급작한 정신적 흥분을 일상 주의하여 피하게할것이고 술은엄금할것이며 평소에 변비증이 잇슬때에는변소에 갈때 힘이드는일이만흔고로 대변을 순조하게 보도록 일상 복약하여야 됩니다 흔히 뇌출혈환자가 발병되기를변소에 가서 대변볼대 흑은변소에갈때 잘발생됨을 보게되오니 이런사람은 평소에 변비증이잇슴이확실할것입니다 또는혈관경화증이잇스면 그병에대한 치료를 밧게하고 매독이 잇슴을알면 즉시 그병을 치료하여야될것입니다 혈압이놉흔자도 또한주의하여음식은 자극성과 륙식을 금하게하고 일변에 시절이밧괴일때에는 정신적 또는 륙체적으로 우안을주는 적당한시긔를 만드러몸휴양에 적절케할것입니다 근일에 뇌출혈의 예방으로 여러가지주사도잇스나 그러한 소인이 잇는사람으로서는 미리주의하야 적당한의사에게 상의함이 한에 방법이 될것입니다 이와가티주의를하면 가장어렵고 가장무서운표적『풍』도 즉뇌출혈도 어느정도까지는 예방할수잇슬줄로밋습니다

만일 뇌출혈이 발생되얏슬때에 각가정에서 특히주의하실것을 말삼코저합니다 이런환자가 발생되야 급작히혼수상태로 되얏슬때에는 뇌수중에 출혈이생긴것을 생각할것입니다 집의방위가좃치못하다던지 또는 바람을 마잣다든지 하는 미신적의미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은 마라주시기바랍니다 또는 급작히 발병한징소가 치료에방해가되지안할곳이거든즉 특별한경우가안이거든 환자를 될수록옴지거지안하게하는것이 조습니다 그것은 재출혈(再出血)의 위험을방지하고저하는 관계입니다 또 는음식을 먹히나고 너머생각마십시요 혼수상태에 음식을 못먹이면, 침하성폐염(沈下性肺炎)을 이릇키기 쉬운 관계입니다 이것은 자긔정신이 차ㅅ 못한관계로 음식이 즉접 식도로가지못하고 잘못하야 긔관(氣管)으로드러가서 발병케되는 고로 주의할점입니다 발병후 삼일간 절식한다하더라도 관계가업슬거시니 음식을 안타가워 마십시요 될수록 머리를 놉게하고 다리를 얏게할것이며 상체를 차게하고 하체를 더웁게할것십니다 이것은뇌에 출혈된수록 하부로만케하여 뇌수의 과중을경하게하고저하는뜻입니다 이때에주의할것은 더웁게한다고 불붙을사용하는일이만흔데 특히주의할것은 화상(火傷)이 발생치안토록할것입니다 마비된곳은 더운것을 분간치못하는고로 또 겨울을 낫으나 화상을 입기쉽습니다 마비된곳에 발생한화상은 낫키어렵습니다 뇌출혈이 발생되야 이주일이내는 재출혈될의심이만하오니 특히주치의(主治醫)의지도를밧을것이오며 삼주일이 경과하오면 마비된곳을 경하게 만저 줄것입니다 의식이잇서서 음식등을 청한다 하더라도 더욱유동식은 해롭우며 유동식으로 시작하여 차차 고형음식(固形飮食)으로 박구게 할것입니다 또는 일정하게 관장을하여 대변의 체재가 업게 할것입니다 이병으로 오는 마비증세의회복은 사일이걸림으로 노력을앗기지안코 인내하야 치료하면 어느정도까지는 나흘수 잇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걸린다하여 치료를 게을리하야 중지하든지하면 회복이불가능하게 될것이고로 어린병을 양해하며 치료를 밧게하시기를 각가정에 참으로 빌압니다 (끗)

철을따라서
봄되면오는병
신경질인분은특히주의 예방하는법과응급처치

날마다 봄긔운이 농후해갑니다 만물이 소생되는라고 사람의긔분이 명랑해집니다 중에도 젊은이들은 뛰노는피가 오늘에 홀너서가만히안저잇지못하고 거리로 나와 쏘다니게됩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봄이되면 만사가 귀찬코 뒤숭숭하고 쓸쓸해지고 비관하는사람이 잇습니다 물론이런사람들은 보통건강한상태에 잇는사람들은 아니고 신경쇠약증이 대단한분들일것입니다

이런분들은 어지럼증이 나고 귀가 웅웅 울고 긔운이 우울하고 번뇌을부리게되는일이 만히잇습니다

그외에도 월경때나 혹은임신중에 이런증세가 흔히 이러나기쉽습니다 만은 엇재든 봄이라는시절이 여러가지 범죄자를만히 맨드러놋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제 그병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겟습니다.

특히 어린애에잇서서는 홍역 성홍열 지푸테리아 페렴 편도선념 눈병이고 어른에게 따르는 병은 급성관절류-마치스 뇌일혈 치질등인데 먼저 홍역에 대해서 말씀하겟습니다

=홍역=

홍역이 돌엇다는 것을 알면 환자 겨레 갓가히가지말고 물론 외출을 식히지말것을 말씀해둡니다 이병은 언제든지 한번은 알코야마는것입으로 어린애가 과히 쇠약하지안키든 치르고나게하는것이 조흡니다 또 주의하실것은 페렴이나 중이염 급성림파선렴가튼 다른병이 안나도록 하실것입니다 그러나 할수업시 이런병에 걸니게하는경우엔 될수잇는데까지 몸을 덥게하고 [illegible] 사용해서 항상호흡긔에 습긔가들게하서야합니다

=지푸데리=

이병도 역시 봄철을 따라서 잘생기는병인데 미리 예방주사를마치십시요 물론성홍열 표창병등이 발생하지안토록할것은 말할것도업고 사람만흔곳에서 도라왓슬때는 반드시 손을씻고 양주질을 하게하서야할것입니다.

=뇌일혈=

어른들에게 잘발여드는 병은 뇌일혈입니다 이병은 봄이나가을철에 잘생기는병으로 판명되엿습니다

그러나 심신에 피곤을 느끼지안토록할것과 금주금연할것과 자극제를 금할것과 채식을 취할것과 항상 휴양에 주의할것과 대변을 잘보도록 할것등을 닛지안는다면 생기지안습니다.

=그외의병=

뇌빈혈도 다른병과갓치 주의하야 할것은 말슴할것업고 그박게 이른봄부터 느진봄 까지 줄창 성행되는 페결핵은 본래부터 사람의 몸에 잠재해잇든것이 발동되는것임니다. 이런병은 근처 임시일시로 치료하거보다 근본에 노력할것은 물론이고 가정료법으로서 자극제를 주의하고 항상 채식을 잡수시도록 하십시요

우리차지

내동생은 이번에 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나는 이학년에서 삼학년으로 올라가지만 언니는 벌서 졸업을하게 되어 서울로 가게되엇서요. 서울가서 고등보통학교를 오년동안 다닐 작정 이랍니다.

(글쓴사람 최수익)

톱을드러 신랑신부축복

영국푸리마스라는곳에사는 목수한분이 지난번에 결혼을햇섯지요. 신분과 직업의여하를 물론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십히 식이끗나면 대개친구들이 쏫을뿌린다, 색조희를 뿌린다, 『떼이프』를 뿌려주어 얼어맨다하지안켓습니까. 그런데 이혼인에는 그의친구들이 그런날들이하는 상례대로한것이아니라 큼직한 톱들을들고나서서 휘두르면서 신랑신부를 축복했다합니다 그것도 그럴듯한것이 다들 가튼직업인 목수였스니까요

月波先生 【八】

宋影 作 / 金熊超 畵

한참만에 선생은 주먹으로마루바닥을 쾅하고첫다

『올타 되엿다』

혼자서 중얼거리고 혼자서 우섯다

선생은 부리낫케 일어나서안방으로들어가다 숙희는 웃목에 안저서 바누질을하고잇다

선생은 아루목벽에노힌 벼루집 압헤가 안저서 붓과 조희를들엇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원측을 어든 까닭이다.

『너도 학예회하니? 나도 학예회를 해보겟다』

이것이 선생이 어든 묘책이다.

비록 아이들은 적으나 잘하고 못하는것은 선생의 손에 달렷다.

이번 학예회를 통해서 자긔의 실력을 나타내보히고가 십헛다.

『내가 비록 늙엇스나 뜨거운

大事)을 하자—

이것은 월파선생이 평소부터 생각해논 연극이엿다

춘추때의 공자가 주인공으로써 초광접여(楚狂接輿)와 장저(長沮)와 걸닉(桀溺)를맛나고 조소를밧고 진채지간(陳蔡之間)에서 사흘을 굶고 한이약이를 얼거논 연극이다

실상은 얼거보려고 작정한연극의 줄거리다

선생은 스스로 자긔의 심경을 공자에다비하고서 때못맛난 봉(鳳)으로 자처하고잇섯든것이다

그리고글낭독이나몃자지어넛자

이것만은 학교보다는 단연히 우세다 창납경읽듯이 떠리주서 대기만하는 학교의조선어낭독보다는 얼마나 운률적이랴?

그리고 학교의 리과 대신에 측량법이나 연설하게하자

이만하면 그럭저럭 하로밤구경거리는 넉넉하다 ㅅ선생은 신이나서 대강대강 이가튼 게

의긔는 젊엇다 한문이외의 상당한 신학문도 안다.』

그야말로 천하를 서로 쪼개는 최후의 판가리싸홈이다.

그리고 선생은 곧방으로서 학예회를 해다는 호시(嘆笑)를 짓고질훈 생각도 낫다.

『그거참 월파선생은 별어른이야 엇저면 학교보다도 학예회를 더 재미엿게할까?』

하는 칭찬하는 소리가 벌서부터 귀ㅅ가에서 쟁쟁거린다.

노래—

먼저 합창으로 날마다 조회석상에서 부르는『쇠송아가』를 하자.

다음으로 홍용이가 목소리가조흐니 독창을식히자

독창할노래는 신식노래보다 옛날노래를식혀서 옛날 조선에도 노래가 잇섯다는것을 겸처서알녀주자 학교보다는 더 조혼특색이잇다는것을 모두에게 선전을하자.

그러면 시조삼장(時調三章)이나 [illegible] 을하고 또,

율곡선생의 석담구곡가(石潭九曲歌)—

그리고 추병길의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엥히 김병욱은 정성의 맛이잇서 점 음하니 질어치우자

그다음에는 연극을 두가지만 하자

한가지는 불운의대성(不遇의

『애들아 모두 이리 건너운』을 적엇다

『네—』

아이들이 원 영문어지도몰나게 우루루편방으로건너와다

숙희는 바지고리를 들고 윗창 퇴ㅅ마루로 쫏츠후 나갓다

『애들아 너어들 [illegible] 학교에자보니까 [illegible]』

『아노』

아이들은 억개로 거짓말듯는 [illegible]

『퉤, 뚝 [illegible] 학교에이를 [illegible]』

[illegible]

가 『네 하고십어요』

월파선생은 [illegible] 이들도 모다 [illegible]

『그래 네말이 [illegible] 이란 축을때축드레도 [illegible] 로말을해야저 자ㅡ 그래 [illegible] 이다 너이들도 그럼 [illegible] 가 하고십지』

『그럼요』

『그럼말이다 우리시중의숙도 며날뒤면은 학예회를 [illegible]』

『네,』

아이들은 [illegible] 질들한다

상남이는

『아니 누가 [illegible]』

또 아이들은 우섯다 [illegible] 도우엇다

家庭醫學

소변이붉어

問 삼구세미혼남자인데 신체도그다지약한편은 안인데 구월전부터 소변이붉고 붉은빗치 남니다 시시로말근때가만습니다 선생님 그러니붉은때가만습니다 무슨병이며 치료방법을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咸北金東生)

答 감금환자되시는분으로써소변빗이붉다고긴불을바다 즉절그런소변을 바다보면 그러치안할때가만습니다 아마 당신도 신체에 이상이업는점으로 생각하면 역시생리적이겟지요 그러나 정말로 붉은소변을 조중한다하면 신장결핵(腎臟結核)을 의심할것이고로사실노 붉은빗이지를 — 검사해게하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戲曲 春香傳 (六)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香丹 등을 대일데가 업스면 죄 업는 백성을 죽이겟소。그리고 내가 어듸 기생입니까?

月梅 에그 그저 아모 일이나 업섯스면 조치마는─

(이때 金番首와朴番首 산수털 벙거지를 쓰고 멩호나 잡을드시 중중거려 들어온다)

朴番首 춘향아 나오너라。

金番首 이년 빨리 나오너라。그물 코가 삼천이면 걸릴날이 잇느니라。

香丹 (놀내)에그머니!

月梅 (능청스럽게)김번수 오섯나? 박번수 왓는가? 자네들이 내집을 차자오기 꿈밧게 일이로다。그래 금번에 상경하야 노록이나 아니낫나?

朴番首 사스도께서 너의딸춘향이더러 수청거행안한다고 재촉이 대단하다。이리 내려보내라。이년이리와!

(金番首와朴番首 달겨드러 春香이를 못그러한다)

月梅 에그 이일을 어찌나? (절절매더니 房으로 올르루 들어간다)

金番首 이년한테 사정두는 놈은 너도 개아들이오 나도 개아들이니라。

朴番首 누가 사정을 돈당 망할년! 양반서방하엿다고 태스가라만 빼고안젓는년!

月梅 (房에서 엽전을 두냥가지고 나오더니 슴한냥식 朴番首와金番首의손에 잡혀준다)여보게들! 이것 약소하지마는 약주나 한잔식 바더 자시게。

金番首 실혀요! 안바더요!

月梅 그래도 사람의 자미가 그려치 안느니라。

朴番首 그럿게 밧다가는 사스도한테 곤장마저요。안바더요。

月梅 그만 밧게。우리가 다아는장단 안인가?

金番首 (朴番首를쿡찌르며)바드라니까 그만 밧지。

朴番首 허! 이래서는 안될텐데 (못니기는드시。돈을밧고 春香이를끌려준다)

月梅 춘향이 쟁쟁이라고 사람이만혼데 자네두분만잇네그려 향단아 술상 가저오너라 (朴番首金番首에게)여보게들 올녀오게。안주는 업더마는 술이나 자시고 가게。

(金番首朴番首서로 꾹꾹찌르더니 슬며房으로들어간다)

金番首 (房에안저서 마루에 잇는春香이더러)동생방으로 드러오게。병중에 축상하겟다。

朴番首 참 춘향이 병이 어떳소 아주머니?

月梅 에그 내가 기가매혀죽겟네。다른병 가트면 모르지마는 고놈의 상사병이라는것은 비러먹게 약도 업더구나。

(이때香丹이 술床을가지고 房으로 드려간다)자 술 좀자시게。

金番首 에그 웬 안주가 이럿케거요。

金番首 아즈머니 인제 걱정마오。사스도가 춘향이를 수청거행 식히지 아니한다고 재촉이 대단하지마는 우리 둘이 들어서면 춘향이 하나쯤 못 빼어낼리업소。

朴番首 참 우리끼리 말이지마는 사스도께서 춘향이가 일색이란 말을듯고 한번 불량으로 서울을 떠날적부터 어떠케 별럿는지 사스도님 압니빨이 다 버드러젓다데。

月梅 아니 그분이 어떠케 춘향이를 알까? 울지 말마혼 너이들이 고해바친거지?

金番首 아니 그색조와하는 변사스도가 남원일색이 누구누구라는것을 웨모르겟소? 그분이 이번에 여기 온것은 남원이 색향인줄을 알고 한바탕 놀구러 불량으로 자청해서 왓대요。참판댁 조혼 양반이지

(이러케 이야기하면서 金番首 朴番首는 月梅가 권하는술을

香丹 (房에서 먼는다)

香丹 (거정스럽드시 마루에잇는 春香에게)아씨 아마 동헌에서는 아씨 현신시키라는 말성이 크게 낫나봅니다。

春香 향단아 장안에 새옷 내오너라。

香丹 아니 아씨? 웨 어려십니까? 동헌으로 들어가시랴오?

春香 아니다。나는 어듸 몸을 피하여야 겟다。빨리 향단아 옷을 내오너라。

(香丹이房으로들어가서 새옷을 내온다。春香이 그옷을 가려입는다。그러는동안에 또使令二名 숨어서登場한다)

香丹 (깜작놀내) 아씨 재촉령이 또옵니다。

使令 (우르루 마루로 뛰어올라 春香을붓든다)

使令 이년 라장맛고 당앙! 어듸로 도망을 하라느냐?

(使令各二春香의左右팔을겨드랑에 끼다。春香이악을쓰는다。香丹이놀내 소리친다。月梅가 房에서 뛰어나올때에는 使令은 春香을 끄을고 벌서 사라지고 마당으로 내닷는다)

月梅 (房문을드러다보고)에그 이일을 어찌하나? 그만 그놈들이 내딸을 비호가리 차고 갓네……(허둥지둥한다)

(金番首와 朴番首 잔뜩 취하야 房에서나온다)

朴番首 개! 하늘이 도꽉만한 걸……

月梅 (朴番首,金番首를 두들기며)이망할자식들아! 너이놈들한테 헛술 멕엿고나。이일을어째느냐?

金番首 걱정마오 아즈머니! 제ㅣ기랄! 사스도가 뭐야? 우리둘만 나서면 깟다업소。그까짓 춘향이 하나쯤이야 대번에 빼어내지……

朴番首 암빼내고말고……

月梅 에키 망할자식들 이놈를 미덧다가는 아모것도 안되겟다。향단아 우리상문압헤 가보자。

香丹 네。

(月梅와香丹이 急히 뛰어나간다。金番首 朴番首서로안스고 마루에잡버저서 코를곤다)

學藝

朝鮮歷史學의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批判 (三)

洪起文

丹齋에 依하건댄 中國人들은 妄自尊大하는 頑惡한 傳統을가저 朝鮮에 對한 文字를 만히 歪曲하고 또만히 改削하얏스며 심지어는 朝鮮에 잇는 碑銘까子등까지 업새고 고치엇다고 한다。그것이 어느

◇…程度의 事實인지도 모른다。또다시 丹齋로부터 듯건댄 金富軾以下 歷代史家는 朝鮮의 中華化로써 無上의 榮譽를 삼아서 오즉 中國의 文字만을 尊重하고 그것의 引用만을 일삼을뿐 아니라 한거름 나아가서는 中國의風俗과 中國의習慣으로서 朝鮮의모든것을 變裝시키어 버리엇다고 한다。그역시 어느程度의 事實일는지도모른다。아니 오늘날도 似而非科學의 그럴싸한論據로써 侮蔑의感情을 담아서 얼마든지 歪曲하고 改削할수잇지 안한가? 그러면 이番에는 科學이란 미끼에 속아서 또 만흔사람이 附和雷同하지 말란 법이 잇는가? 勿論 여긔서 科學이라고 한것은 自稱 科學의 觀念論的 歷史觀을 指摘하는것이다。혜여나 眞正한 科學그것과混同할까 아조 注意하야 둔다 何如튼 여긔 對하야 丹齋는 어떠한 態度를 가지엇든가? 卽 上記와가티 混亂되는 朝鮮史에 對하야

◇…丹齋는 어떠케 바루 잡으려고 努力하얏든가? 自己 自身도 觀念的 歷史家에 屬하는 그로서는 오죽 先世의 光輝를 빗내고 先民의 威勢를 들어나어 祖上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그들의 子孫됨을 讚定케하는 歷史로써 對抗하는以外 더다른 方法이 업섯다。그러므로 저편에서 키여노흔 事實는 될수잇는대로 抹殺치 못하야 걱정이요 저편에서 즐이어노흔 事實은 될수잇는대로 誇張치 못하야서 근심이다。本來 丹齋는 一八九四年以後 朝鮮社會의 쏴트기시작한 政治的 意識아래 朝鮮歷史로 걸어갓고 一九一〇年朝鮮의 政治的 變動과 함께 더한層 朝鮮歷史에對한 執着을 굿세게 한 분이다。그러한 분이엇든만큼 歷史가科學의 對象으로보다도 排他自尊의 연장으로 더 놉게 評價되기 쉬웟든것이다。그러케 생각해 가다가 보니 그에게잇서서는 觀念論的歷史觀이 排他自尊의

◇…歷史를 産出시키어준 것이 아니요 도리어 排他自尊의 强烈한感情이 終生 觀念論的歷史觀으로부터 벗어나지못하게하얏다고도 推察되다。最近에 이르러 政治思潮에 잇서서는 그가 어떠한 變動을 이리키엇는지 몰라도 곳까지 歷史에 잇서서만은 濃厚한 國粹精神의 發散을 犯치못하고 말앗다。

나의 붓은 지금 脫線의 이야기로 옮기고 잇지 안한가? 도로 도리켜 本題를 차저 가자。

이편이나 저편이나 比較的 文獻이 完備한 近世에 잇서서는 用武의 餘地가 적음으로 恒常 記錄이 不備한 古代로 올라가서 混戰의 터를 찻게 된다。거긔서는 다각각 我田引水의 멧마듸引證을 끌어오다옴에 또다각각 天馬行空의 한바탕想像을부치면 各自 自己目的에 符合되도록 歷史의 한 페지를 흥흥히 創作할수잇는까닭이다。小丑華人의 자랑거리든 箕子朝鮮은 申丹齋의

◇…引證아래 抹殺되고(朝鮮史中 上古文化史第三篇第二章參照) 現在 一派의學者로부터 拒否되는 檀君朝鮮은 申丹齋의 引證아래 三京五部의 巨大한版圖를가진 大國으로 建設되얏다。(上記第一篇第一章參照) 이러한 例는 一一이 얼마든지 잇것지만은 구태어 一一히 들것도 업는일이요 오즉 丹齋의 排他自尊하는 熱度를 보이기 爲하야 끄트로 淵蓋蘇文에 對한 그의論斷을 紹介해둔다 丹齋의 말을 드르면 唐人張悅의 記錄으로 虬髯客의事實이傳하는데 그이약이의 骨子는 扶餘國人 虬髯客이 中國에 건너가서 李靖과 사괴고 그妻紅拂妓와 男妹를 맷고 中國의帝王을 꿈꾸다가 李世民(唐太宗)을 본뒤 고만 扶餘로 돌아와서 扶餘王이 되얏다는것이라고 한다。그는 이러한 이야기의 뒤를 이어 엇던先輩도 扶餘는 卽 高句麗、虬髯客요 卽淵蓋蘇文이라고 하얏지만은 蓋蘇文이 中國征代의

◇…壯志를 품고그와가티敵情偵察의길을 다니엇슬것은 事實이가한다고 論斷하얏다(上記第十篇第一章參照) 또 丹齋의 말로 드르면 巷間에 돌아다니는 小說로 갓쉰동傳이라는것이 잇는데 그內容은 연국혜라는 宰相이 갓쉰에 아들을 나하서『갓쉰동』이로 이름을짓고 귀엽게 키우는中 道士의말을 듯고 災厄을 免케하기爲하야 멀리멀리 내쪼차더니 갓쉰동이가달딸국으로 가서 그王子에게죽게되는것을 公主의 救援으로 간신히 살아난뒤 故國으로돌아와서는 다음날 달딸국을征服하얏다는 것이라고한다。丹齋는 이 이약이의 뒤를이어 蓋蘇文『간』蘇文을『쉰』으로解釋하는同時 연국혜는 蓋蘇文의 아버지 太祚로 달딸국은 唐나라로 대어 그역시淵蓋蘇文의 事蹟이라고 斷定하얏다(上同) 그는한거름 나아가 虬髯客傳과 갓쉰동傳을 比較한 結果

◇…虬髯客傳을 버리고 갓쉰동傳을 取하기로하얏다。그래서 淵蓋蘇文의 西遊記를 버젓한 歷史로 꾸미어노핫다。(上同)

勿論 小說 傳說 모든데 史料로 取할것이 잇다。小說、傳說等이라고 一笑해 버릴것은 아니다。그러나 그것도 類萬不同이지 無條件、갓쉰동傳을가지고 곳 淵蓋蘇文의 列傳처럼 評價할수야 잇는가? 그의 一生을 宏壯히 꾸미어노흐려는 先入見 아니든들 丹齋로서 설마이러케 拙劣하고 이러케孟浪한 地境에까지야 떨어젓슬나고? 丹齋는 究竟 朝鮮歷史를 헙

訂正 第二段第八行以下『外我』는 全部『非我』로 또第五段十一行『活潑健快한 同時多分感性』은『暢達健快한 同時多分感情』으로訂正함

時調 書帖 (其十一)

울며 잡은소매 떨치고 가지마소
草原長堤에 해다저 저물엇다。
客窓에 殘燈을도도고 안저보면 알리랑

(李 明 漢)

漢詩

春雪─押風

選外佳作之四

桐崗 考選

新興郡邑內三區 鄭留亭

江雲釀雪雪兼風·
同着疎梅難辨解·
寒令奪春還用功·
均沾焦麥可占豐·
馬蹄黏却和塵浥·
若使韶光消霽同·
鴻瓜留殘向日融·
高堂千歲壽無窮·

朝鮮文壇의 現代的諸相 ─藝術的認識의特殊性─ ❷

韓曉

그러면 이러한 辯證性的統一의 過程에잇서서 果然藝術的認識의 特殊性이란무엇이며 그리고 藝術的方法과 科學的方法과의사이에는 如何한 差異가잇스며 또한 如何한 聯關關係가잇는가! 이것에對한 正確한究明을가지는데잇서서만 우리는 一切의 藝術理論을 正當히 理解할수잇는 基本的인 知識을어들수가잇는것이다 로-젠타-리는 가티말하야다 藝術的認識과 科學的認識과의 根本的인 相違는 主로 그普遍化의 性質과『타입』과의 相違라고 規定하고다음과 가티말하얏다

『學者는 藝術家와 한가지로客觀的現實의 諸現象을 對象으로한다 그리고 藝術家와가티 이러한 現象을 普遍化하는것以外의 아무것도아니다 그러나 普遍化의 性質이며 이普遍化가만들어내는 形式도 藝術家의境遇와 全혀다르다 學者의 境遇의 普遍化의 結果와 形式은 論理的範疇、槪念、科學的定式이다。藝術家의 境遇에는─거기에 本質的典型的인것이 顯現되는바의 現象의 形象的 感覺的 反映이다』

이러한 로-젠타-리의 見解는 勿論 藝術的 方法과 科學的 方法과를 絶對的으로 區分하는 主觀的 觀念論의 美의自律性과는 全혀 無緣한것이다。그것은 兩者를 共히 現實의本質을 究明하고 客觀的 眞理를 反映하는 同一한 表現手段이라고 規定한 헤-겔의 見解를 具體化한것이다。

그럼으로 科學과 藝術과의 差는 그의 認識과 表現의 形式과의 彼此의 特殊性의 差異다。말하자면

客觀的 眞理를 表現하는 手段으로서 現象의 一般的인것과 個別的인것과의 統一을 科學은 感情的 個別을 一般的인 論理的 規定에 依하야 再現하고 藝術은 一般的인것을 感情的(表現的)個體로서 表現하는것이다。

이러한 原則的 見解를 忘却하고 藝術家의 現實의 把握方法은 個性的인 獨特한 定式이며 그의 表狀은 人間型의 抽象的 形象이라고 獨斷하는 白鐵氏等의 無謀한 人間描寫論은 實로 稚氣에찬 囈言이아니면아니 될것이다。

藝術家가 現實의 把握에 잇서서 人間을 探究하는것은 그 人間의 描寫를 通하여서만 藝術的 形象을 創造할수 잇다는 見解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客觀的 眞實의 描寫를 通하야서 그 人間의 典型을 表現하기爲한 認識의 過程이며 또한 個性의 偶然性의 속에서 必然的인 本質을 차즈려는 正確한 方途인것이다。卽 藝術은 客觀的 眞理를 보다 正確히 表現하기 爲하야 거기에 가장 適合한 事情과 그리고 그事情에 잇서서의 個人의 典型性을 찻는것이다。

그럼으로 藝術의 方法의 特殊性은 藝術家를 客觀的 現實에

密接히 接近시켜서 그의 藝術的 認識의 우에서의 本質的인 人間思惟의 積極的 役割을 保證하는것이다。藝術家의 創作實踐의 우에 賦與되는바 客觀的 現實의 影響과 그의 作用은 科學者의 實驗的 方程式이며 論理學的 範疇에 反映되는 影響과 作用보다는 체신 直接的인것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歷史的 發展의 諸傾向과 그의 合法則性과의 結合에잇서서 보다 直接的으로 現實의 階級的 關係와 作家自身의 階級的黨派的立場을 明確히 反映하는것이다 그럼으로 階級社會에잇서서의 藝術的現實은 모름즉이 階級抗爭의 一形態이다 今日의社會에잇서서 文學의 階級性을無視하는 荒唐無稽한 愚擧는 確實히 狂信者의 頭腦의속에서만 明滅되는 夢想인것이다

創造는 現實에對한 藝術家의 客觀的認識의 具體的形象이다그리하야 그것은 認識論的根源에 잇서 一定한 階級의 이데올로기-의 一形態로서 그의日常의利害과 淸算되는 階級的性格을表象하는것이다。

그러나 白鐵氏等에依한 一部 觀念論的見解는 認識의 客觀的規定性을

沒却하고 人間的活動의脫 人間自體의 探求를 創造의 出發點으로 抽象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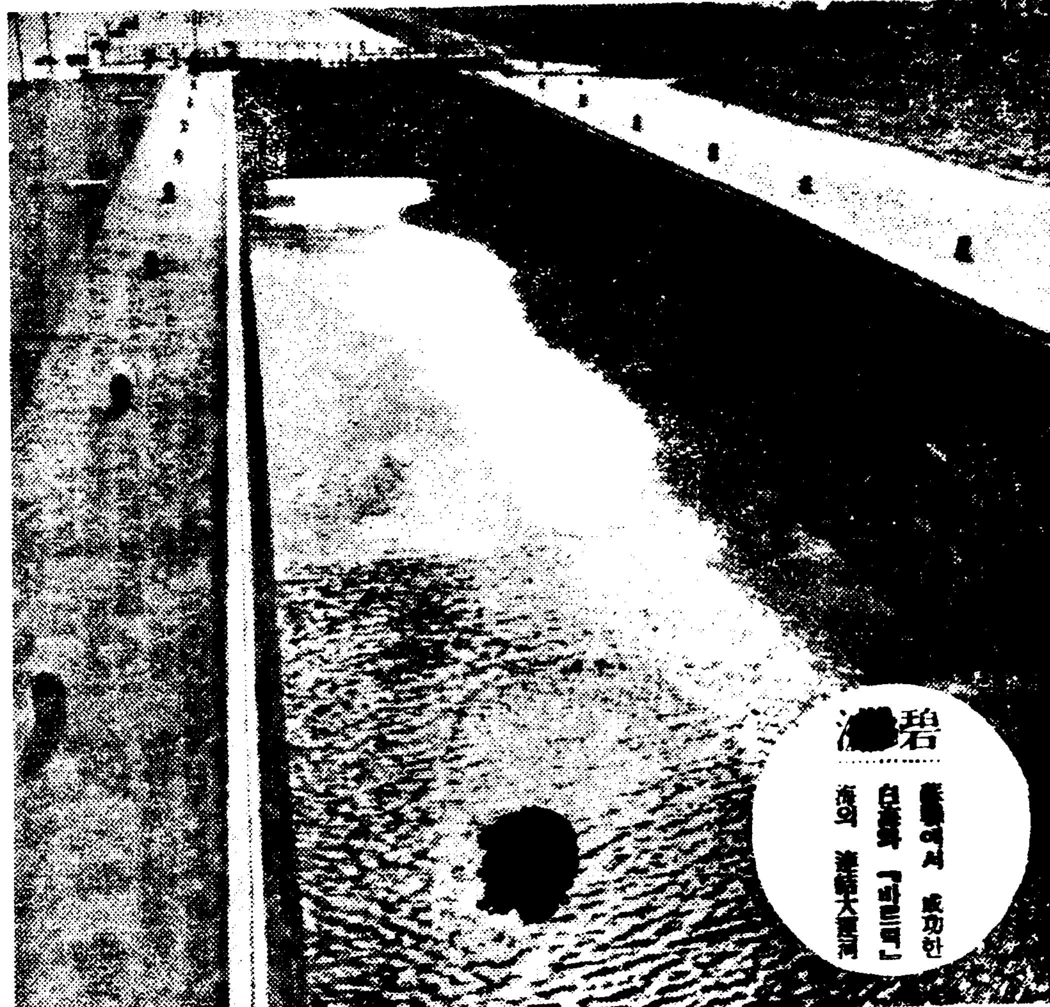
客觀的現實을 否定하는 그들에게잇서서 眞理는 人間의思惟方法에잇서서 便宜하게 規定되는한개經驗에 不過한것이다。그들에게는 客觀的眞理가 업는것과가티 또한 絶對的眞理도認定되지안는다 그러고 眞理는人間以外에 存在하는 客觀的現實에 對한 言語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主觀的인 人間的經驗이며 人間的要求의 所產인것이다 卽 그들에게잇서서 客觀的世界現實眞理等은 모조리 어떤人間的目的의達成을爲한 한개의手段以外의 아무것도아닌것이다 그러하야때로는 詭辯과 意志가同一하게되고 論理와倫理가 混同되는怪態를演出케되는것이다

人間型의 探求! 오직그것만이 그들의 眞理及藝術을 創造하는 最高의 方法인것이다 그럼으로 그들에게잇서서는 人間探求의苦惱以外의 아무런創作方法의 樹立도心要하지안는것이다

『北行列車』

趙靈出

人造絹 문의 가려
하-얀 어름꼿이 피는 瑠璃窓─
陸路二千里를 한밤에 주름잡고
北行하는 『히까리』 어름꼿은 작고작고 茂盛해지다
鄕愁에 眞操를 빼앗긴 愛戀─ 나의손꼿이
어름ㅅ꼿을 떡고굼는 音響에
까아만 밤의吸盤은 흰빛을 밀치고와보다
나라도업는 집씨의 子孫들이
깍고점이는 沙果의 빨간 皮膚─
情熱을 벗기고 차운 愁衷를씹는 나의 祖國이여
쫏기는 마음의安息이다 疲困은 열닭을 나려덥고
暴은 港口의行列 꿈들의 陳列
呼吸의高低、부플어올으는 乳房은
溜水처럼 소란한音響을 헤치며 沈默은 층층 괴여 들다
愛戀의 물꼿을 뒤기고
그女人은 하이한 목도리를쓰고 도라눕다
밤 밤의吸盤은 車窓에서
보─얀 어름꼿을뜻고 밋글어저 가나니
어름ㅅ꼿은 나븨도업시 피여나고
나의靑春은 戀愛도업시 健康해지다



碧瀾渡 [illegible]에서 成功한 白[illegible]의「마트릭」 海의 [illegible]大畫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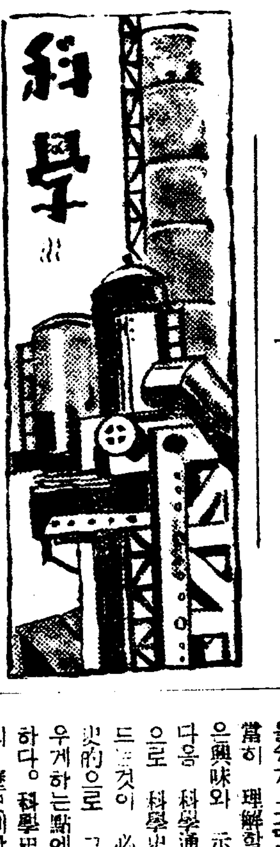
漢詩募集

題 春雲 ─押 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科學



現代文明과 電燈의發達 (五)

東電技術部 兪完昌

(라) 溫度와 波長과의 關係

우리는 다음과갓흔 極히簡單한 散式으로 溫度와 波長과의 關係를 容易히 測定할수잇슬것이다

$$X = \frac{2890}{T}$$

T는 絶對溫度 X는 最强『에네르기-』波長(mμ)

此式을引用하야 太陽의 最强波長을 計算하면 四四〇mμ 卽光線圈內에 잇슴을 알수가잇고『탕구스텐』電燈은 一二〇〇Mμ 卽赤外線임을 알수가잇슬것이다

上記數式을 吟味하면 X와T와는 反比例함을 알수가잇나니 卽溫度가 上昇하면 上昇할수록 그最强波長은 漸漸短縮하는것이다 그럼으로電燈纖條의 溫度가 놉하질수록 一一〇〇Mμ의 赤外線에 相當한 最大波長이 可視光線으로 接近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다음과가튼結論을 들수가잇슬것이다

卽『에되손』의 炭素纖條電球에서『탕구스텐』電球로 또다시 一步進하야 瓦斯入電球에 到達한 白熱電燈球進步의 過程에 結局光線의 溫度上昇의 歷史에 不過함이라고

十、電球의照明과視覺

(가)光度

光度의 單位를 우리는『燭』이라하나니 一九〇九年 英米佛三國이 協定採用한것이다 獨逸以外二三國을 除하고는 全世界에 採用되것인데 그定義는 다음과如한것이다

『氣壓七六〇MM時 每立方米에 對하야 八立의 水蒸氣를 含有한 空氣中에서 燃燒하는『하-코-트』氏 十燭光『펜탄』燈 光力의 十分之一로 定함』이라하엿다

(나) 光束

電球에서 放射하는 光의多寡를 意味하는것인데 이單位는『루-멘』이라 稱하는것이다。

다음에 瓦斯入電球에서 放射하는 光束을例示하면

一〇〇『왓트』(約百燭) 一三〇〇『루-멘』
六〇『왓트』(約六〇燭) 六七二『루-멘』
四〇『왓트』(約四〇燭) 四〇〇『루-멘』

(다) 照度

一定한面에 落射하는 光束의 多寡를 意味함이니 一定한 面에 落射하는 光束의 每平方米-『루-멘』을照度의 單位로 定하고 이를『룩스』라稱하는것이다

大體 人間의 肉眼은 人類創生以來 五十萬年間 大部分이 自然光 卽 太陽光에 習慣되엿슴에 不拘하고 晴天正午太陽의直射光線은(約十萬룩스)와 木陰(一萬룩스)와 住宅內(約一千『룩스』와 百『왓트』電燈下約三尺(約百룩스)과 滿月의 夜景外(約〇、二룩스)와 此等 極端의 明暗을 眼의 虹彩作用과 視神經의 巧妙한 機能으로서 能히 判見하는것이니 如何한 高價의 寫眞機라도 精巧한 肉眼의 機能은 따를수업슬것이다。우리는 明暗의 差異가 甚할時는 眩惑 혹은 反射眩輝 直接眩輝等으로 視覺을 害하야 不少한것이다。

(一) 光線의 輝度가 非常히 클때(直接眩輝)

(二) 肉眼에 侵入하는 光의 量이 非常히 클때 (直接眩輝及反射眩輝)

(三) 鏡面 或은 金屬磨面에서 反射하는 光線이 肉眼에 侵入할時(反射眩輝)

(四) 暗黑에 光源이 잇슬때(直接眩輝)

(五) 夜間自動車의 反射燈光(直接眩輝)

(六) 光源을 보는 時間이 長大할時 (直接眩輝)

─科學隨筆─ 閑話數題 ㊀

鄭槿陽

그래 科學을 알기쉽게하는手段으로 文學的手法이 쓰여지고잇다 그러나 單只 讀者의 好奇心만을 도려워한 空虛한美文을섯거 이로因하야 事實을正當히 傳達치못하게되는等事는 가장삼가야하겟다。

또다시 自身이 이러타할科學者로서의 經驗도업는 職業的인 通俗科學的解說은 往往히 도려혀 科學의本質을 그릇表現하는수도만타。科學者가 自己의體驗에依하야 어든 知識을 아무런裝飾도업시 가장平易한 말로敍述하면 讀者는 어려운것을쉽게 그리고 어느程度까지正當히 理解할수잇슬것이요 만은興味와 示唆을바들것이겟다

다음 科學通俗化의 第二手段으로 科學史에 親하도록 만드는것이 必要하다 科學을 歷史的으로 그 發展의자최를 배우게하는點에서 大端히 必要하다。科學史를 單純히 科學의 歷史에만 끄치지말고 그時代 그時代의 社會情勢와서로關聯식혀 저야만하겟다。

이가티 생각하야오나 科學의 通俗化라는일도 맥업시 餘暇事라고만생각할수는업다。이것이 거이無批判的인 大衆을 相對로하느니만치 더욱深慮하는바 잇서야하겟다。

從來 생각하여오든것과가티 科學者는 부즐업시 그의象牙塔속에만 못처잇서서는 안이되겟다 時代는 그들에게 社會로 街頭로出馬하기를 命令하고잇다。科學의通俗化는 科學의神聖을冒瀆함도안이요 科學者의威嚴을 傷치도안는다。科學者들이여 더구나 科學的으로 가장幼稚한 우리社會의科學者들이여 그들을爲하야 하로밧비 街頭로進出하라 나는 이것을바라마지안는다。이것은 그러나 科學者들만의 罪는 안이다。우리朝鮮사람은 科學을모르는것을 羞恥로알지안이하고 別로 文化人으로서 가저야 할常識이라고 생각하지도안는다。文學을 말하는 所謂 文學靑年은 새고새엿서도 科學을말하는 科學靑年(?)은 도시볼수가업다。이것도 우리民衆의 科學水準이 얏은 큰原因의 하나이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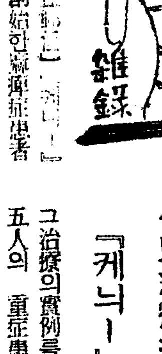
近者 朝鮮社會에서도 이點에 눈떠 科學團體의出現을 보게되것은 서로慶賀할일이다 그리고 朝鮮서 特히 民衆의啓蒙機關으로 가장重要한자리에 잇는 新聞이 이點에留意하야 科學欄等을新設하야 科學의通俗化에 힘쓰고잇슴은 가장贊明한策이라고생각한다。이欄의 健全한發達과 讀者의充分한利用으로 科學知識이 正當히普及되기를 바라마지안는다。

부질업는생각을 지리하게 적어왓다。참으로 해야할일은 泰山갓다。[illegible] 患者와씨름하고 [illegible]의時間이라고[illegible] 저녁때쯤이다。時間의不定과 天[illegible]의[illegible]으로 豫定대로 일은되지안이하고 焦燥한마음이 가득하다。[illegible] 나는 [illegible]맛을비로소 맛보앗다。[illegible] 時間을 주릴수밧게는 [illegible]가업섯다。그래도 아직 [illegible]흔생각도 업서지지안[illegible] 얼마나 내生活이 矛盾的인지모르겟다 親知와 마조안저 論爭도하고 雜談도하며 한잔술을나누우는 그氣分을 아주도[illegible]할수업다 아마 언제까지나 [illegible]할수업슬때까 모르겟다。그러나 버리기 아까운氣分의 하나일은 否定하고십지안타。

進步의 더뒤믈 痛嘆不歇을 나는悲觀하라고 하지안는다。自然科學은 그性質이 그進步가 느즌것이요、天才와도가튼 엄청난才質이 업서도 다만 努力과 불타는 研究心만가젓다면 어느程度의 成果는지울수잇슬것이겟기 때문이다。

나는學者라기보다 學問하는사람이되여지이다고빈다。學識이만은사람 그것을學者라하면 學問을조와하는사람 眞理를차즈라고 恒常애쓰는사람 그것은 學問하는사람이라고 불를수잇겟다 眞理를 차즈라고 애쓰는 사람으로써 平生을보내고십다 그리고 어떠한 境遇에잇든지 이것은可能하겟는故로 나의 이생각은妄想은 안이겟다。따라서 嘲笑의的도 될수업다。

밤은 점점깁허온다。죽은드시 작들은 研究室 한모퉁이에서반짝이는 市街의電燈불을 바라보며 요사히 나의心境을率直히적는다。時計는 다섯시를친다。따때이소리는 요란히 研究室업흘 스치고 고요히지나간다。孵卵器의電氣불이꺼진다。벳트로가자。좀 자보아야 되겟다──(了)



科學雜錄

小兒痲痺症은 『케늬-』療養所로

『시도니-』[illegible]『케늬-』姉(尼僧)의 創始한痲痺症患者의新療法은目下『오-스트라리아』에서 大評判이되여잇다 이것을들은『케늬-』姉의『퀸스랜드』治療院은 南亞弗利加에서멀니一萬二千哩의 바다를 건너온 大戰의負傷者로서 滿員이 되엿다

『케늬-』姉의 新療法은 當地의 醫學界에서 承認되고『로이얄、노-스、쇼아-』病院內에『에리자베스、케늬-』病棟을 小兒痲痺症治療때문에열기로되엿다

그治療의實例를 二三列擧하면 五人의 重症患者가『퀸스랜드』의 治療所에서 六個月의 施療를바든結果 經過가極히 良好하야 그中四人은 步行까지 할수잇섯고 或은 歸宅도하고 或은『시로니-』의 治療院에서 病後療養을 하기까지이르럿다 그中에서가장 重症이엿든十九歲의靑年은 六個月前까지는兩足과 片腕이 痲痺되여잇섯스나 지금은『딴스』를하기까지되고 팔도얼마안되여서 全快되리라고한다

空中의寵兒 『푸-·드·시엘』

佛蘭西의『아레리、미니에』의 考案한『宮中의虱』(『푸-·드·시엘』)라는 小型飛行機는 한손으로서 一本의槓桿을前後 左右로 움어서 자유로이 操縦이되는데 十七馬力의 發動機로 時速百粁를 날수가잇는 輕便한것임으로 지금 歐洲의 蒼空에서 大流行을 하고잇다

(寫眞은 佛蘭西製의『푸-·드·시엘』과 그考案者『아레리·미니에』氏)

黃昏 【26】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예감(豫感) (二)

「그만 이러나서요」

할멈은 또한번 재촉하였다.

「아이 곤해……」

경재는 그제야 눈을 떳다.

「무엇때문에 그러케 곤하서요」

「흥―」

하고 경재는 문욕하고 돌아누엇다가 푸시시 일어낫다. 밝은태양이 회항히 남폭미다지를 들부시고잇다. 경재는 엷을수업는 슬픈 흥분을 늣겻다.

「어젯밤엔 어듸가섯서요?」

「네?」

경재는 일부러 정신을 차린체하며 이러케 반문하엿다.

「데에 게신다구 허구……」

「누가?」

하고 경재는 시침을떼엇다.

「웨 이러서요 당신 호적이내주머니에 잇서요」

「호적이야 죄업는백성이조」

「말두 마세요 당신소행을 내가몰라서。 말한마듸안구 뒤로호박씨까는……」

「온 어진 갈수록 현산이구료 허나 그건 아주 인식착오(認識錯誤)입니다 녀자라면 천리만리 더라나는사람을……」

「흥 말마서요 여북해서 동경잇슬적부터 맑스껄들이 당신을 똑 잡행적으로만……」

「에로핀데든의 용사래겟습니까」

「어, 번사주의! 다시 그런말을하면 중시를 명령하는수밧게 업습니다」

하고 경재는 크게 우스며

「아이귀 인제 꿀지않흔소리그만하시다」

하고 말을 매즈려햇스나 현

「네 그런말슴이에요」

「그런말은 하지안는것이 조켓습니다. 그는 순정한사람입니다. 또 자기집회사에잇는 사람에게 흥분지어주면 되겟습니까」

「하지만 말못하는정분이잇은데 가 아니니까요」

「글세 그야구구겟든 정엽업는일 인줄을 알어두에야……」

하고 경재는 정색하엿다. 려순이와 자긔의 사이를 구지 부인하고 또 그를 어듸까지든지 옹호하랴말지 려순에게 갓가워진 자기를 깨달으며……

「정말어머니두 말말라서요」

「뭐이라구?」

경재는 사정이 날카로워젓다.

그러나 현옥은 그말대답은 하지안코

「아버지도 시골데자라 수진을 알엇드니 요새는 뒤를 죽 벗고 경재씨와 수작하는게 여간아니드라구요」

경재는 그만 아모 말도 더 하지 안코려 하엿다. 주위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다는것이 심히 불쾌하엿다.

「글세 저도 잘아는거지만 아무러한들 엄게 며사무원에게……」

하고 현옥은 말끗을 흐리버린다.

경재는 더욱 불쾌해젓다. 사장도 사상이지만 그게모다 자기들의말을 제추지을보래여가며 현옥에게 고자질한다는것은 그것이 불순한동기에서 나온것이니만치 사못 불유쾌한 일이잇다.

「그저께 회사에서 만낫슬때에 그리시지안엇서요」

「참 총명두하시외다。 해두 난 불총명해서 그런지 통 그런기억이 업는데……」

하고 경재는 그를보며 빙긋우섯다。 어젯밤일보다도 지굼의 대화보다도 악가꾼 꿈생각이나서 우섯든것이다。

「내가 다 알어요」

「뭘?」

「뭔 뭐예요。 그거지……」

「그거라니?」

「어듸 가섯는지 다알어요」

「글세 간데가 잇서야지요」

하고 경재는 아주 심상한체 한번 입맛을 다시고나서

「참、내가 어듸갓드라、어젯밤에? 오—」

「오、가 다 뭐애요。 바록거게 가섯지……」

현옥은 물론 똑똑히는 알지못햇지만 무엔지모르게 큰집을 걸고십헛다。 무엇보다 그는 경재를 깁히 사랑햇든것이다。

「오—참、어떤 남자의집에 갓섯군……」

「남자? ……웨 밤서부터 때밧바나서 그리시우?」

「아니 참 그사람부인도 맛나긴헷군」

「흥! 부인이요?」

「부인은 녀자에요」

「……누가 그걸몰라요」

「글세 그려타니까요」

「말춤 마서요。 다알어요。 저돌아래밤에잇든 개 집에 가시지안엇세요」

그도 절은이다。 절은이의예감이엇다。

「개 라니요?」

경재는 가슴이 뜨금하엿다。

「그럼 그럼남의이에요」

「온 천만에………」

劇藝術研究會 九回公演을 보고 (一)

朴英鎬

演 藝

小說과詩歌를 일커러서 作者와 讀者의藝術이라고 불나치면 演劇은 畢竟에 作者와 觀客과 俳優의藝術이라고 보암직하다. 彼此에 藝術되기는 一般이면서 小說과演劇과의世界는 이처럼그

文學 上軌道를 달니한다. 나는 이眞理를 이번 劇研第九回公演을 通하야 다시금反芻한 俳優을 經驗하엿다. 이것이 나로하여금 이稿를 草하게한 動機며 衝動이라할술입 짐너告白한다. 그前날—벌서五年前後—劇研이 呱呱의소리를 치고世上에 나오면서「土幕」「버드나무선洞里의風景」「檢察官」其他 幾多한 戲曲物을 上演하여오는 사이에 나는 한사람의 演劇同好者라는 不利한 條件 때문에 그들의 公演을歎稱하는 不幸한 사람이엇다. 그네들의 蹴丁되고 不自由스런 가난한生活의한구퉁이를 깍거내섯정, 그려라고 안하고는견딜수업는 그네들의 熱烈한

藝術 的衝動에서 게시나이가 지는 不具의舞臺化가 마치 내살을내손으로 꼬집는 그런形言할수업는 自己悲哀의 하나로서 보아젓든 까닭이다.

柳致眞氏의 입을빌면 우리의 事業은 明日에잇고 그成功도 그名譽도 明日에잇스려니하는 一縷의 까마득한 希望이 觀劇後의 萬端의 不快를 自制하면서 오늘에 이르럿다. 이것은決斷코 나만經驗한焦燥는 안일것이다. 모름직이 朝鮮의新劇樹立을 근심하는者치고는 共通되는 苦衷인同時에 또한 그럴수밧게업는 客觀的事實이다.

이것도 그當時에는 一抹의幻滅이엇다. 그러나 어든것은 오늘의成功이요 일흔것은 어제의 幻滅 이다.

×

나는感激하엿다 그들을 버리엇던 觀客은 그리고 그들이放棄하엿던 觀客은 彼此에講和의 域에 들어갓다. 이것은 決코觀客第一主義를 意味하는말은 안이다. 그네들이

恒用 말하기를 約束된觀客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五個星霜이나 惡戰苦鬪하여온 一般觀劇者에 對한 啓蒙的活動의 偉大한 흔적을 엿보앗슴이다. 다시말하면 極度로 俗物化한 「푸로세니암」을同하야 불텃방 불텃방하던 未組織의 觀衆을 어느程度까지 鑑賞水準을 높힌事實과 또한가지는 遠大한 文化的思想的主見과 十二分의 藝術的情熱을 가젓슴뿐으로 아즉技術上으로보건대는 全혀 言語道斷이것만 그들의 團體的意慾이 暴白을 公言해서 제觀客의 비위를 살피고 生活을 엇고 性格을 캐면서 觀客의 풍속으로 덜여들어간 事實, 이두가지의

偉大 한事實은 劇研이가진 오늘의 勝利的 役이 다.

壯觀의 말과가터 「民衆의 言語는 詩人이 말할수잇는 그모든것을 表現할수잇는 詩을 가지고 잇다」는 말을 그들은 具體化하여서 것이 歡然하다. 머리말은 이만 줄이고 인제는 그들의舞臺檢討로 들어가자.

×

第一 풀주위의 原作 張起悌 譯

「勝者와 敗者」

그런데 나는 될수만 잇스면 戲曲「勝者와敗者」에 對한

所見 만은 避하고저 內省한다. 차라리 어둠의 힘과守錢奴에 일하면서 많은 戲曲을 相當히 고처하는 慾心이다. 그것은 이戲曲의上場으로 말미암아 演劇全體가 가지는 緊張과 興味를 除地에서 깨트려주엇음이로 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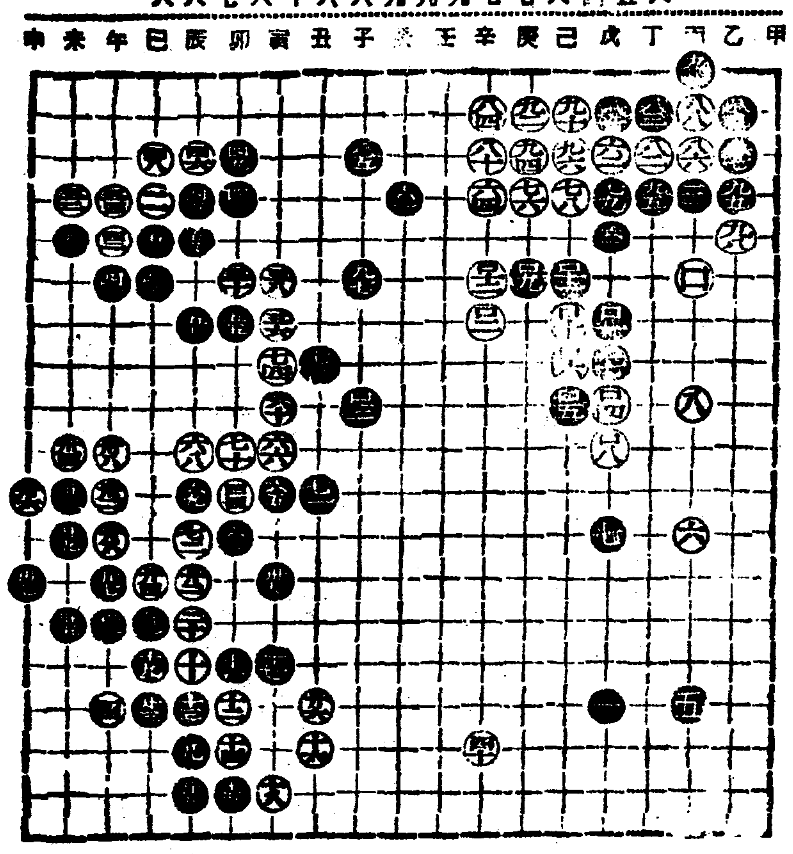
言下에 이戲曲은 疑心업는 敗北이다. 그失敗의原因은 于先導演者의 不注意를 비롯하여 譯者, 俳優全般이 그失敗의連帶責任을 지는데 잇겟지만은 그러나 根本的인主因은 이戲曲을 上演臺本으로 選擇한 그사람에게 잇다.

「一見, 讀物로서는 相當한 迫眞力이 늣겨지고 舞臺上, 舞臺魅力이 잇슬듯하지만 事實上, 舞臺化의 結果는 名實相反의作品이다. 戲曲全體가

開幕 해서부터 閉幕하기 까지한번도라 演技者로 하여금 全劇에 興味를 喚起케하지 안는 크라이시쓰와 葛藤이 一貫된 作者의 張局에 無關하고 斷續的인 作品을 살 用意周到하고 擴張한作品을 살니자면 그리만마한 茶飯事가 안이다.

더욱이 이戲曲은 韓國的戲曲의 엔포스피어로 얽어노흔 作品이다. 世俗人間과 詩人의 마음 이라고 하는 골드위데의 詩人의記錄이며 感情의 彫刻이다. 素材는 極히平凡하면서도 最後까지 觀客에게 興味를 緊張케한다는것이 이戲曲의定石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네와 가튼 演劇以外의 民族에게는 그完成이면 他日에잇는것이다. 어듸가 作品全體를 通하야 異常한緊張味는

豊富 하면서도 戲曲으로서의 一定한 劇的迫力이어서 觀客을 집혀서 觀客으로 하여금 주억을불러일만한 사뢰 實에 到達케안하는 作品이다.



圍碁對局譜 =7=

白 丁奎春
黑 [illegible]俱樂部

●九七 子의六
○九八 乙의五
●九九 乙의四
○一〇〇 丙의六
●一〇一 戊의七
○一〇二 辛의七
●一〇三 子의九
○一〇四 戊의九
●一〇五 己의九
○一〇六 己의八
●一〇七 戊의八
○一〇八 戊의十
●一〇九 庚의六
○一一〇 己의七
●一一一 己의六
○一一二 辛의六

◆觀戰者談

黑九七(子의六)은 保守實利上 丙의七에 堅守하야 白의左下邊屯聚者動靜을 候함이 無妨한感이 有하다

白□(丙의六)은 實利는 有하나 戊의一로 黑七五 七七 二目을 取得하야 完生을 圖한後 他方面의 進出에 後顧가 無케함이 何如할는지

黑□三(子의九)는 此際에 戊의九로 左下隅 黑을 完全連絡하면 白이 或 癸의七、八에 進出할지라도 黑은 叛奇一에 先手하면 活路自在할것이니 子의九로 中央連絡이 急치아니한듯하다

薔薇는왜붉어?

奴隸解放問題로 아메리카 大陸에는 南北戰爭이 일어난때다. 훈훈한 더운바람이 목장을 불어오면 고요한 목동의 노래만이 平和를 읊조리든미시십피河畔 어느조그만 村落에도 戰雲이 떠피어 버리엇다. 靑春도 戀愛도 다 南軍의 꿈이다. 아버지를 일코 오래비를 일코 지금 四寸오래비까지 戰場으로 보내는 벳도포도의 귀여운 따님. 피어오르는 薔薇를 보며 새삼스러이 차되찬運命을嘆息할뿐. 킹·뷔더監督, 마가렛트·사라반과 올라·코노리와 란돌프·스콧트三人의共演

發聲映畫小考 (三)

—特히올·토—키에關하야—

林 唯

映畫가 映畫藝術로서의 發展的主潮가 토—키의出現으로因하야 進行되고 또現今까지의 方向으로發展할것이라든지 停止되엿다고 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면 토—키의出現으로말미암아 果然 映畫藝術의 進步及發展이 停止되엿스며 制限되엿을가? 이問題야말노 興味잇는 問題라고 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면問題는 所謂百퍼—센트토—키라고 稱하는올토—키(全發聲映畫)가 果然 映畫藝術의 發展할 正統的길인지? 또그러고 그것이 映畫藝術의未來를 開拓할 正當한 航路의進出인지 안인지 그根本問題를考察하여야할것이다 萬若 正路일것가트면 取할이을 코 그러치안으면 버림을 밧겨서는안될것이다.

現今 朝鮮映畫界는 토—키의出現으로因하야 늣길만한 興奮에싸여잇는것이다 如上한現象이 미테잇는우리映畫人은 이問題를愼重히 取扱하고 考慮하지안으면안될것이다 筆者는上論한 토—키에關한問題를吟味하기爲하야 우에發聲映畫의發展過程을 槪括的으로나마言及하여왓다. 그發明當時부터 萬若活動寫眞이러 發展하고 또完成이 바다시 人間의肉聲과 相伴하는것으로發展過程을 밟버왓드면 어떠하엿슬가?하고 筆者는生覺하여보다 그러케 發展하여왓드면 두말할것업시 現今의映畫는 다른形態로 發展하엿슬것이다 또한그러케되엿드면 舞臺劇은그만 映畫에게 회여잡혀 只今쯤은 破滅狀態에서 허덕이엿슬는지도모른다

即 舞臺劇의形式—그것은台詞로써스지—筋을 進行하여가는 演劇은 大部分 映畫的影響을밧어슬것으로推測된다 그리고 그結果映畫는 發生當時부터「自然」을떠나 現今우리가 보는바와 가티「유의코난」 寫眞藝術노서別途의새로운發展을 보이지못하엿슬것이다. 다만 舞臺劇을 그대로 野外背景에서 描寫한것과가티 奇怪至極한 混血寫眞이되엿슬것은 불을보는바와가튼 非確한事實이라안이할수업다.

即換言하면 「움직이는美術」노서 發展成長하지못하고 東只「人形劇」과가튼 形態로서 舞臺劇의一延長으로서의 完成을 圖謀하엿슬것임에 틀님이업다 그러므로 토—키의發明이 無聲映畫의 發明보다 떠려저 實現되것은 映畫藝術의 發展上意外의 幸福이라고도할수잇다.

事實 缺陷은 發明으로生產하는상십다.

우리는 無聲映畫의 缺陷으로부터 映畫藝術을 獨立的形態에로 發展식혓다.

그리고이미 一個의形式이成立되以上 今日의범서 토—키는必要치안흔것이다

아니—必要치안흘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리혀 映畫가 발버온 길을 逆行식히는 것은 勿論이며 「움직이는美術」을 舞臺劇의一延長인「人形劇」的類型에로 끌녀고 하는것이라 아니할수업다 勿論現今의 發聲映畫는 發展過程에 잇서 아즉 未發成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人物의會話를主로 하고 도臺詞에依하야 內容을 運用할려고하는以上 必然的 舞臺劇의 形式과 그本質은一致하다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形式에서부터는 現制히 새로운 映畫藝術의發展 成長을 期待할수업는것이다.

佛映畫界三名物 (三)

『最後의億萬長者』監督 巴里克루네、크레—르

『最後의億萬長者』는 昨年度西洋映畫의 最高峰이엿다. 아니어떠케보면映畫가생긴뒤에 처음보는것이라고할수잇슬는지 몰을것이다. 첫재 그創作家的野心의놉히로서만도 이말을할수잇지마는 또한 그創作家的野心을 遂行하는데잇서서의 그手段을 그르치지아니하고서 그와가티 新鮮한 成果를 낫타낸것만으로도『億萬長者』는 空前의映畫이라고할수잇슬것이다.

萬若 좀더 싸쟁해말한다면 一般人類의눈은 아직도 이映畫을鑑賞할만치 訓鍊되지안헛다고 까지말하고십다.

그러나 이러한 映畫를 製作한 『크레—르』를 『퀀타지스트』(夢想家)라고하는것보담은 赤是創作家이라고해야할것이며 또한이世界에서 唯一한 映畫創作家이라고해야할것이라.

『巴里祭』는 누가보아도 조화할것이다. 果然그 『巴里祭』는巴里를 사랑하는 『크레—르』의어엽분祭文이다.

午前의熱情後에 바람에불리는落葉과가티 모혀서흩어가는 호리지는이쾌들의귀여운 七月十四日의 記念日의하로 佛蘭西의旺盛한 情熱과 여유한 애수의表情과 慕情의風景 이러한모든巴里祭의 詩를 비처내인『크레—르』를 사랑하는사람이라면 또한갓흔意味에서『億萬長者』의『크레—르』도 사랑하지아니치못할것이다.

모던타임스의 試寫會

警官出動群衆整理

찰리·차푸린氏의 新作토키『모던·타임스』는 벌서부터 問題를 이르어오든터로 去二月五日 뉴욕부로—드웨이·리보리劇場에서 試寫會가잇섯는데 座席券이적다 豫約되야 未曾有의大盛況을 이룬것은 勿論, 俳優人들의 拍手를 엇고자數千人의映畫팬과 구경하려오는銀幕의著名俳優를 보고자 모히는群衆으로 一大修羅場을 演出하야 警官까지 出動해가지고 그整理에 奔走하얏다 寫眞(上)은修羅場이로同劇場前(下)는 구경하려온著名俳優들 上段(左)無聲時代의名女優이레—네·릿치同(右)에드와·로빈슨의同夫人 下段(左)女流作家파니·하스트同(中)다그라스페아방스·쥬니아同(右)名단서치리로介孃

『愛와光』 로바드 텔라와 아이린, 단

성공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形式에서부터는 새로운 映畫藝術의 發展成長을 期待할수업는것이다.

海外映畫消息

英國篇

—W·B·F·N—

▲룰프·인스氏는『벨과아들』에 監督主演키로 되얏다. 助演俳優는 에리오트·메이손氏 레이몬드·로벨氏 로이·핀드레이氏等이다.

▲좀프벨·그란氏及 알렉스·부라이스氏 監督의『結婚그룹』은 撮影進行中이다. 페이·콤프톤孃, 바바라·그리인孃, 파트릭·놀스氏等이다

—A·T·P—

▲그레—시—필스孃主演 쪼—쿠—다—氏助演의『하트의퀸』이 完成되엿다

▲몬티·팡크스氏는 新聞 쪼지·풀비—氏主演인『十二椅子』를 製作한다

—밧스타 앤 바타—

▲짝, 페인氏와 그의오케스트라는『月光에向하야』에 出演한다. 監督은 쪼、박스타氏이다

—가렛트, 크레덴트—

▲알프렛드 싸이스라—氏는케—리—、그란트氏及 메이리—브라이안孃을 主演으로 해서『어네스트、불리스氏의 놀라운 搜査』를 製作中

—하바드、윌콕스—

▲레스리—、히스굿트氏는 名優을 監督한다。主演者는시드니、하바드氏다。

▲하바드、윌콕스氏는 올학男爵夫人의 小說을 映畫化하고잇는데 主演은 짝、부캬난氏다

—카피롤—

▲알、워커氏는 크라이브、부룩氏及 헬렌、뷘손孃을 主演으로『殿下의 寢衣』를監督中

▲A、J、크로—닌氏의 小說『별을 나려다본다』는 칼、그루네로부터 映畫化

—레되오、스타포드—

▲W、비라、한베리—氏는 오페렛트『사보이의舞踏會』를 映畫化하엿다 콘랏트、네이겔氏及 마라、라바孃이 主演

—프란코 론돈—

▲깃라、알파孃을 主演으로해서 리살、못체氏는 愛의交響樂을 製作中

佛蘭西篇

▲쥴피니―며 고랑、샬리스로산데나서오나노社는『어메지로 說明되는 名曲集』이라는題目아래 音樂短篇시리—즈를發表하얏다. 그것은 各篇 모다 新進의 詩人과 協力한것인데 고서쿠—스製作에 따하야는 映畫에도 現代가 기푸同時 音樂批評의 權威라고하는 에밀 뷔이엘모—스氏가 監督함을 하기로 되얏다. 發表된 各篇은 아래와갓다

『우리아히의世界』도뷔시曲 알프렛드 콜트出演

『搖籃』모리엘·포레曲 니논·봐란出演

『알루스의샘』지마놉스키曲짝·티보出演

『華美한왈스』쇼팡曲、스브라이로스키出演

『아베·마리아』슈버트曲、에리사베트·슈마出演

『들가운데젊은색시』프레데·몬프曲、크로칠드·사카로프及 마그다·라리아페로出演

『안단테와론드』웨벨曲、그레골피아티골스키出演

▼『結婚하는 젊은색시』는 佛蘭西最初의 天然色映畫인데 그色彩에對하야 조코나쁘고가 半半式 섯거어 잇다。그러나 錄音이 아조揭하고 監督의手法도 色彩에 制限을바더서 그다지 흥통한뎨이 아니끔。장바레氏監督아래 쫀、베리氏、리—느、크레벨孃等出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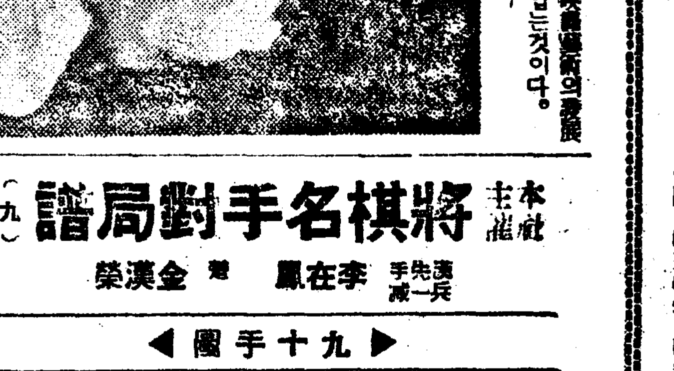
▼『愛歎』C·C·P·A·C作品으로서 가스톤、루데스氏가 로—벨、비발氏를 補佐해서 맨든映畫이다。세멀을가진 父親의이야기를 그家庭을 中心으로 描寫한것이다。피엘、루케—氏가父親으로 扮裝하고서 콘스탄레리氏 리렛트、란돌孃 크리—느、떼소孃 크리스챠느를郝孃等 出演이다

將棋名手對局譜 (九)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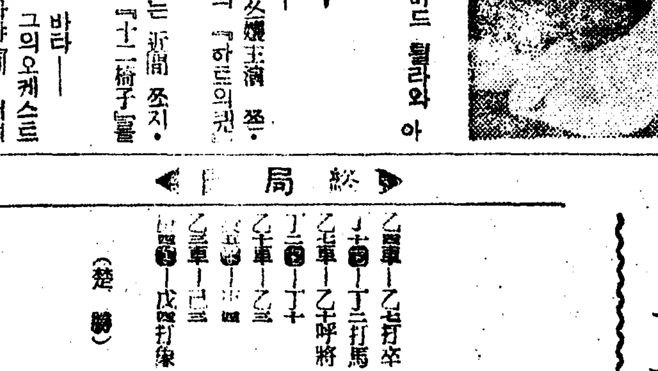
漢先手一兵減 李在鳳 楚 金漢榮 著

◀九十手圖▶



終局

乙四車—乙七打卒
丁三包—丁二打馬
乙七車—乙十呼將
丁一包—丁十
[illegible]—乙三
[illegible]—[illegible]
乙車—己三
[illegible]—戊四打象
(楚勝)



라디오

二日 (月曜)

◇午後六時 童謠와唱歌劇
一、童謠
(가)、齊唱방패연
(나)、同조켜나동생
(다)、獨唱지어는고양이 (金[illegible]任)
(라) 齊唱꿩보는소녀
白鷗會 指揮 林炳裕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許然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原始人의人生觀」 趙炳俊
◇同八時 音律 「靈山會像」 玄[illegible]
洋琴李永集 奚琴[illegible] 短簫洪斗連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古談 「夢中奇談」 申鼎[illegible]
◇同九時 流行歌 一、어머님품으로(金貞) 二、新春(李) 三、[illegible] 떠나가신님(金) 四、靑春의칸데뷰(金貞) 五、[illegible]의港口(金) 六、[illegible] 새시(李) 七、[illegible] 八、[illegible]打鈴 金貞九 李花子 金福明 崔仙 伴奏 DK管絃樂團

第二放送

◇午後六時(名) 發明物語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東) 合唱 詩吟 [illegible]
太夫 浪花節

三日 (火曜)

◇午後〇時五分 (東)洋樂演奏 一、크라리넷트 二、섹소폰 三、獨奏 近五郎 岡村雅雄 마리아노、마우라엠
◇同三時一五分 「히나마끄리」이야기 趙[illegible]
◇同六時 라디오世界一週旅行 「스위스」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證券上批評」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迎春하는動物이야기」 [illegible]成
◇同八時 春謠歌外 一、春謠歌 二、저절歌 三、가갸이打令 四、恩恩怨恨 五、孤獨의怨恨 曹松岡 細笛 高敬德 短簫 崔壽成 伽倻琴 金久春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 二、羽樂 三、平調 四、界樂 五、編 大笒 朴在頫 洋琴 金[illegible] 短簫 金永根
◇同九時 漫談 [illegible] 金昌鎬 鼓手 丁元燮

第二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名) 婦人의時間
◇午後〇時五分 (東) 管絃樂獨奏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 (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東)靑年의時間
◇同七時三〇分 (名) 講演
◇同八時 (東) 狂言
◇同八時二五分 맨돌린 기타—맨도라
◇同九時 (大) 歌謠리부—

☆曆☆ 三月三日 (火) 二月殘辛卯小 (十日) 甲申·水·觀·破
●祭祀嫁娶에 宜함
●驚蟄六日(第十三日)
●春分十八日(第二十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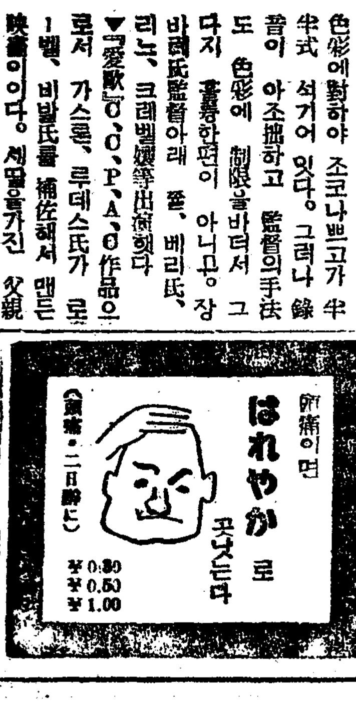
洋劇專門 浪花館

左記の如く變更に成り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御觀覽下さいます。
二月二十八日より三月二日まで 上映時間表
一、戀 情
一、雪之丞變化(解決篇)
一、新婚三壘打 松竹超ナンセンス映畫

△戀 情
山口勇、小倉繁、猿川玲子
△新婚三壘打 小倉繁、出雲八重子
連續一ヶ年波瀾曲折の物語り愈々解決!!
△雪之丞變化 解決篇 衣笠貞之助監督作品 林長二郎主演
三月四日より封切の二大特選番組
△花嫁くらべ
△め組の喧嘩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三四番)
二月二十八日ヨリ三月三日迄 名畵揃ひの御家族番組 階下席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プログラム
名喜劇ロイドの足が第一 ハロルド·ロイド主演 クライド·ブラックマン監督
ロイドが日本語でペラペラとまくしたて、ヤンヤと笑はせます!!言ふ事爲すことお腹がデングリかへる面白さ!! パラマウント提供P·C·L專屬スター聲の總出演誰にもわかる日本語トーキー
RKO社超特作 ウイーダ女史原作 世界的名小說の映畫化
名畵フランダースの犬 少年名優フランキー·トマス 名犬ライトニング號主演 監督エドワード·スローマン
時代劇 風流上州男 大都映畫特作 益田晴夫監督 海江田讓二·月宮乙女主演
漫畵·パラマウント特作發聲漫畵
安くて面白い

三月一日낫부터晝夜六日間特別大公開!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均一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朝鮮映畫京城撮影所第三回作品 完全發聲版!!
薔花紅蓮傳
監督 洪吐夢 撮影 李明雨 錄音 李弼雨
올스타캬스트
薔花와紅蓮이는裵坐首의쌍동이딸로태여 그런것이업시자라나더니 일죽이어머니를여이고不幸히惡毒한繼母를 맛낫섯다 繼母는自己가데리고드러온子息長釗에게 裵家財物을몰니여 주라는慾心에奸狡한手段으로裵坐首를속여薔花와紅蓮의姉妹를謀害하야죽이니 呼訴한마듸못하고억울히죽은薔花紅蓮을世上사람은不詳히아라주기는고사하고오히려奸惡한繼母의狡猾하는말만고지이들어不詳히죽는姉妹를辱하는세상이만헛다는지 나간어느時節에平安道鐵山고을에일어난이야기이다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西部活劇 冷藏庫의秘密 監督 랄프마이퐈氏 主演 리차드아이렌氏 사리아이라스孃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劇 그날의眞心 監督 후랑크캬푸라氏 主演 와나바스파氏 마—나로이孃
[illegible]劇場



頭痛이면 はれやか로 곳낫는다
(頭痛·二日醉に)
¥0.30 ¥0.50 ¥1.00

痔疾은 오세로
痔疾藥으로
¥0.30 ¥0.50

就學難緩和策으로 普校新設、增級決定
二校新設卅餘教室增築擴張
平南第二教育部案實現

【平壤】평양부내의 초등교육기관의 부족으로 매년 취학난이 심하여 아동의 입학이 곤난함을 당하고 잇스므로 제이교육부회에서는 당국과 악전고투를 하여가면서 학교증설급증가등에 대하여 진력중이든바 평남도에는 사범부속보통학교를 구만오천원을 투입신축하는외에 십일만원을 드려 십교실 보통학교를 신설하기로 될모양이며 긔설학교에는 종로(鍾路)에 륙교실 긔림(箕林)에 륙교실 서성(西城)에 륙교실 명륜(明倫)에 오교실 남산(南山)에 오교실 약송(若松)에 사교실 합계 삼십교실의 확장을 하기로 되엿다 이때문에 작년보다 일학년 신입생은 오학급이 증가하는 삼십일학급에 달하는터이나 아직도 지망자의 반분을 채용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예산에 잇서서는 금년도 이십칠만칠천원에 비하여 이배반이되는 륙십칠만구천원으로 증가하여 그중에서 삼십이만원은 긔채하고 부민에게 삼만원정도를 증가부담케 하엿다한다

路下에郵所設置

【宜川】평북선천군 동면 로하동(宣川郡東面路下洞)에서는 우편소가 업서 일반주민의 불평이 막대하든바 유지전형식(田亨植)씨의 노력으로 우편소 설치허가를 엇게되여 지난일일부터 개업되엿다한다

元山發展의關鍵 平元線工事進捗
末着工事地는新邑、館坪間뿐
明後年中에全通豫定

【元山】동해안에서 유일무이한 탄토항(呑吐港)으로서 한때에는 비약적발전을하든 원산도 함경선(咸鏡線)개통이후로 원산에집산되든 화물이 직접목적지에가므로부터는 우보적(牛步的)발전박게는업섯다 안이 발전이라느니보다겨우수세(守勢)를 하여왓슬뿐이라고한다 이러한 원산에 활긔를주고 비약적발전의 계긔를지어줄것은 평원선(平元線)의 개통이라고하는데 이에원산 상공회의소에서는 그촉진을 당국에 진정한바도 잇섯든터이거니와 수십년래 원산인사의 갈망하든 동선도 래명후년인 소화십삼년에는 개통되리라는데 지금동선의 공사상황을 알아보면 다음과갓다고한다

경의선(京義線)에서 분기된 서포、장림(西浦—長林)간의 구십륙키로간은 이미 영업을 개시중이고 장림、신읍(新邑)간칠키로여와 함경선에 분기된 고원과성내(高原—城內)간 삼십키로는 공사가 대부분 완성되엿스며 진동、관평(眞洞—館坪)간 륙키로에 궁한지점은 방금공사중어고 신읍과관평간의 오십이키로만 미착수로 남아잇는터이다고한다

이러케하야 평원선과 련락되는 만포진선(滿浦鎭線)과함께래명후년도에 개통되면 평안도와 함남오지(咸南奧地)에서 산출되는 물산이 평원선의 종점인원산에 집산될●라한다

伊川郡熊灘面民一致 普校設置陳情
住民敎養上急務라고

【伊川】강원도 이천군 웅탄면(伊川郡熊灘面)에서는 금번이천군수에게 면내공직자와 유력자가 웅탄면에 보통학교설치에대한 눈물겨운진정서를 제출하엿다는데 이제 진정서의 내용을보면 웅탄면은 강원도 제일북쪽한끗에잇서 함경남도 덕원(德源)과 안변(安邊)군의 경계지로서 륙천여명의 면민중 구할이 순전히화전민으로서 남북이 백리 동서가 사리의 큰면적으로서 면내아동중에서 다소 여유잇는사람은 신고산(新高山)과 가려주(佳麗洲)에 가서 공부하야면 내륙천여명중 보통학교졸업생이 겨우십여명에 불과함으로 올흔히생각하고 일면일교제를 금년도내로는 완성하는오날에 잇서 웅탄면내에도 학령아동이 이천여명이나 되므로 면사무소 소재지에 보통학교를 설치한다면 통학구역 일리반이내만해도 아동수가 팔백여명에 달할터이다 웅탄면민에게도 혜택을입게하야달라는것인바 물론도당국에서 보통학교설립에 대한 지정긔부금 삼천여원은 가난한 주머니에서 낼수업슴으로 부역과 재목 긔와등은 전부 부담할터인즉 그 남어지는 도당국에서 보조하야 주기를 바란다는데 이제진정서를바든 이천군학교비 당국에서 김학봉씨는 왕방한긔자에게 대하야 될수잇는대로 속히실현되도록 노력할것을 신변도에 산에 편성하야 구월일일부터는 개교할수잇도록 하겟다고하엿다는데 실로 웅탄면의 보통학교 설치문제는 화전민의 교양상중대문제이라고한다

海龍市民大會
囑託醫廢止反對

【山城鎭】지난이십삼일 봉길선해룡현(奉吉線海龍縣)거류동포들은 당지의료긔관(醫療機關)폐거대책에대한 시민대회를 당지삼합정미소내에서 개최한일이 잇섯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당지한의원원장(韓醫院院長) 한형식(韓衡軾)씨는 부근거류동포 오백여호의 유일한의료긔관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십이년전에 조선총독부와 외무성촉탁의로서 임명하엿든바 작년도에 해룡령사관출장소의 산성진이천(山城鎭移遷)과 동시에 전긔한씨의 외무성촉탁을 폐지하엿든바 이로인하여 한씨는 금후수입의 축소를예상하고 서안지방(西安地方)에 이거(移去)키로 운동중인것을 알게된 일반거류민들은 전긔촉탁의가 다시로이거케되면 후임증원(後任增員)은 여간난문제(餘間難問題)가 아니라하야 동촉탁의이거반대를 주로서 이에대한 대책대회를 개최하엿는데 동회에서는 김긔섭(金基燮)씨이외삼명의 진정위원을 선출하야 령사관과대사관(大使館)급 조선총독부에 진정하기로 되엿다한다

學年延長絕叫
通川郡內各學校

【通川】강원도통천군에는 일면일교제는 완성되엿스나 대개가 사년제이기때문에 이런학교를 졸업하고는 상학사률급의 정도가 되게로 농촌으로 헤여지고마다 그중에도 통천공립보통학교에는 사년제인임남공보와 벽양공보(碧養公普)를졸업한 아동 칠십여명이 전부통천공보에 지원하엿스나 통천공보에서는 이들 지원자를 오륙명밧게 더수용할수업다 한다 그럼으로 일반학부형들은 매우우려하고잇는반면에 학년연장을부르짓고잇다한다

눈물의二百圓을 學級增設에喜捨
金億知老婆美擧

【元山】남편도 자녀도업는 독신으로 지나는 륙십된 노파가 보통학교 학급증설에 이백원을 희사한 불다운 명랑한 뉴-스가잇스니 그는 원산부남촌동(元山府南村洞)에잇는 김억지(金億知)(六○) 노파이다 노파는 남편을 사별한후 슬하에 일점혈육도 가지지못하고 매일 쓸쓸한 세월을 보내며 쌀장사로 호구지책을 세워서 륙십이된오날까지 쉬지안코 근로하야가면서 한푼두푼 절약을하야왓다고하는데 이번 원산제일공립보통학교(元山第一公普校) 학부형들이 중심이되여 동교에 학급을증설하야 입학난의 완화를 도모코저 지금 갑부들이 돌아서주하며 기부금을 모집중이라는 소식을듯고 그와가티 이백원을 희사한것이라는바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飢餓에直面한勞働者 責任救急을言明
南浦姜偉楨氏壯擧
爲先生活狀態調查를依賴中

【鎭南浦】로동도시 진남포는 경조검사제 실시와 심한결빙으로 긔선의 출입이 두절되여 수천로동자들은 작년겨울이래 일자리를 일허버리고 속수무책으로 지내왓든바 생활은 비절참절하게되여 단장과아 선상에서 방황하는자 그수이천여호에 달하는상태임으로 진남포사회의 중대문제가 되여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참상의 소식을드른 진남포 공생사장강위정(共生社長姜偉楨)씨는 지난일일당지 조선인긔자단을 통하여 자긔가 적극적으로 구제의 책임은 질것을 선언한후 부내 각방면에 널녀잇는 로동자들의 생활상태를 조사하여 달나고 의뢰하엿다는바 조사가 끗나는대로 삼화조(三和組)사무원을 총동원식혀 구제미(救濟米)를 분배하리라는바 조사가 끗나기전에는 그수가 얼마나 될는지 자세히알수는업스나 당장에 먹을것이업서 시급히 구제하지 안으면안될 로동자만도 최소한도로 전여호를 돌파할것이라는바 씨의 금번 장거에는 감탄하지 안는이가 업다고하며 로동자들의생활상태를 실지답사하며 조사한결과 눈으로 보지못할비참참절의 현상이라고한다

普校卒業五百名中 上級志望僅二割
生活難이나흔反映

【元山】금춘원산부내 원산서내에잇는 공사립보통학교에서 오는 졸업생은 오백삼십명에달하는데 그중 상급학교에 지망하는 생도는 일백륙십여명밧게안된다고한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도야(陶冶)하는데는 적어도 중등정도교육은 바더야 될것이건만 겨우 보통학교로 학원생활에 끗을 마출수밧게업는 형편인 처지에잇는 졸업생이 전부 모다 십이삼세의 어린아이들인데 그들은 모다 연약한 몸으로 생존경쟁의 직업전선에서 살기 위한투쟁을 하지안흘수 업게되엿다고한다

工費三十萬圓으로 仁川市內重要線鋪裝
◇郵便局前부터牛角里까지
新年度豫算에計上

【仁川】경인의 대동맥이오 조선제일의 경인산업도로는 착공부터하야 착착진행중이라 인천으로서도 경성의 관문이니마큼 도시의체면을 유지키위하야 시내각도로를 포장(鋪裝)을하기리라는데 금번도예산에는 우편국압흐로부터 우각리(牛角里)경인도로까지 새로운포장을 하기로하고 삼십만원을 금번도예산에계상하리라는대 전기 외리동은 조선인시가의유일한상점가로써 포장과한가지 경전(京電)의 와사(瓦斯)관지못게되야 과연 도시체면에 아모러한 손색이업스리라하야 팔만시민은 손곱아 고대하는 형편이라한다

仁川附近海上에서 肥料船坐礁沈沒
損害額은約二千圓

【仁川】범선의좌초—부천군(富川郡)영흥면(靈興面)선재도(仙才島)문성호(文成丸)의범선이 지난이십사일인천서 두안(豆安)칠백오십가마를적재하고 수원(水原)남양(南陽)을향하야떠낫든 전기 선재도 근방에서 암판(岩板)에 좌초되야 침몰되고 말엇스나인명은 부근어선에 구조되야 손상은업스나 선체와 비료만 약일천팔백여원의손해가잇섯다 한다

貧家한집獨子가 흙에치어慘死

【汶山】파주군림진면선유리(坡州郡臨津面仙遊里)에사는 박호남(朴好男)(二○)은 독자로태어나 남과가티 복을못타서 가난한사리로 그날그날 품을파라 근근히연명하야 오든중 지금으로부터 수개월전에 그의안해 유씨(劉氏)가 병마에 걸려 산후하다가 드듸어 불귀의 객이되여 죽엄의길로 떠나자 그청년은남몰으게 서름에 눈물만 흘릴따름이엇다 그극궁한 사리로 우호로 늙은부모를 섬기고 아래로어린자식들을 거나리고오든중 지난이십팔일 오후일시반경그곳서두식(徐斗植)의 집터를닥느라고 하로 오십전에 몸이팔려 작업중고만 그청년은 흙에치여 무참히 참사하얏다는바 그의부모는 하늘가티 미더오든 독자를 닐흔 그참상은 눈물업시는볼수 업는 정경이엿다 한다

筏橋에覆面强盜
食刀로脅迫奪金逃走

【光州】지난이십칠일 오후십일시반경에 보성군 벌교면 지동리(寶城郡筏橋面池洞里)에 사는 삼상상주(三上庄三)집에 복면한 괴한이침입하야 잠자는 주인들을 발로차서 깨워노코 날카로운 식도로써 현금일만원을 내라고 협박하여 외집안을 뒤진후 결국현금칠원만을 강탈하여가지고 어듸론인지 도망하얏다는데 이급보를 밧은소관주재소에서는 즉시총동원을 하는한편 보성서(寶城署)의 응원을 구하여 필사적으로 수사에 노력중이나 범인은아직 체포치못하얏다고한다

賭博團一網打盡

【汶山】요사이 파주지방에는 도박이유행되여 파주서(坡州署)에서는 대활동중 지난 이십사일 파주군주내면 봉암리(坡州郡州內面)에서는 고복간(高卜■)(二) 리용주(李用柱)(二○) 김병룡(金炳龍)(三) 고선동(高先同)(二) 리동지(李冬至)(三) 리영재(李永任)(三)등여섯사람이 동리고복손의 집(下三) 김홍규(金洪圭)의 집에서 얼마전도박한것을 동주재소원이 탐지하고 전긔일당을검거하야 본서인 파주서로 압송하얏다한다

春風에일어나는 仁川火災二件

【仁川】봄바람에 흔날리는 불를!

◇寺町火災=시내 사정(寺町) 송한(松■)서유조합 창고에서 지난 이십칠일 오후팔시삼십분에 발화하야 약삼십분만에 진화하얏다는데 동창고에는 중유(重油)등을 장치하야잇서 위기일발에 겨우 진화되엿다는데 손해는 약사백여원이라고

◇花平里火災=전긔와 가튼 시각에 화평리(花平里) 김학전(金學田)의 집에서 발화하얏든바 약십분만에 진화하엿스며 불어오는 계절풍으로 염려되는 큰소동을 일으키엇스나 다행히도 손해는 일원가량에 끗치엇다 한다

全住民의七割이 飢餓線上에彷徨
當局의一時的救濟도紅爐點雪
谷城地方災民의慘狀

【谷城】전남곡성군은 재작년수해로 농민의 약간의 구제비와 리재민각자의 자력으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던중 작년에 또다시 본보에 루보한바와 가티 한재、충재、풍재로 농작물의 수확은 반감되고 지주의 가혹한 요구와 아울러 과중한 공과금 금비대채금등에 졸여 초가을에 조금나문 곡물도 파라버리고 빈주먹만 가지고 기아에 메싱원의 채무만 가지고 기근선상에서 악전고투하야 겨우 생명을 이으든빈민이 전주민의 칠할이나된다고한다。 당국의 약간의 구제비로도 하등의 큰효과를 내지못하고 다못 홍로중일점설격이여서 일시의 고식책도 되지못한다고한다 금번에는 더욱히 음산한날이 떠하니 이궁춘파에는 빈민들에게 막대한 난관이 잇스리라고하며 류리민의 속출과 동리동리의 결식군의 격증은 중대한 사회문제인동시에 이사활의 기로에서 헤매는 기근민의 최긴급최선의 구제는 위정당국의 실행하기를 갈망하는보라고한다

一面一校는말뿐 入學依然困難

【豊川】황해도송화군 십삼개면중 아직 학교가설립되지못하엿든 연정상리 하리(蓮井、上里、下里)세곳에는 금번에 보통학교가 설립개교됨으로 일면일교는 완성되는데 그래도 입학되지못할아동이 무려일천삼백여명에달할모양이라는바 실노문자그대로 초등교육도 밧지못하게되는 아동의 장래문제가 엇지나되려는지 한심한 현상을 자아내고잇다한다

死亡者一千二百名中 呼吸器病이四分一
昨年中元山의死亡統計

【元山】작년일년동안 원산부내에서 황천(黃泉)길로 차저간자는 일천일백팔십륙명으로 전년보다 일백구명의 증가이라는데 그를 의사인(死因)을보면 호흡긔병(呼吸器病)이 단연수위로 삼백칠십일명의다수이고 다음이 전염병의 이백오십칠명 소화긔병(消化器病)이백사십사명 신경계병(神經系病)이백삼십오명등의 순서이다 그외에 사산아(死產兒)가 삼십이명이되다한다

大同郡一帶에는 零下十二度

【大同】우수가지나고 경칩이재 이한곳일도 한란계는 령하십이도를 가리치니 우수나경칩에대동강(大同江)풀린다든말은 련상조차 할수업고 대동강상류는아직 모래를 강하는듯 우차가 빈번히래왕하고잇다한다

눈비끄테酷寒 柴灰價가暴騰

【全州】오래동안가물어록긔근을 조리든 전주부민의마음을 두고 연일 눈비가나리면서 지난이십일부터는 갑작이치위지는바람에 시탄(柴炭)이절핍되여잇고 여간잇는장작은 전에십여전가든것이 이십삼사전으로 약삼배가량 폭등되여 일반궁민생활에 일대위협을던저주고잇다

本報讀者優待

【圖們】본보도문지국에서는 삼월일일부터 본보애독자에게 간도용정 북향사(間島龍井北鄕社)에서 출판하는 간도유일한문예잡지를 상월삼일내로 무대진정한다고한다

地方人事

▲金瑞燮氏(原州稅務署長)赴任人事次本報原州支局來訪
▲金榮澤氏(伊川郡佳麗洲公普)新任人事次本社伊川支局來訪
▲鄭洞亭氏(江原道淮陽郡守)今月二十四日伊川自宅에서遭外艱
▲鄭洞晉氏(同家)同上
▲洪哲鈞氏(漢城銀行 鐵原支店支配人)大田支店轉任人事次 本報鐵原支局來訪

放蕩에서懺悔로 懺悔에서新禱로
初年의放蕩을懺悔
四十日間斷食祈禱
◇松禾郡 張學均君

「도시와 농촌을물론하고 나날이 느러가는것은 주사청루(酒肆靑樓)에 몸을적시여전도양양한압길을 생각지안코 일시의쾌락을 엿보다가영원히자긔일신을망처버리는과정에서 헤매이게되는속칭불량자라는동흠을밧는청년으로서 혼연방향을 전환하여 예수교리에 뜻을두고 여일연야 가장사랑하든녹뤼권장노리가 장이세상에 돌도업시 맛잇게마시든술과 담배를 딱금하여버리고 하늘을나불삼고땅을으로단삼고 돌을벼개삼어 로숙하면서라도 생(生)을니여 가려고 문전걸식하는 불상한걸인을 위하여 자긔의 사재(私財)를선부드려 걸인구제사업에 모다써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남조선 북조선각지로순회하며 걸인생활의 실정을 자신히체험한후 고향에도라와 자긔집 방한간을내여 뭉을굿게잠그고 팔십일 금식긔도(禁食祈禱)를마친 청년이잇다

◇

전긔청년은 금년이십구세의 청년으로 조고마한동가에 태여서 동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소규모의 상업을 경영하여왓스나 악마가튼 선진불량자들의꾀임에빠저 주야주색잡기로 그날그날을 허송하며 나날이늘어가는것은 비도덕적행동과 불량사업에 빠지게되여 부모의 모은가산을 탕진하여 부모들로서의 사랑할자식을 큰원수시하게되여 다라의구렁으로 밝길을 드듸든청년으로 돌연사회의정세에 「절실히늣긴다」가 잇서 지금으로부터삼년전느진가을 나엽지고 차듸찬바람이 엄습한날 재촉하는 어느날저녁 자긔동리의 예수교회당에서 치는 종(鍾)소리를듯자 곳회당에 달려가서 그교회지도자의 강도와 남녀노소의찬송가부르는것과 긔도하는것을보고 자긔의 과거모든 행동이전허정을 당한일이 아니엿든것을 깨닷고 자긔는금후로 예수그리스도의 교리그대로 영원토록일생을 마치겟다는 맹서로써 방향을 전환한 황해도 송화군운유면 사리리 오백이십팔번지장시양(張時良)씨의 둘째아들 장학균(張學均)(二九)이란 청년으로서 그가예수를 밋기시작한후자긔의 남은재산을가지고 문전걸식하는걸인들을 위하여 삼십여간의 합석집을건축하야 걸인수용소를 맨들어 그곳에오고가는 불상한걸인들을위하여 시탄과의복과 칠수까지 상시로 준비하여두고 한술의 조밥과 단한로의 따스한잠을재워보내고 또는 중병(重病)에걸린 걸인이그곳에서 세상을떠나게되면 장군 자신이 남의손을빌지안코 몸게 안장해준것이오륙회나되는바 세상사람들은 그의사업을리해하는자가 회소하야 도저히 장군을 정신병자라는등 가진풍설과 비방이구구하엿스나 군은 한결가티 『몰편능도로 구제사업에 전력하엿고 예수교리를 연구하며 황해도해서지방의 물론 원근각지에서 롱평당이 다수그곳에모히여 장군에게 눈물의 치하를 하는동시 그은혜를천주에 잇지못하겟다는뜻으로 서력일구삼오년십일월팔일에 긔념비를 세웟다

그후군은작년십일월십오일부터 자긔집방한간을 정결히치우고 안으로굿게굿게잠그고 타인이출입치못하게잠그고 그방에서 팔십일동안중 사십일은 조곰식 음식을먹으며 준비긔도를올리고 ×××시십일간은 전혀물(冷水)만마시고 긔도를 올린후 팔십일째되는날 그의친족들이 문을뚤고 쇠약은하엿스나 정신에는 하등이상이업시 잇는것을 다려내왓는데 군을방한 긔자에게 손을내밀어 굿게악수를 하엿다 긔자는 그의 팔십일간 금식과 긔도한동긔와 그동안의 심신상체험과 금후에처할바를 무르는동분간 자긔의팔십일간 금식긔도 손을내밀어 말하기를 심히어렵다는듯표하엿다 (豊川支局一記者)

咸興에酷寒再襲?
家家戶戶에毒感患者呻吟
零下二十一度로低下

【咸興】각지에서 봄소식이전하여오는이때 함흥지방은 지난 십팔일에 눈이나리고 무서운삭풍이 불기시작하면서부터 긔온이 급격히강하하여 다시금 무시무시한 겨울의 무장을 하게되엿든바 이십구일 오전오시에는 령하이십일도라는 희유의혹한이

酷寒과積雪로 麥作은全滅狀態
保寧地方人心不安

【大川】충남보령지방에도 수십년내처음되는 자곳지곳한 혹한이계속되여 금년 맥작(麥作)으나 우려하던중 지난이십일에는 도다시 때아닌 백설이나리며혹한은 계속하여 보리는 소생할여지가 업슬만큼 전멸되리라는바 더욱 작년도에 한재로인하야흉작이며한해를밧는남포(藍浦)주포(周浦)세궁민들이 장차 엇더케먹고 살아갈넌지 일반농민들은 큰공황에 싸여잇다한다

洪城支局主催 刺繡講習盛況

【洪城】긔보한본보 홍성지국주최로 조선미화자수보급회(朝鮮美華刺繡普及會) 대전연구소(大田硏究所) 김문규(金文圭) 김정자(金貞子) 량씨를초청하야 지난이십일오전십시부터 팔일간 홍성감리교회에서 긔모식미화자수강습회를 개최한바 의외에 회원이 날로증가되여 예정보다 하루를연장하야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 ◇寫眞……同會員과作品陳列

異次頓의死 【108】
李光洙作 金奎澤畫

평양공주는 아침처럼 이차돈을 대할사록 이차돈에 대한그리운 마음을 억제할수가 업섯다。이차돈의 설법을 듯는것도 그것은 마음에 들어가지아니하고 오직 이차돈의 아름다운、씩씩한 모양만이 가슴속에 쪽쪽박혓다。

하도 이차돈의 태도가 엄숙하여서 아모리 것드질을 하여보아도 한 달이가고 두 달이가도 한번도 이차돈의 눈이 자긔에게로 향하는것을 보지못할때에 평양공주는 이차돈을 손만 닷는데 잇는 별과 가티도 생각하엿지마는 그래도 밤이되여 방에 홀로 누엇스면、가튼 궁중에 담하나 새에 두고 이차돈이 잇거니하면 누룰수업는 그리운 마음이 불가티 일어낫다。

『아모리하여도 휠수업는 이차돈의 뜻』

하고 평양공주는 수업시 단념도하엿스나 그래도 단념이 되지아니하여서 가끔 어마마마를 뵈압고는、

『어마마마 이몸은 장을 모힙우오』

하고 하소하엿다。

왕후는 그말 한마듸에서도 딸의 뜻을 알아들어서、

『그러나 악아。이차돈은 이제는 불도에 몸을 바친 도인。아고기도 아니 먹고 장가도 아니 드는 도인。한 나라의 임금의 자리도 마다하고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대원을 세운 도인 생각한들 무엇하느냐。아조、단념하여라』

하고 동정잇게 그러나 엄하게 말슴하셧다。

그래도 공주는 단념할수는 업섯다。하로에도 몃천번、단념하고는 또 몃천번 단념을 하였다

『죽든지、이차돈을 남편을 삼든지』

하고 맹세하엿다。

『아모리 도인이기로 사람이어든、아모리 하여도 말이나 버들아기를 마음에 그리워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함이아닐까。』

이러케도 생각하여보앗다。그러케 생각하면 질투의 불스길이 가슴에 타올랏다。삽병전 이차돈이 자긔와의 혼인을 마다하고 밤에 달님의 집에서 자고나왓다는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렷다。게다가 버들아기! 오죽이나 정이 들엇소

면 불원천리하고 승이 되어서까지 이차돈의 뒤를 따라볼가、이러케 생각하면 견딜수가 업섯다 그래서 밤에 제 방으로 버들아기를 불러들였다。

불려서 말을 들어보아야 시언한 구석은 업섯다。누구를 엇기로니 잇다고 말할가、어떠케 생각하면 공주는 더욱 괴로웟다。

공주는 달님과 버들아기를 당장에 쫏차내고시펏다。축여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이차돈의 겨헤 잇지못하게 쫏차버리고 이차돈과 함께잇는 고주도 쫏차버리고 비록 담 하나만을 새에 두고라도 이차돈과 단 둘이만 잇고시펏다。만일 이차돈이 혼자만 잇슬것 가트면 아모러한 수줄을 하여서라도 차돈의 방에 달려가서 한사코 매어달리리라 하엿다。

아바마마는 천첨 불도에 기피 들어가서 법공(法空)이니 법운(法雲)이나 하는 이름까지 지으시고 향사를 피어노코는 경을 읽거나 선을 하시엇다。도저히 아바마마의 힘으로 이차돈을 자긔의 남편을 삼을것 갓지는 아니하엿다。

세월은 휭휭 가서 여름 장마도 다 지나고 팔월이 되엿다。곱벼도 가을때에는 벼어가물고 비를 때에 벼여 비가와서 한재와 수재로 농사가 말이아니되고 또 창마카 돌면서부터는 서울에나 시골에나 벼이 돌아서 사람이 삼다도하엿다。이 긔회를 타서 일봉으로 이것이 다 상감이 불도를 밋긔 궁중에 요물이 잇는 까닭이라하야 인심을 선동하엿다。검리 절지는 역시뎌에 불을 누는것도 한두 번이 아니엇다 이런 일이 잇슨 뒤에는 알공으로 이것이 다 우리나라 신이 노하야서 그러하심이라고도 하고 또 백성들이 절짓는것을 원하여서 그러함이라고도 하엿다 [illegible]

經濟解說

財界動態考察

大勢上根據諸點 (1)

申泰翊

이번에 發生한 東京事件으로 因하야 國家信用의 『바로메ー터』인 國債市勢가 떠러지고 一面으로 株式을 비롯한 各種取引市場은 지난 卄六日아츰부터 臨時休會를 보게되고 겨우 오늘에야 期米其他의 商品市場의 開場을 보앗스나 株式市場만은 依然臨時休會가 繼續되고잇다。이와가티 市場의 立會停止를 하게된 原因은 첫재로 이번事件이 財界에 밋치는 影響을 念慮한 結果로 어떠한 後繼內閣이 나오게될는지모르고 또는 그後繼內閣으로서 今後의時局을 잘收拾케될것인가를모르는點에잇고 딸아서 이것이 오늘에 一般經濟로하여금 重視케 하는點으로 되어잇다 그럼으로 앞으로 展開될 財界의 動向을 어떠케 考察하여야 될가 함이 目下 가장 緊要한 問題이다

×

이에잇서 먼저 最近에 東京新聞들의 所論은 어떠한가 함을 綜合하여서 紹介코자한다 「오늘과가티 對外關係가緊張한 이때에 國內財界에 큰變動을 주게될 政策을 내세우는內閣이 나타날것으로는생각지안는다 이것은 왜―그러나고하면 이번事件의性色을 보아서 後繼內閣의 性質과政策이 지금까지의 內閣과는相當히 달른바가 잇슬것을 알수잇게되는바 그와相似한 一例를들면 即 五、一五事件이 생긴뒤 犬養內閣과 性質이 顯著히 달른 齋藤內閣이 出現하고 또는 政策에 잇서도變更을 보앗든것이다 그러나 國民生活의 安危란 큰責任을둥에 질머진 政府가 國民生活의中心인 財界의事情을 全然 眼中에 안두고 行動할것으로는 생각이 안는다 그럼으로 國內의財界에 큰變動을 밋치게하고 따라서 財界를 混亂케하는事態까지에 안일흘게할 이勿論이다 어떤때로에 特大어떠한內閣이 나오든지 以上과가튼事情을 招致케하는政策은 어데까지 避함에 注力할것으로 생각한다

×

어와가티 財界는 大勢上큰變化가 안생길것으로도 보히다 만약에 財界에 變動이생기게된다면 그 最初은 金融界關係이다 그래서 첫재로 問題가될것은 金融界에잇서 金融機關의 營業狀態가 매우 重要하야 關東大震災當時 或은 昭和二年의 金融恐慌當時에 比하야 全然 그 內容이 달으고 中央銀行에서 充分히 信用을 바들수잇는條件을 具備하고잇다 그럼으로 가령 不測의原因으로 因하야 預金者의人心을 動搖케하는일이 잇드래도 이것을 充分히 堪當할實力이 잇다 딸어서 金融界에對한 不安은 그다지 甚大치안타 이번事件後의 日銀券이 增加하엿스나 이것은 主로 金融業者가 萬一을 準備한데 不過한것이다 그리고 爲替市勢는 國際收支로 決定되는것이지만 日本의 國際收支는 國力充實의反映으로 一時 支拂事件의衝動으로 모든方面에 惡化한것이 아니라 比較的 爲替는 變動이 적다

×

그러나 後繼內閣이 大인풀레金을 行하야 그 結果로 國債信用의低下、物價高騰等을 낫게하는 所謂惡性인풀레를 念慮할 경향도 不無하다 그러치만 過去에잇서 惡性인풀레를 念慮한때가 잇섯스나 實際에잇서 惡性인풀레가 안나타난것과가티 後繼內閣이 多少의 膨脹政策을 取케된다고 하드래도 그것이 곳 惡性인풀레를 意味하는것으로 速斷함은 早計이다 오늘의 日本內地生産力과 世界的인풀레傾向과의 關係를 보아서 全然 無謀한 인풀레政策을 取치 안는限 當分惡性인풀레不安은안일어날것이다 無謀한 인풀레政策은 … 結局에는 岡田內閣의 예풀레的傾向을 修正하는程度를 넘우지내치는 政策은 어데한內閣을 不問하고 避케될것이다

×

以上이 東京新聞의 論調이다 다음에는 그論調를 中心으로하여 가지고 次回로부터 財界情勢를 살펴보고자 한다 ―(續)―

鰮粕統制契約 一日에 調印成立

五個年을三個年期限으로縮少 委託販賣와一部直賣

鰮油肥新協定會議는 지난달 十日부터 열고 十九日에 鰮油協定 調印을 끗마치고 二十一日 鰮粕運賃 決定을본뒤 鰮粕의協定問題에 드러가서 各道生産者側의 强硬한主張과 三菱商事의 頑强한 主張이 對立되야 二週日餘에 亘하야 波瀾을 거듭하고잇든바 別項과가티 卄九日午後 續會에서 總督府殖産局의斡旋에依하야 協定成立을보아 三月一日午後에 各道 生産者 對 三菱商事間에 粕의 協定調印을 끗마치엇스며 그重要한 內容은다음과갓다

一、生産者는 鰮粕及피슈밀의販賣를 三菱商事에 一手委託할수잇슴(但 生産者가 一部直賣할수잇슴)

二、委託手數料는 從來의 二分五厘를 二分으로 引下함

三、協定期限을 滿三個年으로함等이다

의嚴重履行을圖하기로하고이實行을決議한뒤同午後四時散會하얏다

京城氷合同成立

京城氷合同은 成立되어過般以來 最後懸案인 中央物産製氷部의合流에 對하야 兩者間協議中이든바 中央物産은 一日重役會를 開하고 協議한 結果 一萬圓의 手數料로 同社製氷部를 新會社에 委任經營키로 決定하야 製氷業者全部의合同이 成立되엇다 新會社는 京城天然及朝鮮天然兩社의解散總會를 待하야 新會社의 資本金은 百萬圓이라한다

和信의連鎖店 株式組織으로

京城和信百貨店에서 一年前부터 經營中인連鎖店事業은 最近에 業務가 順調로 發展되야 第一年度計畫인 三百五十店의 開設이 完成되엇슴으로 이번에 百貨店으로부터 分立한法人組織으로 變更키로되야 三月一日午後 四時부터 鐘路二丁目 韓靑빌딩에서 創立總會를열고 資本金二百萬圓의 和信連鎖店株式會社를 創立하고 다음과가티 重役을選任하엿다고한다

▲社長朴興植 ▲專務取締役朱耀翰 ▲常務取締役李駿? ▲取締役李基衍 李奎載 ▲監査役林憲慶 李肯鎬

新會社에서는 京城에 本社를 두고 大阪의仕入部及京城、平壤、釜山、元山、群山의各配給所를 統制케되엇는데 在來의株式會社和信에서는 京城本店及 平壤支店의兩百貨店을 統制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新會社는 法人成立記念事業으로 第二年度募集計畫인 三百五十店의 募集을 開始하고 第三年度에 다시 三百店을募集하야 豫定計畫인 全朝鮮一千店을 完成할方針이라고한다。

財界安定의狀態 特別處置가不必要

◇…町田兼藏相談

【東京電話電通】政府는 今回事件에 伴한 財界推移에 關하야 關心을 가지고잇스나 事件濟着後의 財界安定處置에 對하야서는 今日의 經濟界는 平調에 全然危惧할點이업슴으로 今後積極的으로 處置를講究치안키로 決定하얏다 町田兼藏相은 一日閣議散會後 如左히말하얏다

今回事件으로는 國內經濟界의 動搖가 殆無한 狀態이며 外國特히 英米에 誇大히報道되엿더이다 貸出增도 主로 商人의 爲替資金으로서와 『콜』이 增加된程度이다 今日은 爲替도 安定되고 外貨日債도 反撥하얏다 딸어서 財界는 安定되어잇다고 信하고 잇슴으로 何等 安定策에對하야 處置를 取할必要가업다

運賃協定도調印

十貫一俵에二錢低下

鰮粕運賃問題는 去月二十一日午後 生産者 對 朝鮮郵船間에 協定이 成立되엇든바 粕의 協定問題가 解決되지못하고 調印을 保留하고잇든바 三月一日午後 粕의 協定調印이 完了되엇슴으로 左記內容에 依하야 同日午後에 生産者 三菱商事 對 朝郵間에 協定調印이 되엿다

▲粕運賃協定內容=期限 一個年間으로 朝郵에 一手輸送을하는데 運賃은 淸津과下關、門司間 從來 十貫一俵에 對하야 六十七錢이든것을 二錢引下하야 六十五錢으로하고 淸津 阪神間 其他 各港輸送運賃은 据置하기로하얏다。그러고 朝郵는 이輸送委託을 바든 貨物中 五割을 다른商船에 配定하야 輸送하기로되엇다

∨……休會中이다가 開場된 朝鮮取引所 米豆部(仁川)立會光景 (建物은同取引所)

下旬對外貿易

入超千二百餘萬圓

【東京電話電通】大藏省發表에依하면 二月下旬對外貿易槪算調査는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輸出	七三	三五七
輸入	八五	八九〇
合計	一五九	二四七
入超後入超累計	一四五	二七七

紡聯操短

現行維持

委員會에서決定

【大阪電話同盟】紡績聯合會에서는 二十九日 正午綿業會館에서 操短委員會를開催하고 四月以後 五月에至하는 二個月間 紡績操短에關하야 協議한結果로 現行案(四晝夜休業案 二割六分二厘)을据置 그리고 中小紡은 따로 市價對策으로 生産限定制度等을 主張하얏슴에 對하야 大紡績은 爲先 現行率据置에依한 需給의推定을 必要가잇는同時에 右配定制採用은 技術的困難의 理由로는 重要對策、委員의 다시研究를 거듭하야 六月以後의 操短에 附議하기로하고 또 現行操短据置

鰯搾粕販賣契約書

鰯搾粕協定問題는 二週餘에 亘하야 討議되든터인데 左記 協定書에 依하면 三月一日午後 咸北、咸南、江原、慶北、慶南 五道生産團體 對 三菱商事間에 協定이 調印되엿다

×

咸北、咸南、江原、慶北、慶南五道生産者團體(以下 甲이라稱함)와 三菱商事株式會社(以下單乙이라稱함)間에 左와如히契約함

第一條 甲은 그組合員의 製造하는 鰮搾粕 及피쉬·밀의販賣할것은 그販賣를乙에委託함 但甲은 二割의 直賣할수잇슴

第二條 乙이 海外에輸出하는 境遇의 原料로하는境遇又는 乙의飼料工場에 使用하는境遇에는 甲乙協議上價格을定하야 乙이 搾粕의 買取를 함을得함

第三條 乙은 原則的으로 揚地沖着 價格으로써 販賣함 沖着 價格은 貳等品 拾貫을 標準하야 此를定함 各等級의 格差는 搾粕 拾貫에對하야 壹等品은 貳等品보다 五錢高、參等品은貳等品보다 八錢低 四等品은二等品보다 十八錢低로함

第四條 甲은 揚地沖着까지 要하는 保險料、運賃其他 直接經費를 負擔함 乙이 沖着以外의 條件으로써 販賣하는境遇에는 沖着後의 諸掛는 乙의負擔으로함

第五條 乙은 最低賣價를定하야 甲에 通知함 最低賣價를 變更할때도亦同함 乙은 甲에對하야 最低賣價變更의 通知를 發하는時로부터 二十四時間을 經過하거나 又는 甲의 承諾이잇슬때는 新最低賣價를 基礎로하야 販賣함을得함

第六條 甲은 乙에對하야 最低賣價를 提示하며 또는 最低賣價의 變更을 請求함을得함 最低賣價의 提示又는 最低賣價變更의 請求가 乙의 各地營業所에 到達後에는 乙은甲의 提示賣價 又는 請求한賣價를 基礎로하야 販賣함을得함

第七條 乙은 賣約前에 미리荷渡時期及 數量에對하야 甲과協議함을要함

第八條 賣捌代金의 決濟에對하야는 甲은輸出品에 對하야 賣約代金에서 乙에 支拂할 運賃保險料 其他의 立替金及委託販賣手數料를 控除한金額에 對하야 製品積出後 拾貳日만에 支拂할 荷爲替手形을 乙에게 取組함

第九條 販賣、受渡、保險等의 取引에際하야 乙의 取引處의 契約不履行으로 因한 損害에對하야는 乙이 그責任을짐 但天災、法令、恐慌、戰爭 其他의 不可抗力、品質의 不良腐敗 其他商品의 暇疵、荷揚、荷卸、輸送中의 損傷滅失等에對한 損害、取引의 書信의遲延、不着誤電等으로 因한 損害에對하야는 乙의過失이아닌限 乙은그責任을 지지안음

第十條 甲乙協議上 日本內地에 製品을 貯藏하는 境遇의 倉庫料 其他의 經費 並그立替金에對한金利는甲의負擔으로함

第十一條 海上保險契約 及日本內地의 倉入契約 並그實行에關한 事項은이것을乙에委任함을得함

第十二條 倉庫料、保險料及運賃 其他 直接의經費는 乙이甲에게報告함 但 臨時를要하는때는 此限에不在함

第十三條 甲은手數料로서 乙에對하야 沖着販賣價格의 千分의二拾에相當한 金額을支拂함

第十四條 乙은販賣契約을 하는 때마다 遲滯업시 그條件을甲에게 報告함

第十五條 乙은市況並 需給狀態等을알수잇는대로 正確迅速히 甲에게報告함

第十六條 甲은隨時鰮漁業의狀況及 製造의狀況을乙에게通知함

第十七條 乙은朝鮮總督府又는甲의要求잇슬때는 製品販賣에關한帳簿의閱覽을拒絶함을不得함

第十八條 第一條의 規定에依한 一部直賣의 取扱 其他必要한事項에 對하야는 따로 此를定함

第十九條 本契約의 存續期間은 昭和十四年 三月三十一日까지로함

第二十條 本契約의 實行에잇서 크게 支障이 生할時는 甲乙協議上 契約의 改訂을 함을得함

第二十一條 本契約 又는 이에附帶하야 或은 關聯한契約、覺書及 協定의 解釋에對하야 疑義가 生할時는 朝鮮總督府의 決定하는데 依함

右契約을 證하기爲하야 本契約書 四通을 作成하야 當事者及立會人 各一通을 保有함

昭和十一年三月一日

當事者 咸北、咸南、江原、慶北、慶南五道 鰮粕製造團體
三菱商事株式會社

立會人 朝鮮總督府水産課長 西本計三

商品諸市場再開

◇…一齊平穩의場面

三月二日은 株式은依然休會이나 其他淸算市場은一齊再開된바 各市場共히 別로 큰衝動이업섯다。이제三月二日의 先限前場寄價를 事件前인 二月二十五日先限後引 各淸算市場先限比較 如左하다(今日은 淸算市場의 新甫發會임으로 二月의先限과 今日의 新甫를 比較함은不合理한일이지만 一般이얼는보기에便키爲하야 그대로比較한다)

◇…期米

	三月二日先限前寄	二月廿五日先限後止	比較
大阪	三一、三四	三一、二四	一〇高
東京	三一、四九	三一、一四	三五高
神戶	三〇、一四	三〇、〇四	一〇高
仁川	二九、〇六	二九、〇六	不變
群山	二八、八〇	二九、〇〇	二〇低
大邱	[illegible]	[illegible]	不變
木浦	[illegible]	[illegible]	三低
釜山	[illegible]	[illegible]	不變

	三月二日	二月二十五日	比較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一〇低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二〇高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五三、三〇	五三、七〇	四〇低
橫濱生絲	六八三、〇〇	六九三、〇〇	一〇、〇〇低

各地正米

京仁卄五錢低

朝鮮內各地正米는 再開된 期米市場平穩과相俟하야 큰 波瀾이업시 形勢傍觀裡賣買가稀少하고 少高少低의區區이엇는바 이제三月二日의各地正米市勢를 事件前인二月二十五日과比較한것은 如左하다。

各地正米三等

	三月二日	二月二十五日	比較
京城丸仁	[illegible]	[illegible]	二五低
仁川丸仁	[illegible]	[illegible]	二五低
釜山角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角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菱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丸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對外貿易

二月中槪算額

二月中 朝鮮對外國貿易槪算額은 다음과갓다 (單位千圓△減)

	三月	比前年同期
輸出	四、九三七	一、四四〇
輸入	九、五五一	三、八五八
合計	一四、四八九	五、二九九
入超	四、六一四	二、四一八

그리고 一月以後累計는 다음과갓다

	今年	比前年同期
輸出	九、八八六	三、〇八四
輸入	二〇、五九五	九、一五二
合計	三〇、四八二	一二、二三六
入超	一〇、七〇九	六、〇六七

對外爲替市況

【東京二日電話同盟】

▲東京爲替(各日市勢)

	買	賣
對米	二十八弗八分七	二十九弗
對英	一志二片	一志二片八分七

▲大阪爲替

	買	賣
對米	二十八弗十六分十三	二十八弗十六分十五
對英	一志二片十三分十七	一志二片十三分十九

商況(三日)

株式 各地모다 續休

東西株式臨休

【東京電話電通】東京大阪株式兩市場은 繼續하야 協議會한結果 日間 立會를停止하엿슴

期米 平靜 立會再開

前場低迷

東京事件으로 五日間 立會를停止하엿든 各地市場은 …

事件後의米價

比較的平穩

東京事件이發生하든當時에는 株價六百丁暴落 米價百丁低落의說이擴頭하엿섯스나 即時各市場의 休會로後想의市勢를 보지못하고 五日間立會가停止되고 딸아서 事件이 鎭靜되엇슴으로 休會로後想의市勢를 … 市中人氣도 自然靜寂되어 險惡化하든 結局 되것이잇다한다

市場六感

株 二、二六事件으로 立會停止中인 株式은 언제 再開될가? ▲新內閣成立까지 休會가 옳겟지! ▲株界로서 가장꺼리는 政局이 어떠케될지? 비록 財界의 根本基調를 轉換식힐일은 萬無하겟지만 이러한 漠然한推測만으로는 安心不許 ▲市人의再開後商方針은 區區不一한데 그二、三을紹介하면 ▲再開되어 東新四、五圓低程度以內로 影響이 輕微케된다면 자、萬一 大暴落되거던 急反撥이 快나니 傍觀하자라는것

米 東京事件이 突發하자 株米其他各取引市場은 一齊히休會하엿다가 今日에야 場門을 열게되엿다 ▲그事件의 發生當時에는 市中人氣가 자못險惡하야 大暴落이 잇슬것으로 豫想하엿스나 五日間休會와共히 不安人氣가 漸次靜息되어 結局市勢에 그다지큰 影響이 업시 平穩裡에 立會되고말엇다 ▲그럼으로 軟派들의 一擧千金의 期待는 一場春夢化하고말엇스며 恐怖에싸여잇든 硬派는 更生의봄을 마지하는 光景 ▲果然今番事件이 市場에多影響은 이로써 一巡하엿다고할가? 아즉도 疑問이겟 ▲後繼內閣의政策도 아즉알수업거니와 日本經濟界를 잘支配하든 高橋藏相이 逝去라 어떠한人物이 그椅子에안게될지 此가注目處 ▲今後政治의如何를따라서 市勢는 다시波動이잇슬것임으로 大勢는이로부터展開?

今日財界(二日)

◆米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銀行	[illegible]	[illegible]
金貸	[illegible]	[illegible]

◆綿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朝取證券部臨休

朝取證券部는 二日도 協議會의結果臨時休會이다

東株四日까지

休業繼續決定

【東京電話同盟】東京株式取引所에서는 取引員과 協議한結果 午前十一時重役會를 開하고 長期市場及短期實物國債各市場을 更히 三、四兩日도 休業續行키로決定하야다

朝取證券三日續休

朝取證券部는 二日午後 商議會의結果 三日도前後場休會키로決定하야다。

大株도三日休會

【大阪電話同盟】大株에서는 二日午前十時부터 商議員會를 開하고 善後處置를 協議한結果 三日前後場의 立會도 臨時休業키로하고 短期市場國債의受渡를 行하고 短期의日步는 繼續하야 前日의 踏襲하며 四日의 立會開始는 三日午後一時부터 商議員會를開하고 決定키로되엇다

百五十五圓에

東新强制解合

【東京電話電通】東株市場問題가 再開前 新東株百五十五圓으로 停止前의 百五十九圓七十錢에 約五圓比較的 低位로서 强制解合되것이잇다한다

各地期米新甫鞘

各地期米市場의 新甫五月限을 前左히 모다上鞘를 示하얏다

(四月限)(新甫)(鞘) (單位錢)

	四月限	新甫	鞘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	[illegible]

後場細刻

後場은 二十九圓〇八錢에 一丁高로 始場後〇七、〇八錢間細刻이다가 六節〇五錢으로 〇六錢에 止하엿다

結局〇七錢에 場을止하엿다

短貯는解除!

今後가注目處

去二月末日로써 朝鮮短期貯藏은 自然解除되엇다 그石數는 玄米二十萬石 正租百九十萬石으로 此를 石으로 換算하면 百十餘萬石이 나된다 果然 農家의 態度가 何如할지 此가 今後의 注目꺼리인데 그短貯에 對하야는 當局으로부터 補助金을 與하여 왓스나 解除後부터는 補助가업서지고 金利倉庫料는 依然負擔하게되는關係上 貯藏者는 米價의騰落如何를 不拘하고 그만한 損失을보게됨으로 持久的賣惜方針을 取할가함이 疑問이다 더구나 時日은漸次 春暖期에接近하게됨으로 品傷의念慮가 업지아니하고 就中에는 換金急의賣物도 업지아니할것임으로 結局은 集中市場으로나오고 말것을 豫期할수잇다 實로短貯의賣物이 現出하게되는때는 自然賣物壓迫을 加하게될것이며 따라서 期正兩界의 一時反落을免치 못할것임으로 買方針을 固執할수업다고 軟派는主張한다 果如何?

朝取期米前場賣買

第一節 (賣)[illegible] (買)[illegible]

仁川在米增加

【仁川】去月廿九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計米는五、四四二叺의增加를示하엿는데 在庫品細別하면左記와如하다

▲玄米(政)一七九、五三〇叺 (民)三五〇、三三〇叺五斗入二 九二二叺▲白米三二七叺▲正租 叺入(政)八六、九三二叺(民)一 三六、〇八六叺(俵入)(政)一八 五九二俵(民)一、五七一俵▲大豆四七、一一七叺▲小豆二五〇叺▲大麥(白五、七五二叺(裸) 三四五叺三七八俵▲小麥二四、

一一六叺▲粉米四斗入一、八二 六叺五斗入二五三叺▲粟一〇七 叺四、七二三俵▲荏子四〇〇叺 ▲胡麻八八俵▲黍六八五叺(高 粱)一、二〇〇叺▲糯六一一叺 (台丸)四、四五八俵▲日本內地 米三、九九八袋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五月의新甫期에 直히地場의買氣熾烈이오今朝新甫는二十一錢의上鞘로發會하얏다。新甫五限과朝鮮短期貯藏正租解除으로서는 朝鮮短期貯藏人氣의反映인一方賣方의 騰氣와 三次買上의 無期延期

各地正米

京城閑散

月初이나마 形勢를보고 積極的인買氣가업서 極히 閑散場面으로 推移되엿다 丸仁三等 二十八圓四十一錢 四等二十八圓 十五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少締

定期好調이나 意外로 取引은寂寥함으로 僅히 當用間의 小口取引이 어슴에 不過하얏다 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五錢 四等二十八圓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〇五錢

釜山底固

市場賣物二千五百叺、定期頑强으로 關門方面의 買가잇고 當用間의買漁로 市況은 强堅하야 取引高千七百九十叺、角フ三等二十八圓七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六錢

群山少强

到着十三輛、期米의意外好調移에 日本內地當用向

大邱無味

期米強弱報에 인하야 程度로 一般은 形勢傍觀이오 角フ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八圓 一等白米十一圓九十錢

木浦少弱

內地氣配二、三十錢崩落을報하야 人氣多少安定되엿스나 期米上放을移하야 지며 短期의 解除와共히 産地의態度를注目하야 飛付買는警戒되어 唱은休日前日보다十五錢下放인 丸木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

의注文이잇서서前日보다十錢高唱인 菱ワ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錢

期米二日

◆朝取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前場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日本米上 [illegible] 朝鮮米上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當限 中限 先限 賣買高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玄米 [illegible] 朝鮮玄米 [illegible] 台灣玄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圓)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多獅 / 仁川銀坊主 / 群山銀坊主 / 木浦雄町 / 大邱穀良都 / 鎭南浦陸羽 / 新義州陸羽 / 元山龜尾 / 咸興陸羽 / 馬山穀良都 / 平壤陸羽 / 釜山穀良都 [illegible]

金融二日

◆海外經濟◆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米穀二日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二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鰮油沖價◆ [illegible]

◆鰮搾粕沖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商品二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現物D格 [illegible]

◆海外砂糖◆ 現物糖(S.T) 實買中價 [illegible]

◆芝加古期麥◆ [illegible]

內地緣蔘 白蔘 精白米、薯屬糯米、玄碎米、中粉米、白、赤胡麻、粟、

產地 直輸入商

釜山大倉町四丁目廿五番地 合資會社東一精米所 代表社員尹貞浩 電話一九九〇番

超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金銀白金地金賣買分析 高價買入 丸福商店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五九 電話本局三六九四番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灘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과北鮮各産業組合經由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福 吉村取引店